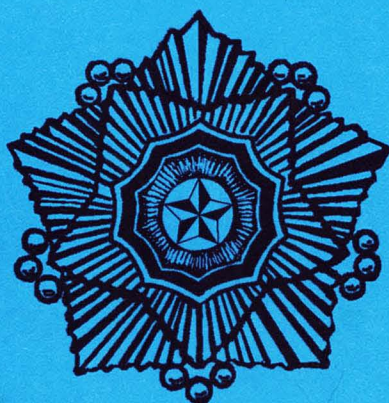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조선문학



9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9호

(루계 제 731 호)

차 례

수령님과 공화국기발.....	4
국기	4
조국이란 무엇인가.....	5
영광스러운 조국에 대한 찬가로	6
선군조선의 위용을 더욱 빛내이자.....	6
9 월의 아침에	8
《애국가》에 어린 송고한 뜻.....	9
국가	9
우리 수령님	10
국기와 국장을 볼 때마다.....	20
위대한 스승의 한생	21
못잊을 기적소리	21
《나의 조국》과 함께 영생하는 시인.....	22
국 장.....	24

선군장정에 드리는 시	28
나는 밀림의 설레임소리를 듣는다	29
조국이여 그품에만 살리라	29
작가와 조국	30
조국을 생각한다	31
휘날려라 공화국기발이여	33
조국을 안고사는 사람들	35
아름다운 금수강산	37
세기를 넘어 울려퍼지는 조국찬가	38
큰길우에 소달구지 한채	40
어머니! 인사를 받으시라	41
사회주의에 부칩니다(외 1 편)	42
사랑의 이야기	43
하나의 기발	43
인간의 정	44
총과 기발	57
조국과 나의 가정	58
공화국기발	61
조국에 첫 인사 드리며	69
세계경구, 격언	69
선군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된 기념비적명작	70
병사와 조국	73

중세소설들에서 형상된 애국명장들의 성격적특성	75
이 사람들속에서	77
수이전체산문.....	77
아들애의 말	77
한생의 재부	78

수령님과 공화국기발

리영철

한껏 높아진 9 월의 하늘에
승리와 영광의 60 년을 떠이고
우리의 해와 별로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여

내 너를 우러러 서니
절로 눈굽이 젖어드누나
민주조선의 첫 국기를 게양하시던
그날의 수령님모습
뜨겁게 어려와 어려와그날의 저 기폭
수령님 그 몇번을 쓰다듬어보셨으랴
세계의 이목을 다 모아
삼천만의 머리위에 휘날려 주실 때
생각은 그 얼마나 깊으셨으랴

스무성상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함께 싸우다 쓰러진 전우들
밀림의 흰눈을 물들이던 그 혈조가
그대로 저 붉은 기폭을 이루었으니

빼앗긴 고향, 짓밟힌 조국을 찾고자
항일전의 준령을 넘고 또 넘어
빨찌산 김대장 안아온 승리가
저렇듯 위대한 별로 솟아 빛나고있으니

우리의 기발
인민의 새세상을 창공에 펼칠때

수령님 온 뉘트로 그우에 없으신것은
이 땅우에 영원할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실 한생이었어라

전쟁의 불구름속에서도
민족의 기상과 존엄을 떨쳐온 기발이여
재더미를 헤치고 일떠세운 락원우에
전설의 천리마를 탄생시키며
공화국의 번영기를 새겨온 기발이여

력사를 이끌어온 너의 기폭의 펄럭임소린
애국으로 높뛰고 애족으로 불타는
수령님심장의 고동소리
9 월의 하늘을 짝 채운 너의 모습은
오늘도 래일도 우리 수령님모습

광풍이 사납게 몰아쳐와도
원쑤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변함없이 인민이 받들어 빛내갈
너의 기폭의 모습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으리

천만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라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백두의 총대로 더 높이 날려주신 람홍색기발
우리의 운명이고 삶의 요람인
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여!

상식

국기

국가를 공식적으로 표식하고 상징하는 기발.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표현한다.
국기가 언제 생겨났는가는 명백치 않다. 현대
적의미의 국기를 처음 제정한것은 부르조아혁명
후의 프랑스이며 이 국기는 《자유, 평등, 박애》
를 표시한다는 삼색기였다.

국기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된다.
우리 나라의 국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37(1948)년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창건과 함께 제정되었으며 공화국의 사
회주의헌법과 국기법에 규정되어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백두산위인들의 명언중에서-

《조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냇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깨달을수 있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조국을 하직할 때의 비감에는 견주지못한다. 고향을 친어머니에 비기고 라향을 이붓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라향보다 몇곱절 더 생소한 이국은 무엇에 비길것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 키워준 자애로운 품이라면 조국은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요람이다.》

《조국은 곧 자기 령토, 자기 인민, 자기 주권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다.》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애가 강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게 된다.》

《조국의 운명속에 겨레의 운명이 있고 민족의 장래가 기약되어있다.》

《모든 설움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움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며 망국노가 되어 조국을 떠나는 슬픔이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자를 지지 못하는 법이다.》

《나라잃은 설움으로 통곡하기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 한개라도 더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

《가장 보편적인 사람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애와 민족애, 인민애, 인간애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주체의 조국이다.》

김일성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김일성**조국이며 우리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다.》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곳이라야 한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인간의 중요한 속성이다.》

《자기 처자,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이자 곧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애국속에 우국이 있고 구국이 있으며 바로 그 속에 충정이 있고 자기희생성이 있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신념이 생기게 된다.》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울수 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 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다.》

《조국을 위하여 해놓은것도 남길것도 없는 사람은 한생을 헛되게 보낸 가련한 인간이다.》

《애국자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이다.》

김정일

영광스러운 조국에 대한 찬가로 선군조선의 위용을 더욱 빛내이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0년의 자랑스러운 년륜을 새겼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조국과 함께 주체사실주의를 높이 들고 문학활동을 벌려온 60년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진정한 인민의 참된 문학을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어 그들모두가 자기의 문학적재능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극진한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매우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받들고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으로 우리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주체문학건설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적극 고무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과 밀접히 연결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이며 당문에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과 선군조선의 위용을 온세상에 떨치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길이 있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 가장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노래하는 문학작품들을 성과작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작가들은 문학형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반만

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한 사회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우시고 한평생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으로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통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강철의 의지,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 정치군사강국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지면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었다. 대소한의 추위도 삼복철의 무더위도 가리지 않으시고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애국의 열정이 끓어오르게 하고 이땅우에 창조와 변혁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다.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로 온 겨레를 격동시키는 력사적사변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심장을 끝없는 창작적충동으로 불타오르게 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펼쳐지는 경이적인 현실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정신력의 무한대한 원천으로 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모든 형태와 형식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기본을 두고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백승의 혁명철학이 담겨져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전략과 투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장군님따라 나아가는 길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을

감성적으로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드높이 형상적으로 구가하는것처럼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다.

모든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작가로 된 숭고한 사명과 영예를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 모든 탐구와 사색,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며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선군시대의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를 정신력의 근본핵으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다져진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이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녀트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과 그것을 계승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강화하고 빛내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누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인민 자신이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투철한 신념,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값높은 삶은 없다는 고결한 신념을 지니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려나가도록 하는데 작품의 문제성을 설정하고 지향시켜나가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작품으로 적들의 반동적인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몽개버리며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 우리의 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을 쫓먹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끼여들지 못하게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인공의 성격을 옹게 그리는것이다. 우리는 작품의 형상에 령도자를 마음속으로부터 열렬히 그리며 따르는 순결한 인간,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헌신하는 길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고 언제나 한모습으로 사는 시대의 전형을 감동깊이 그려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펼쳐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우리의 들끓는 현실을 문학형상에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작가들은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에서 우리당이 특별히 중시하고있는 주타격전선의 생활을 반영한 현실주체의 작품을 민감하면서도 기동성있게 진실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군시대현실을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들이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인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며 우리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종자를 탐구하고 생활을 그리는것이다. 여기에서도 특히 우리 당이 주타격전선으로 규정하고있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고있는 현실속에서 시대의 전형들을 찾아내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형상의 초점을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진실하게 그리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을 비롯한 경공업부문 등 인민생활에 직접 이바지하는 부문의 생활을 적극 반영하며 형상의 질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신뢰심을 깊이 간직하고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품마다에 우리 조국이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주체의 강국으로 비약하게 한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이 온 나라를 뒤덮게 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옹은 립장을 가지고 이것을 당의 의도에 맞게 풀어나가는데도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이 시각 우리 작가들은 깊은 추억과 뜨거운 감회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조국과 함께 전진하여온 우리 문학의 공지에 찬 성과들을 돌이켜보며 주체문학의 주인이 된 자부와 함께 자책감에 젖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아직 유구한 민족문학사에 류례없는 격동기에 사는 특전을 누리고있지만 더 높이 올라서야 할 형상의 봉우리에 자랑스럽게 오르지 못하고있다.

작가는 문학으로 선군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명작으로 시대를 빛내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지나온 년대에 이룩한 창작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주체문학의 형상수

준을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한다.

우리 작가들은 비상한 각오와 시대적사명감을 심장에 간직하고 우리 문학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하여 끝없는 탐구와 사색, 심혈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문학형상의 높이이자 작가의 재능의 높이이다.

우리는 창작적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재능을 최대한으로 런마하고 발휘하도록 하는데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군시대의 위대한 현실을 떠나서는 작가적재능도 키울수 없고 명작도 창작해낼수 없다. 작가들은 결코 책상주의자가 되지 말고 현실속에 심신을 폭 잠그고 거기에서 생신하고 독창적인 종자를 골라잡고 형상의 꽃을 피워야 한다.

지금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의도를 구현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결작들이 창조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미학정서적요구를 더욱 충족시켜주고있다. 특

히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창조된 음악작품들인 《강선의 노을》, 《눈이 내린다》를 비롯한 많은 명작들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충동과 각오를 더욱 불러일으키며 많은 시사를 안겨주고있다.

당의 선군령도따라 력사의 모진 풍파와 시련을 헤치며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60년력사와 함께 힘있게 전진하여온 우리 작가들의 가슴마다에는 주체문학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창작적비약의 열정이 뜨겁게 융솟음치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며 문학예술의 비범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우리가 점령못할 창작의 요새란 있을 수 없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찬가로 선군조선의 위용을 더욱 빛내이자.

9 월의 아침에

함영주

9월의 이 아침 당보를 펼치니
위도와 경도를 넘어
앞을 다투어 보내온 축하전문들
구절마다 진정이 넘쳐흐른다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아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사회주의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을 흠모하여 삼가 올린 글발들
내 가슴에 뜨거운 격정을 일으킨다

장군님 찾아뵈웠던
대륙넘어 친선의 사절들이라
장군님 친히 만나주셨던
대양건너 형제의 나라 수반이라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세계자주화의 선봉투사들
나라와 이름은 서로 달라도
흠모와 경모의 마음은 하나

우리 장군님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아래
자기 운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였기에
따르는 발걸음은 수억이여도

심장은 한숨결로 고동치나니
아, 5천년
흘러간 민족사가 돌이켜지는 아침이여라
천만년
무궁할 앞날이 안겨오는 아침이여라

수령님존함으로 빛나고
장군님령도로 우뚝 솟은 내 조국
만민이 함께 맞는 공화국창건 60돐이여

지구의 곳곳에 환희롭게 펼쳐진
경축집회장들이 눈앞에 보이는듯
이 나라의 공민된 존엄과 긍지
가슴 한가득 넘쳐나는 9월의 아침이여

축하전문들은 길지 않아도
글 한자한자에
우리 장군님께 드리는
폭넓고 숭엄한 송가의 선물이 울리는듯
나는 심장으로 듣는다

애국가의 주악처럼 장중하고
백두의해돋이처럼 하늘땅에 찬란한
아 태양조선찬가
9월의 이 아침 세계에 울린다

《애국가》에 어린 숭고한 뜻

내 조국의 보람찬 새날을 맞으며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이 강산에 높이 울려 퍼진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불타게 하는 노래 《애국가》에도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크나큰 로고 가 뜨겁게 깃들어 있다.

주체35(1946)년 9월 하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들을 부르시어 《애국가》를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그 창작방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인민,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 강산을 피로써 지켰으며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의 근로인민들은 오늘 자기 손에 정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작가들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었다.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애국가》의 창작방향이 환히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그대로 《애국가》의 훌륭한 가사로 되었던 것이다.

새 조국 건설로 온 나라가 들끓던 주체 36(194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애국가》의 시청회에 친히 참석하시었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무더웠다.

시원한 바람을 일구며 사르륵사르륵 돌아가는 선풍기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좀 덥기는 하겠지만 새로 창작한 《애국가》를 위하여 선풍기를 끄는것이 어떻고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 선풍기는 멎고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드디어 《애국가》의 선율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장중하게 울리는 선율을 주의깊게 들으시기도 하고 가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보기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 그아래를 다시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도 단조롭지 않은가, 다시한번 부르면 선물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될뿐 아니라 노래도 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의 《애국가》는 이렇듯 가사의 주제와 내용, 작곡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에 의하여 창작완성되었다.

상식

국가

국가는 한 나라의 기상이나 영예를 상징하여 국가적으로 부르도록 정한 노래를 말한다.

이 국가는 정치적송가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예리한 계급적성격을 띤다. 국가는 의식 및 국가적인 행사때에 대중들이 합창으로 부르거나 기악으로 주악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국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제정하여주신 《애국가》이다.

주체36(1947)년에 창작된 《애국가》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데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굳은 결의가 뜨겁게 어리어 있다.

2부분형식으로 구성되어있는 노래의 선율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장중하고도 숭엄한 서정적양상으로 일관되어 있다. 장중한 선물진행과 간결하고 뚜렷한 음악구조는 가사의 심오한 사상을 명백하면서도 깊이있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애국가》가 창작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천년의 장구한 역사에 처음으로 진정한 국가를 가지게 되었다. 《애국가》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차게 떨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빛나는 상징으로 전세계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



1

창문에 푸릿한 새벽빛이 어렸다.

집무실 탁상등빛밑에서 문건을 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실으며 가벼운 심호흡을 하셨다. 이 새벽에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벌써 몇시간동안 집무탁에 마주앉아계셨건만 피로와 지친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들고 책임부관을 찾으셨다.

《책임부관 리준호 전화를 받습니다.》

성미가 결곡하고 유순한 책임부관의 맑은 목소리가 수화기전동판을 울리자 그이께서 소리없는 미소를 지으셨다.

《내가 단잠을 깨운것은 아니요?》

《수령님, 새벽 5시입니다.》

수령님께서 어김없이 새벽이면 집무실에 나오신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책임부관 리준호는 그 시간에 자신도 하루일을 시작하는것을 준칙으로 여기고있었다.

《허,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집무탁우에 놓여있는 탁상시계를 금관을 여겨보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기상수문국에 오늘날씨를 알아보시오.》

《알겠습니다, 수령님!》

그이께서는 조용히 송수화기를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가시었다.

해뜨기전 첫새벽이어서 창밖은 희끄무레한 빛속에 잠겨있었다.

그이께서는 보라색문보를 한쪽으로 밀어제끼시며 창문을 여시었다.

그 순간 신선한 새벽대기가 그이의 얼굴에 스쳐왔다.

높고 파르스름한 하늘에는 조각구름 한점 없었다. 그대신 서쪽하늘 여기저기에서 비록 색이 바

신용선

래긴 하였지만 아직도 잔별들이 숨을 쉬고있었다. 한줄금의 바람도 불지 않았다. 연록색잎사귀들이 피어난 정원수들은 려명직전의 신비로운 고요속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문득 별처럼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종달새 한마리가 우짖었다. 때를 같이하여 이슬에 젖은 정원수아지와 풀덤불속에서 새벽새들이 겨금내기로 줄거이 노래를 불렀다.

새들의 우짖음은 동틀무렵의 광대무변한 공간을 한층 고요하게 만드는듯싶었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뒤집을 지고 창문가에 서계시던 수령님께서 집무탁앞에 다가와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수령님, 오늘날씨는 태평양상류에서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고 합니다.》

《알겠소.》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놓고 밖으로 향하시었다.

포석을 깬 정원길우에선 축축한 이슬냄새가 풍겼다.

길옆의 나무와 꽃들은 차츰 그 형태가 뚜렷해지고 서쪽하늘가의 별들은 줄어들고 남쪽하늘은 푸른빛의 부드러운 미광으로 변하면서 어둠을 밀어내고있었다.

그이께서 새벽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합장강어귀에 이르시였을 때는 대성산하늘끝에 연분홍색노을빛이 물들기 시작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으나 새날의 싱싱한 기운이 대기속에 빛줄기처럼 퍼졌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대지는 생동하고 향기로운 따뜻한 빛과 냄새를 내뿜고있었다.

새날의 탄생은 그야말로 우아하면서도 장엄한 기분을 자아냈다. 거기에는 이렇다할 환호성도 선물도 없었지만 빛과 색조, 냄새가 그 모든것을

대신했다.

그이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노을이 퍼져가는 먼 하늘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실눈은 그의 안광에 새날을 맞이하는, 대자연이 환기시켜주는 감회와 환상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안타까움이 더 짙게 어려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시험포전과 잇닿은 들길을 걸으시였다.

떠처럼 가느다란 들길은 이른아침의 특유한 고요,꽃피는 자연조차 녹아버릴것만 같은 고요속에 잠겨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덜 미치는 들길우에선 민들레며 길쭉구며 냉이를 비롯한 봄풀싹들이 이슬을 머금은채 해빛을 기다리며 방긋이 웃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애어린 봄풀싹들이 상할세라 발걸음을 무척 조심스럽게 옮겨놓으며 시험포전에 이르시였다.

시험포전에선 벌써 박성근이 강냉이랭상모판에 물을 주고있었다.

박성근은 10여년세월 여기 시험포전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수고가 많았다. 봄과 여름, 가을은 물론 눈오는 겨울에도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면서 수심중에 달하는 남새와 곡식들을 가꾸고 수확하는데 성실한 탐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말그대로 진짜배기실농꾼이었다.

그런 까닭에 수령님께서서는 언제 보나 말이 적고 오직 농사일밖에 모르는 박성근을 몹시 아끼고 위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허물없이 밭고랑에 마주앉아 나라의 농사일도 함께 의논하시였다.

박성근은 일에 어찌나 열중했던지 수령님께서 곁에 다가오시는줄도 느끼지 못했다.

《수고하느구만!》

이른새벽의 맑은 대기속에서 정겹게 울리는 수령님의 따뜻한 음성에 박성근은 흠칫 놀라며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러다 황황히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는데 그의 주름살깊은 얼굴에 당혹함을 금치 못하는 빛이 확연히 비졌다.

《왜 그러오? 박동무...》

수령님께서서는 약간 뜨아한 어조로 물으셨다.

《수령님, 어찌면... 어찌면...》

《?!》

《수령님께서 생신날까지 포전에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인민들이 수령님의 건강을 바라면서...》

가슴이 터져나가는듯 한 안타까움에 박성근은 뒤말을 채 잊지 못했다.

그는 금시 목구멍으로 북받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목에 유난히 두드러진 울대뼈가 오르내리면서 무엇인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반백의 머리카락과 어깨가 보일듯말듯 흔들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어깨우에 한손을 얹으며 나직한 음성으로 달래시였다.

《이러지 마오. 새벽마다 포전에 나와 남새와 밭곡식들을 가꾸는것이 나의 제일 큰 휴식이고 즐거움이라는것을 동무가 잘 알고있지 않소.》

《...》

박성근은 입을 열지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새벽과 저녁, 시간이 생기면 시험포전을 찾으신다. 그때마다 밭이랑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여 김을 매고 씨숙음도 하면서 새싹들이 어떻게 돌아나고 자라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여무는가를 지켜보곤 하시였다. 그리고 푸른 남새와 영글어가는 곡식들의 음악과 거기에 깃들여있는 여러가지 생활에 귀를 기울이며 녹녹한 흙과 낱알의 그윽한 향기에서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느끼신다는것을 박성근은 오랜 체험을 통해 깊이 깨닫고있었다.

하지만 생신날까지야 어떻게...

박성근은 숙였던 머리를 쳐들며 간절히 말씀올렸다.

《제가 어찌 수령님의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만민의 축복속에 편히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대성산너머 하늘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곳에는 지금 한창 불덩어리같은 아침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그러자 대기는 더 밝아지고 하늘은 더 푸르러지고 풀잎에 맺힌 이슬들은 구슬알처럼 반짝이였다.

수령님의 안광에도 한줄기의 해빛광선이 와닿았다.그이께서는 손채양으로 그 해빛을 가리우며 부드럽게 웃으시더니 이내 심중한 표정으로 혼자 말씀처럼 나직이 뇌이시였다.

《나는 지난밤에도 잠들지 못했소. ...》

《?!》

《금년봄 날씨가 왜 이다지도 애를 태우는지...

거의 두달동안 비 한꼬치 떨어지지 않는구만.》

《...》

박성근의 온몸은 불시에 얼어드는듯싶었다.

그는 수령님께서 올해 봄철날씨를 두고 몹시 마음을 쓰고계신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듯 밤잠까지 주무시지 못하고있는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박성근은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씀올렸다.

《수령님, 가물걱정은 너무 하지 마십시오. 관개공사도 많이 하고 곳곳에 저수지들을 건설하여놓지 않았습니까. 그전처럼 물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아니요. 아직도 우리 나라엔 밭관개를 하지 못한 밭들이 많소. 보름전에 강동쪽에 나가보았는데 나 어린 처녀들이 등짐으로 물을 길어다가

강냉이모를 키우고있었소. 험한 산비탈 다락밭으로 물지계를 지고 오르내리자니 오죽 힘들겠소. 아마 적지 않은 농장들에선 이 봄에 등점으로 물을 길어다가 강냉이모들을 키우고있을거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 강냉이모들을 이제 당장 밭에 옮겨 심어야겠는데 가물이 계속되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이의 얼굴에 지울수 없는 피로움이 뚜렷하게 자리잡았다.

박성근은 무엇이라 할 말을 고르지 못했다. 사품쳐오르는 격정에 비해 그의 언어가 너무나도 무력하였던것이다.

구름 한점없이 개인 하늘은 거울처럼 맑았다. 대기도 신선하고 대성산너머 불그레 피여오른 연자주빛노을은 해빛과 어울리면서 점점 폭넓게 머리로 번져왔다.

수령님께서 허리를 낮추 굽히시고 이젠 일사귀들이 세개씩 자라오른 강냉이모판들을 여겨보시였다. 방금전에 물을 주어 푸른 일사귀들은 한바탕 미역이라도 감고난듯이 물기에 젖어있었다.

그 물기들은 일사귀끝에서 구슬같은 물방울로 변하면서 구수한 두엄냄새가 풍기는 흙우에 떨어지곤 하였다.

수령님께서 생에 충만된 싱싱한 강냉이일사귀들을 만져보시였다. 손끝에 미치고 흐르는 생생한 촉감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진미를 알수도 체험할수도 없는 강렬한 느낌에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와 동시에 가을이 오면 지금은 이처럼 연약하고 애 어린 강냉이대마다에 팔뚝같은 이삭들이 달린다고 생각하니 자연의 신묘한 조화에 경탄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그 어떤 조화가 아니라 사계절 눈비를 맞으며 땅을 걸구고 곡식들을 키워가는 수고많은 농사꾼들의 땀과 노력의 고귀한 결실일것이다.

사색이 깊어지자 수령님의 눈앞에 강동다락밭에서 만났던, 물지계를 지고 경사급한 다락밭으로 오르던 처녀들의 모습이 겨금내기로 떠올랐다. 물이 넘쳐나서 젖은 팔소매며 바지가랭이 그리고 땀에 뜬 얼굴들, 뚝뚝에 닥친 감격에 기뻐 어쩔줄 모르던 정겹고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그려보며 입속으로 하나하나 불러보셨다.

《분조장 옥십이, 신동원 혜란이, 정희, 순녀...》

한없는 애무와 감개에 젖은 그이의 나직한 부름소리는 이어지지 못했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속눈썹이 류달리 긴, 프락포르운전수의 딸이름이 뭐라고 했던가.

여느 처녀들보다 인상은 더 깊은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속눈썹이 긴 처녀에게 그 무슨 죄를 짓는듯싶어 마음까지 무거우시였다.

그러시던 수령님의 입언저리에 부지중 엷은 웃음발이 피여났다.

《헌희라고 했지, 박헌희...》

그이께서 그 이름을 다시 입속으로 뇌이시는데

뒤에서 책임부관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수령님...》

그이께서는 강냉이모판에서 눈길을 떼며 허리를 펴시였다.

《너투사동지들이 탄생일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고동색얼굴에 땀발이 내비친 책임부관은 똑바른 자세로 정중하게 말씀올렸다.

《그렇소?!》

수령님께서 못내 반갑고 기쁜 표정을 지으며 집무실쪽으로 눈길을 옮기시였다.

어느새 해는 주작봉마루우에 올라앉았다.

사방 어데라없이 눈부신 해살로 가득찼다. 이랑을 덮은 푸른 밀밭우로 낮게 떠돌던 아침안개는 허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날씨는 여전히 맑고 화창하였다.

2

수령님께서 응접실에 들어서시자 너투사들은 어린애들처럼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이 순간 그들은 마음속으로 애써 고르고 다듬은 인사말조차 까맣게 잊은채 수령님의 손과 팔, 옷깃을 부둥켜잡으며 눈물부터 앞세웠다.

《그동안 모두 건강했소?》

정깊은 눈길로 너투사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 먼저 안부를 물으셨다.

그제서야 너투사들은 황급히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옷매무시를 바로하였다.

맨 먼저 정중히 허리굽혀 인사를 드린 사람이 김철호였다.

《수령님, 백두산시절처럼 항상 젊고 건강하시기들...》

북받쳐오르는 흥분에 김철호는 말을 채 하지 못했다. 그뒤를 이어 김명화와 최성숙이 절을 올렸다.

《어이들나오.》

그이께서는 너투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동무들은 한평생 나와 혁명을 함께 한 전우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동무들에게 절을 하고 싶소. ...》

한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 아름답고 과분한 말씀이어서 너투사들은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그이를 우러르기만 하다가 또다시 수령님품에 안기며 어깨를 떨었다.

《생일을 축하하려고 온 동무들이 이렇게 눈물만 흘리면 나는 어떻게 하오?》

그이의 음성은 약간 갈리신듯 하였다. 그리고 너투사들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만지는 손길도 가볍게 떨리시였다.

출입문가에 서있던 책임부관 리준호는 얼굴에

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너투사들을 진정시키려고 무진애를 썼다.

한동안 지나서야 너투사들은 결상에 앉았다.

수령님께서는 팔걸이의자에 앉으셨다. 그이께서는 마주앉은,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너투사들의 얼굴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건강상태며 생활형편이며 나중엔 자식들의 안부까지 구체적으로 물으시었다.

인정미 넘치고 다심하신 그이의 물으심에 너투사들은 사실그대로, 지어 속생각까지도 허물없이 대답올렸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너투사들의 대답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미소를 짓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중한 낯색을 짓기도 하시고 호탕하게 웃기도 하시던 수령님께서 문득 같았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료양소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황순희와 김옥순 동무들의 몸상태도 좋아지고있다고 하더구만.》

《수령님, 저희들이 며칠전에 병문안을 갔다왔습니다. 이젠 퍼그나 나아 래달초에는 평양으로 올라오겠다고 합니다.》

김명화가 말씀을 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셨다.

《료양소에 간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안되오. 적어서 석달이상은 치료를 받아야하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무거운 어조로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동무들은 건강을 잘 돌봐야 하오. 이것은 나의 부탁인 동시에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오. ...》

수령님께서 백발의 머리카락과 주름살 깊이 패운 너투사들의 얼굴을 눈여겨보시었다. 순간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릿해지시었다.

세월이란 참으로 무정하였다.

백두산야를 주름잡으며 왜놈들을 쳐부시던 용감무쌍하고 젊고 아름답던 녀결들의 얼굴에 언제 저렇듯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머리에는 백발이 내려앉았는가!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선 저 녀결들에게 백두산시절의 생신한 모습과 검은 머리카락을 되찾아줄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파오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오르시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랄수 없는 일이었다.

그이께서는 마음이 괴롭고 아프시어 결상에서 일어나시었다. 붉은 주단우로 천천히 거니시는 그이의 발자국소리가 너투사들의 가슴에 유난히 파고들면서 하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방안엔 고요가 흘렀다.

문득 팔걸이의자 옆차대우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수령님께서 송수화기를 집어들고 귀전에 가져가시었다.

《생신날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아! 리종옥부주석동무로구만! 어디서 전화를 하오?》

수령님께서는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빠 물으셨다.

《동평양부재공장에서 전화를 합니다. 수령님, 방금전에 강녕이발 분수식관개용 잠관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냈습니다.》

《벌써 시험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수령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이께서 리종옥이와 마주앉아 강녕이발관개문제를 의논하신것이 나흘전이었던것이다.

그날 평북도쪽에 현지지도를 나갔다가 집무실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전화로 리종옥을 부르시었다.

《수령님, 안녕하십니까?》

언제 보나 가식이 없고 고지식한 리종옥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였다.

《방금전에 전화를 했는데 벌써 왔소?》

수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아 주며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자고 부주석동무를 불렀소.》

《?!》

《금년봄같은 왕가물을 이겨내고 강녕이농사에서 변혁을 일으키자면 결정적으로 발관개를 해야 하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관문제를 풀어야 하오. ...》

《...》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손금보듯 꿰뚫고 있는 리종옥은 지금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있었다. 더우기 수령님께서 오래전부터 강녕이발관개문제를 두고 마음을 몹시 쓰고계신다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리종옥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협의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고 그 예비를 찾기 위해 머리를 쓰며 고심해왔건만 좀처럼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가슴을 태우고있었다.

발관개에 필요한 관문제를 해결하자면 수많은 강제가 있어야 하는데 중요대상건설이 많은 조건에서 강제사정은 매우 긴장하였다.

《부주석동무, 발관개에 필요한 관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았소!》

《예? 방도를 찾으셨단 말입니까?!》

리종옥은 머리를 번쩍 쳐들며 되받아물었다.

《그렇소. 방도를 찾았소.》

《?!》

《내 오늘 룡천군에 나갔다가 길가에 서있는 세멘트전주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되는것이 있어 차를 세우고 한동안 살펴보았소. 세멘트전주대는속이 비어있었소. 발관개용잠관도 세멘트전주대처럼 만들면 되지 않겠소. 부주석동무생각은 어떻소?》

《!》

가슴을 치는 놀라움과 기쁨에 리종옥은 불현듯 몸이 굳어지고말았다.

《내가 여러모로 타산해보았는데 주철관대신 잠관을 리용하면 원가가 적게 들뿐만아니라 생산공정도 간단하고 특히는 땅속에 오래 묻어두어도 녹이 쓰는 법이 없어 실용적가치가 매우 크오.》

《수령님, 정말 멋진 착상입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만이 찾으실수 있는 훌륭한 새로운 착상입니다.》

리종옥은 물기가 고여올라 뿌릿하게 흐려진 눈길을 들어 그이를 우러르며 진정으로 말씀올렸다.

《이러질 마오. 인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써 궁리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수 있는 무슨 수가 나오기 마련이요. ... 나는 이런 신념과 배심으로 사색을 하고 방도를 찾기 위해 노력할 따름이요.》

《...》

리종옥은 고개를 다시 떨구었다. 가슴속에선 불물같은 걱정이 세차게 끓어번졌다. 건국 초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세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해오지만 언제한번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지 못했다는 송구스럽과 죄책감이 새삼스레 가슴을 쳐서 쪼셔들고 있었다.

몇순간 지난 후에야 리종옥은 힘겹게 고개를 들고 그러면서도 말마디에 각별한 힘을 주면서 말씀드렸다.

《수령님, 잠관생산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부주석동무가?!...》

《예, 저한테 맡겨주십시오.》그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힘있고 박력있게 울리었다.

《...》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리종옥을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럼 수고를 해주오. 그러나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절대로 무리하지마시오.》

그렇게 떠나보낸것이 나흘전인데 벌써 시험용잠관을 생산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던것이다. 확실히 그는 경제실무에 밝고 조직사업과 전개력이 강한 일군이였다. 그런 까닭에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문제를 놓고 언제나 그와 진지하게 토론하였고 그 관철을 위한 무겁고도 중요한 과업을 그에게 주곤 하시었다.

그때마다 리종옥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성으로 그 과업들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지식한 리종옥의 매력이기도 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입가에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물으시었다.

《시험용잠관을 얼마나 생산했소?》

《10m 짜리 잠관 다섯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50m 를 생산한셈이구만. ... 수고했소. 정말수고가 많았소.》 하고 거둬 치하시며 그이께서 여전히 기쁨에 젖은 어조로 물으시었다.

《강도시험은 언제쯤 할것 같소?》

《자연양생과 인공양생을 배합하면 일주일후에는 강도시험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도 그때 생산현장에 나가보겠소.》

《수령님, 고맙습니다.》

리종옥은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장마철을 예견하여 무엇보다먼저 생산현장지붕공사를 해야겠소.》

수령님께서서는 나직하게 당부하시었다.

《수령님, 지붕공사는 지금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습니다. 오늘이면 끝낼수 있습니다. 지붕공사와 함께 설비보강과 자재보장체계도 동시에 내밀고있습니다. 강도시험이 끝나면 곧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좋소! 언제 보나 부주석동무한테는 일감을 맡길 것이 있다니까! 하—하—》

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녀투사들도 얼굴마다에 밝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인지 응접실은 온통 웃음으로 가득찬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는 부탁을 재삼 하시고는 송수화기를 놓으시었다. 그다음 녀투사들쪽으로 눈길을 옮기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미안하오. 손님들을 앉혀놓고 전화를 너무 길게 했구만.》

《아닙니다. 수령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하시는걸 보니 저희들의 마음도 더없이 기쁩니다.》 하고 김명화가 말씀드렸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 허—아닌게아니라 정말 기쁘오. 리종옥부주석이 내가 제일 고심하던 발판개문제를 풀어주었던 말이요. ...》

시간이 흐를수록 방안엔 뜨거운 정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더욱 짙어갔다.

아침해살이 창문을 꿰뚫고 들어와 방안을 밝게 감싸주었다.

책임부관 리준호는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침식사시간이 퍼그나 지났던것이다.

안타까운 눈길로 녀투사들의 얼굴을 지켜보았건만 그 누구도 감촉하지 못했다.

책임부관의 가슴은 바질바질 끓었다. 녀투사들이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선 수령님께 점심식사도 올리지 못할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큰 용단을 내린 책임부관은 김명화한테로 다가가 그의 귀전에 대고 속삭이였다.

《어머님, 아침식사시간이 펴 지났습니다.》

《이 정신 보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금시 불에 덴 사람처럼 김명화는 와들쭉 놀라

며 성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 용서하십시오.》

《용서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그이의 음성은 가볍게 울렸으나 눈길은 심중한 빛을 담고 김명화를 쳐다보고계시었다.

《아침 8시가 지났습니다. 생신날을 맞으시는 수령님께서 아직까지 진지상을 드시지 않고...》

김명화는 뒤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는 너투사들도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허— 이야기바람에 아침밥을 굶을번 했구만.》

그이께서는 큰소리로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가서 아침식사나 함께 나누시다.》

《...》

너투사들은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자— 어서.》

그이께서는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있는 너투사들을 둘러보며 재촉하시었다.

너투사들은 조용히 결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머리와 옷매무시를 바로하며 수령님을 따라 식당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동근 식탁우에는 수령님과 너투사들의 소박한 아침식사가 차려져있었다. 식탁우에 오른것은 시금치와 도라지무침, 부루와 찹쌀...

너투사들은 식탁앞에서 굳어지며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였다. 그것은 생신날을 맞으시는 수령님의 아침진지상이 너무나도 소박하고 검소하였기때문이었다.

《어째서 서만 있소. 빨리 앉아 식사를 하가요.》

수령님께서 밝게 웃으며 너투사들의 손을 잡아 식탁에 앉히시었다.

《수령님, 어쩐...》

가슴을 치는 뜨거운것으로 하여 김명화는 입을 열 개물었다.

《저희들도 수령님께서 어느 추석때에는 묘비도 없이 산에 묻고온 빨찌산전우들이 생각나서 통강냉이죽까지 잡수시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생신날이 아닙니까? 철없는 애들에게도 닭을 잡고 떡을 빻어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수령님께서...》

김철호가 뒤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있었다.

《애들한테는 생일상을 차려주어야 하오. ...》 하시며 한동안 식탁을 지켜보던 수령님께서 심중한 낯색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백두산에서 싸울 때부터 나의 제일 큰 소원은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살게 하는것이였소.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소원을 풀지 못했소. ...》

수령님의 안광에 이름할수 없는 그들이 질게 덮이었다. 너투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고개를 수그렸다.

수령님께서 식탁에서 여전히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일하는 동무들이 자꾸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하는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막았소. 그대신 시험포전에서 키운 낱알과 남새로 음식과 반찬을 만들라고 당부하였소. 별로 차린건 없지만 많이 드오.》 하시며 옆에 앉은 김철호의 손에 수저를 쥐여주셨다.

가슴속 깊은데서 솟구치는 뜨거운 격정에 너투사들의 두눈에선 어떻게도 형언할수 없는 빛이 물기와 함께 번쩍거렸다.

《자— 이제 빨리 식사들을 하가요.》

수령님께서 가볍게 재촉하시고는 책임부관을 불러 엇그제 산원에 입원한 풍산녀인의 건강상태와 기상수문국에 오늘날씨를 다시 알아보라고 이르시었다.

그다음 손가락으로 밥을 뜨며 소리없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한없이 승엄하고 뜨거운 마음이 어리신 미소를 우러르며 너투사들도 천천히 수저를 놀렸다.

식탁에는 한마디 말도 오고가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마디의 말을 대신하며 수만가지의 목메이는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수령과 전사간에 맺어지고 맥맥히 굽이치는 뜨거운 정과 의리, 리념과 숭고한 지향을 속속들이 더듬게 하는 그런 양양된 상념의 순간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무렵에 책임부관이 수령님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수령님, 평양산원에 입원한 풍산군아주머니가 오늘 새벽 2시에 삼태자를 낳았답니다.》

《세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요?!》

《예, 세 아이가 모두 총각이랍니다.》

《총각삼태자라... 멋있구만. ... 멋있어. ... 하— 하.》

수령님께서 방안이 쩡— 울리도록 호탕하게 웃으시다가 문득 웃음을 거두시고 정색한 어조로 물으셨다.

《산모와 애기들의 몸상태는 어떻다고 하오?》

《산모는 건강하고 애기들의 상태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

뜻밖의 기쁨에 그이께서는 결상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리고는 너투사들한테로 걸어오시며 흥분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량강도 풍산군녀성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산원에 날아와 세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요. 그것도 총각 세쌍둥이를!...》

어쩐... 너투사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오르고 목이 꽉 잠겨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했다.

《우리가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일떠세우자고 백두산 설한퐁속에서 굶주리고 피흘리며 지어 목숨까지 내대고 싸웠더랬지. ...》

처음과는 달리 그이의 음성은 낮고 조용하였다.

그 말씀 마디마디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성스러운 력사와 고결한 성품이 거창하게 울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뒤집을 지고 창문가로 다가가시였다.

이젠 태양이 퍼그나 높이 떠올라 정원의 나무 잎사귀들과 잔디, 진달래와 살구꽃들이 불길에 휩싸인듯 타번지고있었다.

해빛은 함장강물결우에도 낮추 비쳐 온 강줄기가 살아움직이는것 같았다.

하늘가에선 봄을 기뻐하는 새들의 지저귀이 그 칠줄 몰랐다. 창밖의 모든것, 나무잎사귀며 꽃송이며 강물이 우줄우줄 춤추고 사람마저 대지의 푸른 한끝으로 손저어 부르는듯싶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매일 아침 여기 창문가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것을 보고있지만 그때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새 세계가 탄생하는것만 같아 마냥 가슴이 부풀어오르시였다.

산원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이 아침엔 더욱 무량한 감개에 젖어들게 하였다.

그이께서는 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누구에게라없이 낮으나 웅글은, 그래서 더욱 절절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요. 더우기 세쌍둥이가 태어난것은 나라의 큰 경사요! 풍산녀성은 오늘 아침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소.》 하시고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던 그이께서 고개를 돌리며 책임부관에게 물으셨다.

《기상수문국에 날씨를 알아봤소?》

《예, 남동풍이 3m 정도 불다가 점심무렵부터 바람방향이 바뀌면서 북서풍이 3m 정도 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는 ...》

《남동풍이 북서풍과 바뀐다.》 하고 혼자말씀처럼 뇌이시던 그이께서 성급하게 물으셨다.

《비가 올 징조는 없소?》

《...》

책임부관은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수령님의 얼굴색이 갑자기 어두워지셨다.

너투사들은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호흡을 멈추었다.

웬일일가?! 방금전까지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짓고 크나큰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안색이 어찌하여 저렇듯 어둡고 무거우실가? 영문을 알수 없는 너투사들의 가슴은 당장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창문가에 그냥 서계시던 그이께서 식탁에 다시 앉으며 말씀을 건네시였다.

《동무들, 내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

그 음성이 너무도 절절하게 울려 너투사들은 저르기 긴장해졌다. 그다음엔 이제 곧 수령님으로부터 매우 비상하고 중요한 과업을 받아안게 된다는 엄숙한 느낌에 마른침을 꿀꺽 삼키였다.

《왜 대답들이 없소?》

《수령님,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올리는 김철호의 목소리도 한껏 긴장하여 가늘게 떨렸다.

《동무들이 산원에 찾아가서 세쌍둥이들을 축하해주오. 그리고 세쌍둥이를 낳은 풍산녀성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오. ...》

너투사들은 소리없는 웃음을 지었다. 하면서도 속눈썹마다엔 후더운 눈물이 맺혔다.

《수령님, 우리들은 이제 곧 산원으로 떠나겠습니다.》

가슴속에서 용암마냥 솟구치는 감정을 겨우 녹잡히며 최성숙이 말씀올렸다.

《그렇게 해주오. 우리 항일너투사들이 찾아가면 산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소. 축복의 의미도 더 깊어질거요.》

수령님께서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까부터 너투사들의 눈길을 자주 끌던 열탁우에 놓여있는 하얀 곱돌단지를 최성숙의 손에 안겨주셨다.

《이걸 가지고 가오.》

《수령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성숙이 뜨아한 얼굴빛으로 물었다.

《귀한 약재로 만든 목이요.》

《예?!》

약속이나 한듯 너투사들의 눈이 일시에 휘둥그래졌다.

《세쌍둥이를 임신하고 또 낳느라고 풍산녀성이 오죽 고생이 많았겠소? 아마 온몸의 기력도 깡그리 빠졌을거요.》

물론 이제 당중앙위원회 김정일동지가 세쌍둥이들한테 행복의 호신부인 은장도와 그리구 부모들에게도 여러가지 보약과 선물들을 보내줄거요.

그렇다고 로투사할머니들이 어떻게 빈손으로 산모와 아기들을 찾아가겠소?》

《수령님, 저희들이 산모와 아기들에게 줄음식과 기념품들을 준비하겠으니 이것만은 수령님께서...》 최성숙은 말을 다하지 못했다.

《나야 건강한 몸이 아니요. 이건 산모들에게 필요한거요. 어서 그렇게 해주오.》

수령님께서서는 절절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너투사들의 잔등을 가볍게 떠미시였다.

《!》

심장이 뒤편이느것 같은 충격에 너투사들은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3

너투사들을 태운 푸른색승용차가 저 멀리 큰길

쪽으로 사라진지도 이속했건만 수령님께서서는 한 관앞마당에 굳어진듯 서계셨다.

그이의 눈앞에는 눈물을 삼키며 손을 흔들던 옛전우들의 모습이 삼삼히 어려왔다. 매번 그러했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그들과 헤어지는것이 못내 서운하시였다.

생각갈아서는 저녁까지 함께 휴식하면서 가슴 속에 쌓인 정과 회포를 나누고싶었지만 아침식사를 끝내자 곧 떠나보낸것이, 게다가 변변치 못한 식찬으로 아침끼니를 에우게 한것이 마음에 걸리시였다.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것처럼 고생이 많고 피눈물도 많이 흘린 전우들을 그렇게밖에는 대접 못하고 그렇게 서둘러 떠나보낸것이 과연 옳은 처사이고 도리일까?)

그이께서는 푸릿한 허공중에 담배연기를 날리며 새벽에 산책하던 정원길을 다시 걸으시였다.

어찌나 깊은 생각속에 파묻혀 걸으시는지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그이의 마음도 그만큼 무거워지는듯싶었다.

그렇게 걸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만첩으로 활짝 피어난 진달래꽃등굴앞에서 고개를 흔들며 입가에 알릴듯말듯 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것은 너투사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기쁨에 넘친 풍산녀인의 행복한 모습이 떠올린 미소였다.

푸른 하늘에서 해살이 쏟아져내렸다. 다양한 해빛은 나무잎사귀와 강물우에서 줄무늬를 짜며 뛰놀았다. 대기는 파뜻해지고 봄물오른 나무웃초리들은 미풍에 흔들리고 저만치 풀송구리속에선 까투리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를 둘러보나 약동하는 새봄의 맥박이 금선을 뒹기듯 고요히, 은근하면서도 거창하게 울리고있었다.

자연의 신비로운 틀조와 리치에 그윽한 미소를 지으시던 수령님께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가 먼곳을 바라보셨다. 순간 그이의 안광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름 한점 없는 날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불쑥 솟구쳐올랐던것이다. 동시에 강동다락발 처녀분조원들의 모습이 되새겨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오시였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지는 바람이 불어왔다. 순간 그이께서는 남동풍이 북서풍으로 바뀐다는 기상수문국의 보고를 다시금 되새겨보시며 하늘가 여기저기를 살피보셨다. 아직은 별다른 기색이 없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구름도 한점 없었다. 바람은 별로 세게 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선 류다른 감촉이 느껴졌다. 가슴을 치는 예감에 그이께서는 한동안 하늘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다가 그 누군가를 찾으시듯 고개를 돌렸다.

몇발자국 뒤에 서있던 책임부관 리준호가 급히 그이앞으로 다가왔다.

《책임부관동무, 이제 곧 경공업위원회에 가서 농장원들에게 공급할 비옷과 사출장화생산정형을 알아보시오. 오늘이 쉬는날이여서 일꾼들이 없을 수도 있소. 그러면 그냥 돌아오시오. 혹시 일꾼들을 만나게 되면 돌아올 때 생산된 비옷과 사출장화를 몇켤레 가지고 오시오.》

《알겠습니다. 수령님...》

책임부관은 움켜쥔 주먹을 허리아래에 꼭 붙이며 힘찬 대답을 올리고는 승용차쪽으로 뛰어갔다.

어느덧 승용차는 빠른속도로 정원앞길을 빠져나갔다.

눈길로 승용차를 바래준 수령님께서서는 시험포전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시험포전에선 박성근이 시금치발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는 새벽보다 더 크게 놀라며 움쭉 허리를 폈다.

《수령님, 어떻게 또 포전에 나오십니까?》

박성근은 말을 제대로 번지지 못했다.

《나는 포전에 나오는것이 제일 좋구만. ... 씨앗이 움트고 곡식들이 자라는것을 보면 머리가 거뜰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일욕심도 더 생기고 밥맛도 더있소. ... 아마 그래서 농사는 <천하지대본> 이라고 하는것 같소. 이 말속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일이 첫째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가지는 농사일에 천만가지 리치가 다 들어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오.》 하고 그이께서는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박동무, 비가 올것 같지 않소?》

박성근은 대답을 못 드렸다. 그대신 가슴이 숨가빠 달아오르고 이마에선 마음의 열기가 내뿜치듯 땀이 솟았다. 그는 흐려지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저 하늘이 저주롭기 그지없었다. 너무나도 안타까와서 어린애들처럼 울음을 터칠것만 같았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심정을 녹차하고 위로하듯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탁하셨다.

《비가 올것 같은데... 어쨌든 박동무, 호미를 좀 주오.》

《호미를 말입니까?!》

박성근은 흠칫 놀라며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안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호미를 찾으십니까?》

《허— 그러지 말고 좀 주오.》

《...》

너무나도 간곡한 그이의 말썬에 박성근은 더는 어찌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정중히 올렸다.

호미를 받아쥔 수령님께서서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파보셨다.

한뼘가량 파들어가도 물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흙먼지가 날리는 메마른 땅을 파헤치는 수령님의 상기된 얼굴에 그 뜻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그들이 비껴있었다.

그렇게 몇분동안 땅을 파보시던 그이께서는
《비가 100mm 이상 내려야 땅을 적실것 같구만.
...》 하시며 눈길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었다.

순간 수령님의 안광이 불현듯 밝아지다가 문득
굳어지시었다. 그것은 너무 뜻밖이고 놀라운, 그
리고 엄청나게 큰 기쁨이 겹쳐진 얼굴빛이었다.

《박동무, 저기 모란봉쪽 하늘을 좀 보오!》

수령님께서서는 흥분을 금치 못하며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시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방금전까지 맑던 하늘
이 급작스레...》

박성근의 입에서 탄성도 신음도 아닌, 어떻게
고 딱 짝어 말할수 없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분명 비구름이지?!...》

그이께서는 검은구름이 밀려오는 하늘에서 눈
길을 떼지 못하며 다그쳐 물으셨다.

《예, 비구름입니다!》

박성근은 하도 놀라와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
했다.

어디에 숨어있었던지 번두리가 너슬너슬 찢긴
시커먼 구름덩이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도저히 설
명할길 없는 특이한 기세로 곧장 머리위로 달음
쳐왔다.

청명하던 대기는 일시에 재빛으로 변하고 멀고
가까운 하늘에서 푸른 섬광과 함께 성급한 우뢰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먹장구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 누기찬 바
람은 공중에 먼지타래를 말아올리고 비냄새와 메
마른 땅냄새를 풍겼다.

어느덧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술렁거리는
비소리는 무엇인가 예고하듯이 신비스럽게 울
려왔다. 먼곳에서는 그 소리가 폭넓게 퍼져서 마
치 마가울 새초밭을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커졌으
나 여기 시험포전 가까이에 떨어지는 비방울은
소리없이 흙먼지만 풀썩—풀썩 날렸다.

《비가 오는구만, 비가... 하—하—》

양손을 허리에 얹으신 수령님께서 상반신을 한
껏 뒤로 젖히고 큰소리로 웃으셨다. 호탕한 그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우뢰소리가 점점 가까와오
고 하늘에선 자주 섬광이 번쩍거렸다.

처음 얼마동안 성글고 대수롭지 않게 내리던
비가 갑자기 대기속을 누비며 쏟아졌다.

비방울은 가물에 마를대로 마른 땅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시험포전의 시금치며 밀보리며 팽상모
판강냉이들은 비물에 시원히 몸을 적시며 후둑—
후둑 웃음을 터치고 환호성을 올리는것 같았다.

《수령님, 빨리 돌아가십시오. 찬비를 맞으시면
안됩니다.》

박성근은 당황하여 어쩔줄 모르면서 간절한 청
을 올렸다.

《걱정마오. ... 이제야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주
는구만. ... 이젠 약비요! 약비! 하—하—》

그이께서는 처음보다 더 큰 웃음을 터치며 대
줄기같은 비발을 그냥 맞으시었다.

박성근은 숨길이 격— 막히는것 같았다. 별안
간 불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에서 젖은 수건
이 맥없이 떨어졌다.

바로 그때 책임부관이 비웃과 사출장화, 우산
을 부둥켜안고 뛰어왔다.

비발속을 숨가빠 달려오는 책임부관을 띄여보
신 그이께서 몇발자국 마주 걸어가시며 반겨맞아
주시었다.

《수고했소. ...》

《!》

책임부관은 선자리에서 굳어지며 까딱 움직이
지 못했다. 온몸에 비를 맞고계시는 수령님을 우
러르는 그의 심장은 금시 밖으로 튀어나올듯 세
차게 고동쳤다. 그리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
던 책임부관은 황급히 우산을 펼쳐 그이의 머리
위에 씌워드렸다.

《내가 이 비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줄 아
오? 그런데 우산을 써... 어서 거두오.》

수령님께서서는 가볍게 질책하며 손을 들어 머리
위의 우산을 밀어제끼시었다.

《수령님, 우산을 쓰셔야 합니다.》

우산대를 더 힘껏 움켜잡으며 책임부관은 안타
까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쑼올렸다.

《그만두라는데...》

그이께서는 다시금 우산을 거절하며 말머리를
돌리셨다.

《비웃과 사출장화생산정형을 알아봤소?》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어제까지 전국의 농장원들에게 공급할 비웃
과 사출장화생산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생산한 비웃과 사출장화들입니
다.》

책임부관은 가슴에 안고있던 비웃과 사출장화
를 그이께 보여드렸다.

《경공업위원회동무들이 큰일을 했구만, 어디
보지요.》

그이께서는 비웃 한벌을 집어들고 펼쳐보셨다.

파란 색깔의 비닐비웃은 첫눈에도 생산자들이
정성과 품을 들였다는것이 알렸다. 색깔도 산뜻
하고 재질도 탄탄했다.

비웃 기장이며 팔소매며 고깔모자며 나중에 단
추구멍까지 세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 이번에는
재빛비웃을 집어들며 뒤에 서있는 박성근이한
테로 고개를 돌리시었다.

《박동무, 이 비웃을 한번 입어보오.》 하시며 손
수 어깨우에 비웃을 씌워주셨다.

순간 박성근은 가슴에 혁— 하고 바람을 삼켰
다. 때를 같이하여 두눈에선 불물같은것이 가득
고여올라 눈시울을 따갑게 지지였다.

박성근은 그 눈을 습벽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
다.

《수령님께선 찬비에 옷이 다 젖으셨는데…》
《뭘 그러오. 이쯤 젖은걸 가지구… 자 나도 비
옷을 쓰겠으니 어서 입어보오.》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웃으며 파란 색깔의 비옷
을 어깨에 걸치시었다. 그 비옷은 그이의 몸에
맞지 않았고 색깔도 어울리지 않았다.

《수령님, 그 비옷은 처녀들의 비옷입니다.》
책임부관이 바빠 박성근의 것과 똑같은 재빛색
갈의 비옷을 그이께 올렸다.

《알고있소.》
그이께서는 재빛비옷을 사양하며 몸에 걸친 파
란 색깔의 비옷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보시었다.

가늘게 쪼프린 그이의 눈가에 내심에서 뚫어오
르는 크나큰 기쁨과 함께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그제서야 책임부관은 자기가 올린 재빛비옷을
사양하신 그이의 깊은 심증이 짐작되었다.

분명 그이께서 강동다락발 처녀분조원들을 눈
앞에 그리며 파란 색깔의 비옷을 걸치고 그렇듯
유심히 살펴보신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곱
이 젖어올랐다.

《어떻소, 박동무, 비옷이 몸에 맞소?》
소연한 비발속에서 수령님의 다심하신 음성이
울렸다.

《꼭 맞습니다.》
박성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꼭 맞는다니 나도 기쁘구만. 그런데 발일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겠소?》

《기장이 맞춤하고 품도 넓어서 아무런 불편도
없겠습니다. 이 비옷을 입고 하루종일 비를 맞으
며 일해도 전혀 몸이 젖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시름 덜겠소.》
만족하신 표정으로 뽀얀 비안개속에 잠겨 푸르
고 싱싱한 밀밭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처녀들의 비옷이 파란색과 빨간색밖에 없소?》
《…》

책임부관은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자 수
령님께서는 못내 서운하신 낯색을 지으며 말씀
이으셨다.

《강동다락발 처녀분조장한테는 연분홍색같이
어울리던데…》

해빛과 바람에 감실감실하게 탄 가름한 얼굴을
연분홍색꽃수건으로 꼭 감싸고 강냉이모판에 물
을 주던 처녀분조장의 귀염성스러운 모습이 가슴
에 깊이 파고들어 그이께서는 뒤말을 잊지 못하
시었다.

《!》
책임부관은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속 밀창에서
이름할수 없는것이 뚫어올랐다. 어쩌면 자신이
수령님의 깊고 다심하신 뜻을 잘 받들지 못한듯
싶어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수령님, 이제 곧 경공업위원회에 연분홍색갈

의 비옷과 사출장화를 만들라고 부탁하겠습니
다.》

《그럴 시간이 없소. 래년부터는 파란색과 빨간
색뿐만아니라 연분홍색과 미색 그리고 보라색을
비롯한 여러가지 색깔의 비옷과 장화를 만들어
농장원들에게 공급해야겠소.》

수령님께서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수
건으로 닦으시며 다시 물으셨다.

《비옷과 사출장화를 얼마나 가지고 왔소?》

《수령님께 보여드리자고 비옷15벌과 사출장화
15켤레를 응접실에 진열해놓았습니다.》

《그 비옷과 장화들을 내 차에 싣고 여기로 오
시오.》

《?!》
책임부관의 두눈은 불시에 커졌다. 뇌리를 치
는 예감에 등골에서 식은땀이 쭉 내뿜치고 숨이
가빴다. 비옷을 입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진정하
지 못하고있던 박성근이도 흠칠 놀랐다.

《아마 지금 다락발 처녀분조원들은 너무 좋아
환성을 지르면서 밭에 뛰어나와 비를 맞을거요.》

《수령님,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것도 생
신날에 농장밭을 찾아가신단 말입니까?》

심장을 사정없이 비틀어대는듯 한 안타까움에
박성근은 말을 제대로 번지지 못했다. 그뒤를 이
어 책임부관이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수령님, 제가 다락발 처녀분조원들을 찾아가
서 비옷과 장화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가야 하오. 그러면 다락발 처녀
들이 기뻐할거요. 그것이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이
고 락이거던. …》

수령님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재차 나직이
이르시었다.

《오늘 저녁에 광장에서 경축야회를 조직하는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하시오.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수야 없
지.》

《수령님, 저녁이면 비가 몇을수 있지 않습니
까?》

책임부관은 말마디를 무척 조심하며 힘겹게 말
씀올렸다. 《무슨 소리? 가물든 땅을 흠뻑 적시자
면 래일 아침까지는 비가 와야 하오. 하늘이 그
렇게 해줄거요. 허—허—》

수령님께서는 검은 구름장들이 자꾸만 덧쌓이
는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청청
한 웃음소리는 비발이 가득 드리운 하늘 먼곳으
로 메아리쳐갔다.

비물에 젖은,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으시는 그
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책임부관 리준호의 머리속
에선 언젠가 명망높은 해외교포 신자가 환회에
넘쳐 웨치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어린시
절부터 80고령의 오늘까지 <하느님>께 운명을 맡
기고 온넛을 짱그리 바쳐왔건만 나는 아직 <하느
님>을 한번도 보지 못했소. 하지만 오늘 나는 <하
느님>을 만나뵈왔소.

그처럼 위대한 사상과 고결한 성품, 뛰어난 지략과 크나큰 덕망으로 만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진짜 〈하느님〉의 계시와 은총을 받아안았소!...》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빨리 갔다오. ... 점심시간에 외국손님들이 찾아오기로 약속했으니 그전에 다녀와야 하오. 그러구 동평양부재공장에 나가있는 리종옥부주석에게 전화를 하오. 내가 일감 맡길 몫이 있는 부주석을 저녁식사에 초청한다구. ...》

《!》

인정깊고 덕스러운 그이의 존안을 우러르며 책임부관 리준호는 목구멍으로 불덩어리같은것을 꿀꺽 삼키었다. 그리고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집 무실쪽으로 달려갔다.

비는 줄기차게 쏟아지었다. 대지는 물기를 빨

아들이면서 움쉴움쉴 부풀어올랐다.

×

산원에서 세쌍둥이와 산모를 만나보고 돌아오는 너투사들이 탄 승용차 시창에도 비발이 휘뿌려졌다.

야단스럽게 쏟아지는 봄비를 지켜보는 너투사들의 마음은 꼭 송곳방석에 앉은듯 안절부절하였다.

어쩐지 수령님께서 찬비를 그대로 맞고 계실것만 같은 예감에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수령님을 잘 알고있는 그들도 이 시각 그이께서 찬비를 맞으시며 먼 강동땅 다락밭 포전길을 걸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혁명설화

국기와 국장을 볼 때마다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인 람홍색공화국기가 창공높이 펄펄 휘날린다. 태양의 빛발아래 우리 공화국의 국장이 더욱 빛난다.

은 세상이 찬탄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내 조국의 국기와 국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지던 반세기전의 나날들을 다시금 감회깊이 더듬어보게 된다.

주체37(1948)년 봄 어느날이었다. 한 일군을 만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국기와 국장 제정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의 국기와 국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구상과 방침이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공화국국기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기백을 상징하는 표시와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반드시 넣을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한 별을 국기뿐 아니라 국장에도 그려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국기와 국장도안을 심의하는 날 사람들은 국기와 국장도안을 보며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처음 만든 국장도안에는 용광로가 그려져있었다.

그러했던 국장에 오늘과 같이 수력발전소가 그려져 사람들에게 열정과 희망,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는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국기와 국장도안을 마지막으로 심의하게 되는

전날밤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음날 심의하게 될 국기와 국장도안을 펴놓고서 자정이 넘도록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부강한 새 조선 건설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건강이 넘려되어 잠시라도 쉬실것을 거듭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곧 우리가 세울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을 결정지어야 하겠는데 국장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며 도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수령님의 곁에 앉으시었다. 용광로대신에 전기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넣는것이 어떤가라고 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시었다. 그런데 전기화를 어떤 형식으로 반영할것인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발전소를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시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옹소, 발전소, 우리 나라 수풍발전소를 넣는것이 좋겠소라고 하시면서 국장도안에 수력발전소와 송전탑을 힘있게 그려넣으시었다.

이렇게 두분의 백두산장군들께서 깊은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여 완성하신 국기와 국장도안은 심의자들의 전적인 지지찬동을 받게 되었다.

며칠후 완성된 국기와 국장도안을 받아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도안을 세세히 살펴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참 잘되었다고 감개무량한 어조로 거듭 거듭 말씀하시었다.

오늘도 우리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로고와 업적을 길이 전하며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스승의 한생

김일규

하루 스물네시간
일년 삼백륙십오일
조국을 위한 것처럼 바쁘신 헌신의 나날에
인류를 위한 것처럼 분망하신 한생에
수령님은 언제나 책을 읽으시었다

대동강물소리도 숨을 죽이던
잔디푸른 고향의 술술에서
해지는줄 모르고 책을 읽으시던
그 어린시절처럼

어머님
치마폭에 걱정이를 감싸주시고
소리없이 꺾으시여 불을 지펴주시던
그밤의 등잔불아래서처럼
길림의 정향나무아래서처럼
별빛도 조울던 화성의숙의 그 새벽처럼

한생의 그 어느 한시도
지어 서리찬 총검이 생을 노리는 감옥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었다
피어린 결전이 때없이 이어지던
눈보라 사나운 행군길에서도
수령님 군용가방속엔 승리의 작전도와 함께
소설책도 들어있었다

준엄한 전선의 참호속에서
전사들과 읽은책 소감도 나누시고
공장과 농어촌으로
눈비오는 깊은 밤 이른새벽
가고가시는 그 길에서도
수령님은 언제나
생활의 주인공들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햇병아리 모이 쫓는 산골집뜨락에서

가사

장군님 타신 렬차 평양으로 달리는데
전사는 따라서며 떨어질줄 모르네
다시 한번 전사의 그 이름 부르시듯
장군님 뜨겁게 기적소리 올리셨네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면 못 떨어저
혈연의 정을 담아 올리신 기적소리

알기 쉽게 사양법도 일깨워주실 땐
그처럼 가끔학에 밝으신분 없고
고적에 남아있는 단청 하나 보시고도
그 시기와 역사를 이야기하실 땐
민족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그이품에서 숨쉬는
수령님은 비범한 학자이시었다

한생에 그처럼 위대한 저서들과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많이도 쓰신
가장 저명한 작가이시면서도
가장 평범한 작가가 쓴 처녀작도
금보다 더 값있는 소설이라고
다음부를 또 기다리겠다고 하시던
아버이수령님

가장 위대한 인간이시였지만
가장 소박한 인민의 숨결을 다 호흡하신분
가장 탁월한 수령이시였지만
가장 겸허한 독자가 되신분
그이의 시간에 세계가 따라서고
그이의 사색에 미래가 마중오는
그 고귀한 순간순간에
책은 언제나 수령님의 길동무였다

아, 고귀한 인생의 진리
위대한 혁명의 철리로
조국과 인류앞에
사랑과 인정의 세계
지성과 문명의 세계를 펼쳐주신
위대한 스승의 한생이었던만

우리 수령님은
책을 보시며
자신의 한생을 수업하시었다

못잊을 기적소리

최향

생사를 함께 하는 귀중한 전우에게
주고싶은 천만사랑 다 합친것이였네

자강땅에 울려퍼진 사랑의 기적소리
못 잊을 동지애의 메아리로 올리네
충신의 한생을 값높이 빛내주신
위대한 아버이의 그 사랑을 노래하네

《나의 조국》과 함께 영생하는 시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입니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입니다. 혁명가의 삶은 수령과 순간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아마 서정시 《나의 조국》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김일성상》 제관인이며 조국통일상수상자 오늘은 또 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는 시인 김상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오늘 무한한 감개에 잠겨 그가 쓴 서정시 《나의 조국》을 읽어보느라니 그의 한생을 꽃피워준 위인들의 사랑의 력사가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라
...

시인 김상오는 주체6(1917)년 7월 5일 황해남도 해주시 구계동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수리조합에서 하급사무원으로 일하였는데 반일감정과 민족적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이런 가정적환경에서 자라난 김상오는 해주고 보재학당시 독서회에 망라되어 맑스주의사상과 리론을 탐독하였고 주체21(1932)년 4월부터는 《해주반제청년동맹》으로 발전한 독서회조직에서 발간한 《불꽃》신문의 원고집필을 전적으로 맡아 하게 되었다.

일제경찰의 감시와 간섭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하여 공부를 계속할수 없게 된 그는 일자리조차 얻을수가 없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일본에서 김상오는 신문배달, 우유배달, 청소부, 필사 등 각종 막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며 고학을 해보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호구지책도 어려웠다.

그는 3년만에 다시 일본땅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정작 조국에 와보니 집안형편은 더 어려웠고 그 혼자만의 끼니걱정이 아니라 온 가족의 생활고를 헤쳐나가야 하였다.

다시 중국 동북지방으로 들어간 그는 서정시 《작풍속에서》를 썼다.

하지만 동북에서의 생활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였다.

그는 울분을 안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구월산과 벽성지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공작원들이 조국광복회 조직을 못하고 활동하고있었다.

김상오가 고향에 돌아와 공작원과 만나게 된것은 일생에서의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는 공작원의 지도를 받으며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꾸리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이 과정에 혁명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던중에 주체34(1945)년 8월 15일 김상오는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그날로 공산당 도당결성준비에 나섰고 선전부에서 도당기관지 《자유황해》주필로 사업하게 되었다.

작풍속에서 몸부림치며 떨던 나무는 소생의 계절을 맞아 푸른 잎새를 싱싱히 펼치기 시작했다.

오, 조국이며 조국이며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젊은 김상오의 피는 건국열의로 끓어넘쳤다.

하루하루가, 아니 한시간한시간이 보람과 긍지, 기쁨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었고 환희에 찬 나날의 련속이었다!

이 나날 그는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으며 그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일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주체35(1946)년 1월 현지도차로 해주에 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신문 《자유황해》에 실린 사설을 보시고 잘 썼다고 파분한 치하를 주시고 사설을 쓴 김상오를 결으로 불러주시었다.

김상오는 늘뛰는 가슴을 진정 못한채 한달음에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버 이수령님께서는 미처 그가 인사도 올리기 전에 주필동무를 기다렸다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사랑과 믿음이 함뻍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사실을 보았는데 잘 썼다고 서술방향도 옳게 정하고 정치분석도 정확히 하였다고 과분한 평가를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음날에 또다시 부르시어 그날 해주시군중대회에서 채택할 문건집필을 맡기시었으며 군중대회에 대한 취재와 보도사업을 직접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그리고 그가 미흡하게나마 그 과업을 수행했을 때에는 만족하시어 빨리 썼다고, 잘되었다고 거듭거듭 치하해주시었다.

이때부터 시인의 생활에는 운명전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아버 이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그를 직접 해방된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지금의 인민경제대학 전신) 제1기생으로 불러주시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민주조선사 부주필의 중책을 맡겨주시었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때는 대표로도 불러주시었다.

또 그가 민주조선사 부주필로 사업하다가 어려서부터 앓던 병이 도졌을 때는 작가동맹 현역작가로 일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고 병치료를 하면서 글을 쓸수 있도록 육친의 사랑을 돌려주시었다.

하여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문학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주체38(1949)년에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집 《우리의 날》을 출판하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6월 25일 당일날에 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것이다》를 내놓았다.

앓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이 기간에 시 《중요의 불길로써》, 《저기로》, 《다리》, 《외파처치실에서》 등 수십편의 시들을 묶은 전선문고를 탈고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평양이어 너를 건설하리라》, 《나무》, 《산》, 《소원》 등을 수록한 시집 《아름다운 기슭에서》가 나왔다.

이 시기 그가 쓴 가사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와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참으로 희열과 랑만에 넘친 보람찬 나날이었다.

시상은 샘물처럼 솟아올랐고 쓰고 쓰고 또 써도 더 쓰고만싶었다.

그러던 그는 뜻하지 않게 펜을 놓게 되었다.

하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찾으시었으니 해방직후의 복잡한 해주지구정세를 회고하시다가 신문《자유황해》주필이었던 동무가 참

똑똑하였다고, 자신의 사업을 많이 방조해주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 어떠한 사랑을 돌려주셨던가.

시인 김상오동무는 해방직후부터 재능있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는데 그가 좋은 글을 쓰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시인 김상오는 너무도 감격해 뜨겁게 부르짖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아닌
우리의 위대한 태양의
눈부신 빛발속을
나는 걸었노라 어린애처럼
비척거리며
꿈아닌 꿈속을
꿈이여 깨지 말라고 빌며...
—나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났노라!
또다시 삶을 받았노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무심한 가로수들을 향해
하늘과 땅
온 세계를 향해 목이 터지게
목이 터지게 웨치고싶은

그 한마디를
그렇듯 소중히 아끼며
너무도 거대한 격동을
너무도 작은 가슴에 누른채
드디어
그이의 영상앞에 섰을 때

아
어찌리오! 나는 비로소 깨달았노니
사람의 언어가
그토록 무력한것을
그토록 빈약한것을
...

서정시 《그날 그 순간》중에서

이렇게 그는 문단으로 되돌아왔다.

하여 시인은 썼다. 《나의 조국》을, 《우리 당》을, 《영원한 전사의 노래》를.

그가 서정시 《나의 조국》을 썼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인상에 오래 남도록 진실하고 깊이있게 잘 쓴 작품이라고, 한번 읽고난 다음에도 다시 읽고싶은 좋은 시라고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었다.

그리고 시는 《나의 조국》과 같이 써야 한다고,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적인 언어로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시적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하였다고 치하하시었다.

그때부터 시인은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 못하고 생을 마칠가봐 조급해하였다.

그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쓰고 또 썼다.

그 나날 그가 쓴것은 시뿐이었던가.

장편소설 《통일은 언제 됩니까》를 비롯하여 수편의 소설과 평론, 수필, 예술산문들, 또 로씨야어 번역물들...

그가 쓴 시만 해도 천여편이 넘었다.

조국이어

그때문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 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것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그는 오래오래 살면서 더 많은 글을 쓰고싶었다.

그러나 로쇠한 육체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 동료에게 보낸 편지구절에는 안타까운 육체의 연소에 대해 쓴 이런 구절이 있다.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자신을 못 가지게 되었네.

그러나 육체적로쇠를 극복하면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써야 하겠다고 결심하고있네.

어려서부터 앓기만 하던 이런 약골의 몸이 70을 살았으니 어지간히 산셈이지. 이것이 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덕택이네. 그러나 욕심같아서 더 오래 80~90까지도 살고싶네. 그러면서 일을 하고싶네.》

그는 주체81(1992)년 9월 4일 일흔다섯살로 자기의 생을 끝마치였다.

그러나 육체적생명의 불은 꺼져도 그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더 빛나고있으니 그를 그토록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

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사망한 후에도 몇번이나 그를 회고하시였다.

유명한 서정시 《나의 조국》을 쓴 시인이라고, 김상오는 재사였다고 훌륭한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고 또 어느 기회에서는 그가 일하던 기관의 일군을 만난자리에서 그는 해방직후부터 좋은 시를 많이 쓴 애국적인 작가라고,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오를 내세우고싶으시다고 말씀하시였다.

아,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데 있겠는가.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위인의 품속에 사는 전사의 삶은 영원하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세세년년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시인의 노래로 남았다. 이 시와 더불어 시인은 영생하고있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주옥같은 찬가를 남게 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영원한 고마움을 읊조리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어 나의 조국이어

황령아

상식

국 장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장.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공식적표현으로 된다.

국장은 그것이 가지고있는 대내외적의의로 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규정된다.

공화국국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적표징으로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통성변영을 상징한다.

국장의 윗부분에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오각별, 그 별의 빛발들은 공화국정권이 계승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상징한다.

국장안에 있는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은 우리 나

라 공업과 농업의 위력과 그 발전전망,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상징한다.

붉은 띠를 테두리로 하여 국장을 타원형으로 한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영원성과 조국의 부강변영과 찬란한 미래를 상징한다.

국장의 붉은 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것은 우리 나라의 국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에 따라 사용한다.

강성대국의 찬란한 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태양에 대한 불멸의 예술적형상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봄의 서곡》에 대하여-

김정철

우리의 태양은 위대한 장군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하고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이 이 땅우에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고 후손만대의 번영이 담보되는 행복의 봄, 강성대국의 빛나는 봄을 안아왔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봄의 서곡》(백남룡 작)에서는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류레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성대국의 려명, 승리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이 력사의 진리를 예술적화폭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소설이 독자들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과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것은 비범한 정치적 실력과 무한한 인간사랑으로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사회주의수호자, 행복의 창조자,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진실하고 생동하며 의의있는 생활화폭속에서 깊이있게 창조한데 있다.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장편소설 《봄의 서곡》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공은 사상도 신념도 배짱도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을 수령님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오직 수령님식으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력사에 실지 있는 수령을 직접 형상하기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맞게 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활동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며 력사에 남는것으로 하여 수령형상문학작품에서는 력사에 없는 사실을 꾸며낼 필요가 없으며 철저히 력사문헌적성격을 살려야 한다.

장편소설 《봄의 서곡》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이 땅우에 강성대국의 새봄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사랑의 뜨거운 열과 빛에 의하여 안아오게 되었다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력사적로정을 실재한 그대로 펼쳐보여주면서 수령님식으로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류레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시련이 닥쳐온 그해 겨울,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연에로의 전선시찰을 이어가시던 그 나날에 함경남도의 여러 지방과 함흥시를 찾아주시였다.

전력부족과 원료, 자재난으로 공장, 기업소들이 멎어서다싶이 되었고 수도물공급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함흥시의 실태를 료해하시는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묵묵히 시련을 이겨내는 인민에 대한 가슴아픈 걱정과 함께 반드시 시련을 이겨내고 내조국을 빛내시려는 확고한 결심이 굳게 다져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한생을 바쳐 이끌어오신 인민이 사는 아름다운 내 조국... 이 땅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붉은기를 내리려 한다, 계속되는 경제적붕쇄, 극심한 식량난... 그 어느 나라가 이런 악조건에서 견디어내겠는가,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선것만은 부인할수 없다, 그래서 세계가 《북조선붕괴설》을 떠들며 조선반도의 재난을 심심한 우려속에 지켜보고있는것이 아닌가. ... 그래 지켜보라, 아무리 시련의 강추위가 들이닥치고 재난의 세찬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우리 조국은 저 산발처럼 끄떡없고 눈덮인 숲처럼 사나운 겨울을 물리치고 푸르려질것이다. ... 장군님의 사색은 함경남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신다.

인민경제의 골간부문인 전력, 기계제작, 화학공업, 광업이 집중된 함경남도를 《동면》에서 깨워 일떠세워야 경제전반에 활력이 생길수 있다, 때문에 《고난의 행군》의 또 하나의 돌파구를 함경남도의 《동면》을 깨버리는데서 찾아야 한다. ... 소설에서는 이처럼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펼쳐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신념과 의지, 비범한 안목과 예지의 세계를 예술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고난의 행군》의 성과적해결방도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데서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하여 수령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사상사업을 선행하여 대중의 양양된 열의로 혁명과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은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작품에서는 당, 행정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오늘의 시련속에서 어려운 경제형편을 개선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일군들부터가 신념과 배짱을 가지며 《고난의 행군》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바로 가지는데 그 해결방도가 있다고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감명깊이 창조하고있다.

《문제는 혁명대오의 지휘관들인 우리 일군들이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어떻게 분발하는가 하는데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 우리 일군들이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의 녀를 지닌 사람들이 나설 때입니다.》 이러한 장군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설에서는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해결방도를 철저히 수령님식으로 찾아내시는 장군님의 형상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고난의 행군》정신의 본질에 대하여서도 명백하게 정식화하여주시므로써 모든 일군들이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적무기를 안겨주신다.

《... 〈고난의 행군〉 정신은 최대의 공격정신이고 최고의 창조정신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 〈고난의 행군〉 정신을 무기로 삼고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맞받아 짓부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

최대의 공격과 창조로 일관된 《고난의 행군》정신,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담력이 그대로 담겨진 이 정신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세계의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강성대국으로의 도약대를 마련하고 휘황한 봄날에로 달려나가게 한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되었다.

소설에서는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무기를 안겨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라총연책임비서로 하여금 인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해결하여 안착시킨 다음 당의 대자연개조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이끄신다. 장군님께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이 단순히 도의 경제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조국의 앞날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라총연책임비서가 깊이 인식하도록 하시며 함경남도가 당의 대자연개조방침관찰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감으로써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이끌어주신다.

광포호수의 한쪽을 막아 자체의 원료기지를 꾸리겠다는 그들의 결심도적극 지지해주시면서, 그 공사진행과정에 대하여 여러차례 알아보시면서 해결책도 찾아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공사의 난관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을 때에는 수백톤의 연유와 강재, 료전기재들을 보내주시며 고무해주시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몸소 시간을 내시여 원료기지를 찾아주시며 이미 너무나도 많

이 알고계시는 인민들의 희생적이며 눈물겨운 투쟁이야기를 거듭거듭 들어주신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가르치심을 주시여 건설하게된 소금밭건설과 염소목장, 발전소건설장들을 몸소 찾아주시며 그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고 더 높이 달려나아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수령님 그대로 우리 인민들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생동한 생활사실들에 대한 예술적형상속에서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수령의 혁명력사에 대한 력사문헌과도 같은 소설의 가치가 있고 인간학적품격이 있으며 소설이 독자들을 눈물과 감동으로 매혹시키는 비결이 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봄의 서곡》은 우리의 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선군시대 주체조선을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라는 력사의 진리를 참답게 깨우쳐주고있다.

태양의 열과 빛으로

장편소설 《봄의 서곡》에서는 한없이 뜨거운 인간사랑의 열과 빛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으로 작품전반을 일관시키고있다. 이것이 독자들로 하여금 끝없는 감동과 흥분속에 소설의 세계에로 끌어당겨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지휘관들인 우리 일군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수령님식대로 일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일군들과 인민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작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소설에서는 인민경제의 골간부문이 집중되어있는 함경남도의 당책임비서로 라총연을 대담하게 임명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랑의 손길로 따듯이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태양의 열과 빛의 위대함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한개 기계공장의 책임비서를 도의 당책임일군으로 임명하는것은 결코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생산보다 먼저 인민들의 생활상조건과 요구부터 헤아려 볼줄 아는 라총연의 인간성과 일단 결심한 일이면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지혜를 발동하여 그 무엇도 가림없이 내밀고나가는 실천가형의 《불도젤성격》에서 신념과 배짱이 있는 일군, 우리 시대 일군으로서의 실력을 찾아보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친히 그를 만나주시면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도당책임비서로서의 사업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라총연이 첫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친아버이심정으로 기뻐해주시면서 함경남도에서

당의 대자연개조방침을 관철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고 그 수행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신다. 원로기지건설과 목장건설, 발전소건설과 소금밭건설로 일관된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라충연을 참된 당일군의 자질과 정신도덕적풍모를 소유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형상은 독자들에게 참으로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도상업국 부국장 송봉숙과의 인간관계를 문제로 여기면서 라충연이 그의 과오를 아래일군들에게 위임하여 일면적으로 취급하고있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라충연을 찾아 따듯이 일깨워주신다.

《…경제는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마음속에는 봄을 안고 살아야 동면에서 일떠설수 있습니다. 도량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는 몹시 어렵게 살지만 정신도덕적감정과 인간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적재부가 있기때문에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라충연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이며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난관속에서 드팀없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이 무엇으로 세차게 뿜고있는것인가를 절감하게 하여준다.

라충연이 당책임일군으로서 산림조성과 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도를 가지도록 일일이 의논도 해주시고 제방공사의 난관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을 때에는 수리공학자들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줄대신 밀어던지며 독선적으로 처리하였을 때는몹시 걱정하시며 어려운 때일수록 도량을 넓게 가지고 후대로 인정미로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로 묶어세울 때 부강한 래일로 달려갈수 있다고 절절하게 깨우쳐주시며 참된 일군으로 자라나도록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의 세계...

소설에서는 뜨거운 인간애와 믿음으로 일군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해나가는 인간들을 참된 애국자로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장군님의 형상을 여러 인물관계와 생활사실들로 탐구하여 유기적인 결합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적풍모를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속에서 활동하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보여줌으로써 수령의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한 문제이

다.

그 누구도 알아주는이 없이 10년세월 풀판조성을 위해 가정도 사랑도 행복도 다 바쳐가며 오직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갈 일념으로 살며 투쟁해온 식물학연구사 최인섭을 찾아내주시고 참다운 애국자로 내세워주시는 친아버지의 그 사랑,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잃어버린 모든것을 되찾아주시려 값높은 명예와 수많은 시험포전들을 마련해주시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놓고 살도록 보살펴주신다. 최인섭의 길동무로 나선 림선미의 잃어버린 아들에까지 찾아주시는 그 사랑을 어찌 그 무엇에 비길수 있으랴. ...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가는 삶을 그토록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친아버지 사랑이 있어 일시적이고난속에서 과오를 범하게 되었던 송봉숙도상업부국장의 운명도, 변천하는 대세의 흐름을 가려보지 못하는 초당분자에 의하여 억울한 무명을 쓰게 되었던 차원중축산관리국장의 삶도 새로이 태어나게 된다. 코앞에 가져다주는 상품을 펜놀림으로 분배할당하면서 동면하기보다는 자체로 이악하게 노력하여 하나라도 인민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려는 송봉숙의 마음속을 헤아려보시는분은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능력이 모자란다고 자신을 타매하며 사표를 제출한 차원중이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내시고 키워주신 일군이라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를 단단히 비판하고 신심을 주어 자기자리에서 일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분도 다름아닌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다른 나라의 실패와 생활방식을 퍼뜨린것으로 잘못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는 수많은 풀씨를 자체의 부담으로 가져다가 조국의 산과 들을 가꾸어나가려는 그의 참다운 애국심부터 찾아내주시며 그를 지켜주고 내세워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일군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철저히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다. 우정석농업위원장비서를 단호히 처벌하시는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와 인덕정치의 세계를 보다 심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형상전반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선으로 일관시켜 형상의 대를 바로세우고 개성적이며 호감이 가는 인물성격들과 진실한 생활사실들로 형상을 풍만하고 생동하게 펼쳐줌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핵으로 하여 시대의 성격적특질을 가지고있는 개성적인 인물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수령형상문학의 격을 담보해주는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소설에서는 그 어떤 기존공식과 불가능도 타파하며 우리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할 가능성부터 찾아낼줄 아는 라충연당일군, 《우국지사》로부터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실천가로
 개진되는 송건식시행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출선
 대오의 앞장에서 당의 방침과 정책을 받들어나가
 며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한성모시당책임비서, 청
 풍덕염소목장건설의 기본인물인 조문길, 소금발
 건설에 참가한 류승빈돌격대원, 라충연의 아들인
 라명구 등의 개성적인 인물형상들을 창조하여 우
 리 시대인간들의 참된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천계리 채운로인과 청풍덕의 오령감,
 고선화에육원원장과 애육원아이들의 아동절운동
 회를 비롯한 생활적인 사실과 성격들을 탐구하여
 진실하고 풍부한 생활화폭을 펼쳐주고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봄의 서곡》은 수령형상문학
 의 고유한 생리를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함으로
 써 위대한 장군님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
 며 강성대국의 새봄을 안아오신 선군령장이시라
 는 작품의 기본문제를 감동깊게 형상한 또 하나
 의 성과작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는 신심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운동을 다
 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더욱 굳게 안겨주고있다.

선군장정에 드리는 시

김정곤

한해에도 그 몇번 험한 철령을 오르셨습니다
 야전차를 어깨로 떠미시며
 오성산도 오르셨습니다
 파도 사나운 초도의 산악같은 풍량이
 지금도 때없이 우리들 가슴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강땅의 맵짠 눈서리가
 그 엷은 솜옷에서 녹은 날 있었습니까
 삼복철 찌물쿠는 한낮에는
 펄펄 끓는 성강의 로알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대홍단발머리에서
 군감자 몇알로 때식을 예우신 새벽은
 위장포 무거운 최전연 포진지앞에
 그 저녁으로 이어졌습니다

야전차 의자등받이에 드신 쪽잠이
 장군님의 달디단 휴식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봄향기 메이는 과원의 바람이
 그 옷깃에 매달려 떨어질줄 모릅니다

아 예가 아십니까
 잠간 다리쉽도 없이
 헤치고 넘으며 또 가신 선군장정의 길
 그 길에 꽃피난
 과일가지 무성한 인민의 무릉도원

아아
 맞고맞으신 눈
 그 어깨에 쌓이고쌓인 눈이
 내리고내려 과원의 꽃이 되었습니다
 야전복을 적시고적신 그 헌신의 땀이
 과원을 살찌운 봄비가 되었습니다

장군님 묶어세운 멸적의 총대숲넘어
 장군님 쌓아올린 불패의 철옹성 넘어
 백화만발한 과원이
 인민사랑의 그 품에서
 청청한 숲으로 일어섰으니

이제는
 과일가지 스치는 이 좋은 길에
 편안히 모셔감이
 일구월심
 하늘에 닿은 저희들 소원이온데

오, 또 떠나십니까
 야전차의 앞머리가
 파수발 소로길을 빠져
 또 전선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청춘과원은 우리에게 주시고
 장군님은 또 철령을 넘으십니다

나는 밀림의 설레임소리를 듣는다

박정애

성스런 백두령봉에 올라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
가슴뿌듯이 안아볼 때면
들려오노라
빨찌산어머님의 이야기 전하는
천고밀림의 설레임소리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받던 이 조선
수수천년 내려오며 그 무엇을 이야기할수 있었으
라
수령님을 모시여 빛나는 조국
어머님의 한생을 떠나서도 생각할수 없는 조국
이 가슴에 세찬 격랑 일으켜주는 설레임소리

은은히 실려오누나
솔푸른 만경대를 그려보시며
조국을 안아보시던 삼도만 그 기슭
어머님 부르시던 《사향가》의 노래소리
만년강설속에 봄이 웃던
사령부 들창가의 진달래향기

그러면 잔물결 일으키며
또다시 들려오는 밀림의 속삭임소리
우등불 타오르는 숙영의 밤
수령님의 솜외투 누벼가시던
어머님의 바느질소리
사령부 천막가를 못 떠나시며
한밤을 새우던 발자욱소리

네가 설레여 내 가슴도 젖어드는가
내 가슴 젖어들어 너의 설레임도 목메이는것인가
때로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우뢰같은 웨침으로
끝없이 전해주는 밀림의 설레임소리

가사

조국이어 그품에만 살리라

김춘호

시내물의 맑은 흐름은 샘터에서 시작되었고
내 인생은 어머니조국 그 품에서 시작되었네
나라들은 많다 해도 생을 준 조국은 하나
그 품에만 살리라 내 한생 끝까지

아름드리나무일수록 그 뿌리는 이 땅에 깊고
조국이어 그대와 나 뗄수없이 정도 깊어라

하늘땅 휘젓는듯 폭풍치는 소리
수령님 젖은 옷 품속에 말리우신
혈전만리 행군길 그 눈보라소리인가
총알이 비발치는 대사하치기의 격전터
수령님을 한몸으로 막아나선
그 총성의 메아리인가

가난의 짙신자욱 고향에 남기시고
설음많은 타향으로 떠나신 그 가슴에
봄빛처럼 해빛처럼 비쳐들던
김일성장군님의 이야기
빼앗길수 없는 조국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신 어머님

그 시절에 벌써
어머님 마음속에 자리잡은 조국
수령의 력사속에 조국이 빛나고
전사의 생이 빛난다는 진리의 그 성돌로
수령결사옹위의 초석을 다져준 항일의 녀장군

장엄한 밀림의 설레임소리
내 한가슴에 안아보노라
수령을 모시여 웅건한 백두산
어머님 삶으로 빛나는 백두산
내 나라 불패의 선군조국은
어머님의 두어깨우에 떠실려있는듯
수령결사옹위의 반석위에 솟아 꽃피난
아, 나의 삶, 나의 행복

만년세월의 이끼도 덮지 못하리라
빨찌산녀장군의 생의 메아리
수령의 위엄으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의 무궁함을 길이 전하는
천고밀림의 설레임소리
백두의 영원한 대교향곡이어

나보다도 나를 아껴 키워준 조국은 하나
그 품에만 살리라 눈와도 비와도

하늘높이 날으는 새도 보금자리 땅우에 있고
천리만리 내 어데가도 마음만은 이 땅에 있네
그대없인 나도 없을 선군의 조국은 하나
그 품에만 살리라 대대로 영원히

작가와 조국

태를 묻고 자란 이 땅, 사랑하는 내 조국에 대하여 먼저 간 작가들은 무엇을 말했을까.

기쁨과 아픔, 웃음과 슬픔의 추억이 하늘 가득, 땅 가득 넘치는 조국을 선배작가들은 어떻게 사랑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흘러간 세월의 갈피를 헤치며 우리 다시금 들어보려고 한다.

내가 열다섯살이 되던 해에 우리 나라는 일제의 강도적인 허위문서날조로 왜놈들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청년인 나에게는 앞길 이 막혔다.

그 시절에도 봄은 해마다 찾아왔다.

그렇다. 봄은 있었다.

나라없고 광명을 찾아해매는 소년에게도,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청년에게도, 돈이 없어 죽은 자식을 곁에 놓고 장사비를 마련하자고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난한 작가에게도 봄은 잊지 않고 찾아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봄이 아니었다.

나라없고 위대한 령도자가 없는 식민지인에게 있어서 그 봄은 눈녹은 물이 길바닥에 질적거리 는 스산한 계절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 이 땅에는 진정한 봄이 도래하였다.

은혜로운 사랑의 그 품에 안겨 나는 꺾었던 붓을 다시 추켜들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라의 정사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세상에서 이름 없던 우리 조국은 존엄높은 주체의 조국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게 되었다.

내가 90평생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모든 현실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었는가.

그것은 한 나라의 위용이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며 민족의 부흥도 나라의 자연부원이나 민족의 재능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것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데 있다는것이다.

암흑속에서 태어나 살기 위해 헤매던 나에게 광명을 주고 행복을 안겨준 공화국에서의 영광의 세월은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계처럼 영원하며 흐르는 물이라면 용용한 대하가 되어 나의 가슴속에 줄기차게 흐르고있으며 나무에 비하면 푸른 한빛으로 수많은잎을 떨기고 곳곳이 서있는 락락 장송처럼 생생히 안겨와 나는 내가 살아온 나날을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못할것이다.

리기영

나는 내 고향에 이름난 명산, 이름난 강, 그 무수한 이름난 특이한것이 없음을 한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일목일초가 다 소중하며 그 어느것도 천하에 이름나고 천하에 특이한것보다 좋습니다. 내 고향의 산천초목에는 나의 눈물과 가슴쓰림, 기쁨과 웃음과 추억이 물감처럼 습배여있습니다.

아, 내 고향!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내 조국, 세상에 내 조국과 같은 그런 곳이 과연 또 있을까?...

해방전 30년,

해방후 40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고마운 내나라가 없었다면 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호미 한자루로 땅을 두지다가 일생을 마쳤을것입니다.

아버이수령님의 그 품속에서 창작활동을 해온 나의 40여년의 나날은 정말 사람이 세상나서 한번 살아볼만 한 한생이었습니다. 나는 그 품에서 작가가 되었고 쓰고싶었던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또 생의 후반기에는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은인으로 모시고 소설을 쓰는 특전도 누리였습니다.

내가 창작을 시작하던 때부터 아니, 창작을 꿈꾸던 그 시절부터 오늘날까지의 창작생활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 그것은 곧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사랑하는 내 조국에 대한 송가로 될것입니다.

천세봉

추억은 가버린 시절의 고향집
어머니 여닫던 키낮은 쪽문이나
만나고 헤어지며 나눈 우정
사진첩에 남겨둔 그리움이나
가슴에 주렁주렁 매여달린 혼장
조국에 기쁨될 아들의 권리이나
몸과 마음 못다 바친 안타까움 있어
한생을 다시 살고싶은 아픔이나

추억은 제 혼자 울고 웃다 생을 마치는
이것이 목숨가진 인간의 추억이라면
조국에 남는것이 무엇이라

내 어머니 내 이름 용하다 불러주었듯
내 조국이 내 이름 장하다 불러주는
아, 이 한마디에 다있었구나
몸은 가도 두고갈 나의 추억아

박호범

생물계에 있어서 태양은 삶의 원천이다. 태양은 삶의 자양분이다. 이 태양과 토양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곧 생물이다.

온 나라가 한창 《고난의 행군》을 겪고있던 주체86(1997)년 12월초, 나는 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예순돛생일상을 받아안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61년전의 늦겨울인 주체 25(1936)년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만의 남호두를 떠나 백두산으로 나오시는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한 전령병의 생일날을 잊지 않고계셨다가그날 저녁의 숙영천막에서 비록 아주 간소하게나마 생일상을 차려주시였던 가슴뜨거운 옛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해에 있는 일이지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하여서도 널리 알려지고 나자신이 또한 총

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대통령감》의 시점에서 품을 들어 묘사한 장면이었으므로 내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것처럼 기억에 생생하였다.

사상정신적품모는 물론 덕망까지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은 만민의 태양이신 동시에 우리 작가들의 영원한 해님이시다.

우리 공화국은 그 해님의 따사로운 해살 비치여 살찌여가는 풍요한 대지이다.

그 해님덕에, 그 대지덕에 우리 작가들은 우리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해바라기들이다.

최학수

수기

조국을 생각한다

오영재

조국에 대한 감정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야릇한 감정이다. 아기가 엄마품에 안겨있을 때 그저 즐겁기만 하고 잠시도 떠나고싶지 않은것은 무엇때문일까. 그 품의 따스함인가, 굽어보는 인자한 눈빛인가, 조용히 짓는 그의 웃음인가.

아마 그 모든것의 총체일수도 있을것이다. 그처럼 나에게 있어서도 조국에 대한 감정은 조국이 지니고있는 그 모든것— 부모형제, 이웃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 그리고 아침저녁 걷는 거리와 늘어선 집들, 철마다 그 색깔이 바뀌우는 대지와 내 집의 창문에 비끼는 푸른 하늘, 내 한생과 끊을수없이 련결된 이 모든것에 대한 정과 애착의 총체일것이다.

나는 가끔 벽에 걸려있는 세계지도를 들여다보며 내가 살고있는 나라와 그밖에 지구우에 널려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살펴본다. 이 세상에 사람이란 다 같은것이며 그 누구나 저나름의 한생을 살아가고있다.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열대의 수림속에서나 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도 저마다 자기 조국이 있고 조국에 대한 시도 노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시아의 동방해안은 아침의 나라 이 땅에 살고있는것을 최상의 행운으로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생을 받았고 일흔살이 넘은 오늘까지나의 인생행로의 자욱을 여기에 새기여왔다. 유년시절, 청년시절 그리고 장년과 로년시절의 얼마나 많은 추억들을 내 조국이라는 이 정다운 보금자리안에서 간직하고있는것인가.

내가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얼마동안 머물러있

은 그때가 생각난다. 보는것마다 희한한것도 많았고 친선의 사절이 왔다고 극진히 대해주는 그 인정도 고마웠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그리워지는것이 조국이었다. 가을비 뿌리는 층높은 호텔의 창가에서 끝간데없이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이 깊었다. 저 수많은 집들중에 내가 찾아가보고싶고 또 나를 반겨줄 집이 단 한집도 있던가.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생활풍습도 다른 이국땅, 도시가 변화한들 어떻게 생활이 유족한들 어떠랴, 정이 흐르지 않고 피가 통하지 않을 때 이 모든것은 온기가 없는 정지된 한쪽의 그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내 나라 땅우에서 흘러보지 못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을 수천만리 떨어진 가을비 뿌리는 이국의 창가에서 흘려보았다.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는 이런 시를 내 시첩에 적었다.

...

오늘에 그대에게서
내 진수성찬을 굳이 바라지 않노라
호화로운 살림도 아직은 바라지 않노라
남이 못 받는 그런 사랑
우리 당의 품에서 내 다 받고
남이 못 가진그런 신념
우리 당을 따르며 이 가슴에 지낼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대의 아들
어디에 간들
그 무엇을 준대도 바꿀수 없는

이 행복 그대를 떠나보니 더욱 새롭구나
조국이어
아, 나의 조국이어
아들은 그대 품으로 돌아가노라

세상에는 남의 나라에 무참히 짓밟혀보지 않은 나라도 있고 전쟁에 의해 피를 흘려보지 않은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에 의해 짓밟혀도 보았고 전쟁도 겪었고 채터미로 된 페허우에 공장을 짓고 집을 일떠세우는 고생도 많이 했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여전히 우리의 걸음은 힘에 겹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보다 험하게 걷고 우리보다 더 유족한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임을 당당히 자부하고있는것은 내 인생이 몸을 담은 땅이어서도 아니고 어차피 운명을 함께 해야 할 생명의 모체를 옹호하고 부각시키고싶은 민족성원으로서의 자존심도 아니다. 참으로 내 조국은 위대한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빛어진 결정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런 사랑이 없이 어찌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의 20여성상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내 조국을 찾아주실수 있었을것이며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걸음걸음 짓부서 버리며 대소한에도 삼복철에도 강행군길을 걷고 걸으시며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실수 있을것인가.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이라고 부르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민은 령도자를 태양이라고 부르며 우러르고 그리워하며 따르는 나라, 정녕 내 조국은 지배와 복종이란 없이 인민모두가 령도자의 사상과 뜻으로 사는 하나의 동지가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조국뿐이다. 그러기에 령도도 작고 인구도 많지 못하지만 이 행성우에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와도 당당히 맞서서 언제나 이기는 나라로 세상의 감탄을 자아내고있지 않는가. 이런 조국에 사는 인민임을 어찌 세상에 대고 자랑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런 조국을 몸바쳐 사랑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어찌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할수있으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예술가가 어찌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작할수 있겠습니까.》

주체혁명위업에 복무하고있는 한 작가로서 이미 오래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날에 우리 작가들을 부르시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작가로서의 내 한생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조국을 위하여 자기를 바칠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그러기에 한 선배시인은 조국에 자기의 심장을 다 주기 전에

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조국이라는 큰 생명모체의 그 어느 한구석에나마 자기의 피와 땀, 탐구와 노력의 결실이 보태졌을 때 조국과 나가 하나로 된 통일체가 이루어지는것이며 거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은 조국수호의 의지로 승화되는것이다.

나이가 한살, 두살 더 들어갈 때마다 나는 자신이 지금의 이 나이까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쳐왔던가를 자책속에 더듬어본다. 이것은 또한 내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해왔던가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한생은 총과 붓대의 한생이었다. 소년으로부터 청년기의 문턱을 넘어설 무렵 조국해방전쟁을 맞은 나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피어린 락동강도 건너보았고 적후 제2전선의 얼음덮인 벼랑길도 넘어보았다. 적과의 총격전에서 온몸에서 흐르는 피로 원주계선 무명고지의 흰눈을 적시기도 했다. 전후에 제대되어 난방공으로 전후복구건설에도 참가해보았고 그후 작가학원을 거쳐 오늘까지 근 50년을 붓대를 쥐고 조국과 혁명을 위해 일하고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다 한다고 해도 기울여준 부모의 사랑과 키워준 그 수고를 다 갚을수없듯이 나는 아직도 조국에 빚을 지고 사는 심정이다. 남녘땅 다도해기슭에서 혈혈단신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 나를 조국은 따듯이 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어 오늘은 어엿한 당의 작가로 내세워주었다.

한생을 살아오는데 그 무슨 우여곡절인들 없었으랴. 때로는 삶의 길에서 탈선되었을 때 그 누구도 구원해줄수 없었던 이 전사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손잡아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못난 자식이 채심하여 한가지라도 즐거운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그토록 대견하고 기쁘시여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기울여주시였으며 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까지 안겨주시였다.

바친것보다 받아안은것이 더 많은 이것이 나의 한생이다. 바치고 받아안은 그 혈연적뉴대속에서 형성되는 사랑과 정— 이것이 내 조국이다.

그 누가 조국이라는 그 위대한 의미를 다 안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으랴. 나는 지금까지도 조국이라는 참다운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있는것만 같다. 다만 나에게는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년륜을 하나, 둘 더 감으며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을뿐이다. 조국이라는 큰 개념을 축소해본다면 하나의 가정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그래서 시인들은 흔히 조국을 나의 집이라고 비유해 표현하기도 한다. 하다면 그 가정의 상징, 가정의 주인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키워주며 먹여살리는 어버이인것이다. 어버이가 훌륭하면 그 가정과 식솔들도 훌륭하며 어버이가 정사를 잘하면 그 가정이 부흥하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곧 우리의 조국이다.

사상과 령도로 위대하고 지략과 담력으로 출중하고 덕망과 사랑으로 열렬하시여 온 세상이 칭송을 아끼지 않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인민처럼 긍지높고 영광넘친 인민이 이 세상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집— 내 조국이 어찌 온 세상에 빛을 뿌리지 않을 수 있으랴.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니처럼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조국을 어머니라고 부르는것이다. 그 품을 떠나 내가 갈 곳도 살 곳도 없다. 그 어머니와 함께 살며 숨쉬는 나는 한 생명인것이다.

수기

휘날려라 공화국기발이여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기발이 나뭇긴다.

조국청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진 60년사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이 펄펄 휘날린다.

바라보기조차 가슴 벅찬 긍지와 자부심,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우리의 공화국기발.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매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숨결을 안겨주고 아름답고 고결한 추억을 불러주는 우리의 기발이다.

새로운 신심과 승리에 대한 락관을 주는 저 힘찬 펄럭임은 티없이 순결한 량심과 신념의 반석 위에서 휘날리기에 너는 영원한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것처럼 자랑스럽게 휘날리는것이 아니랴. ...

이 아침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노라니 저 기폭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 수많은 동지들의 고결하고 의로운 모습이 떠오른다.

불타는 전호가에서, 나아가는 진격의 길에서, 때로 철창과 교수대에서도 너를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전사들은 그 얼마이던가.

그 많은 모습들속에서도 박동지의 모습은 오늘도 잊을수 없다.

그누구와 다름없이 그도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이었으나 저 공화국기발을 지켜싸운 그의 한생은 결코 평범할수 없는 전사의 고결한 위훈의 한생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지난날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것은 조국이 이처럼 귀중하였기때문입니다.》

박동지는 주체37(1948)년 리승만역도의 5.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한 통일애국투사

수령이 위대하여 조국이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한 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확고한 신심과 희망에 넘쳐 혁명의 필봉을 더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을 빛내이며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가는데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다시금 마음속깊이 다짐하게 된다.

이다.

주체39(1950)년 조국해방전쟁시기 진격의 길에 오른 인민군땅크부대가 박동지의 고향에도 들어섰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목이 터지도록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인민군대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맨앞에서 달리던 땅크가 환호하는 군중들앞에서 멈춰섰다. 인민군군관이 땅크우에 올라서며 손을 높이 들고 연설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은 해방되었습니다. ...》

진정에 넘치고 격조높은 그 연설을 들으며 땅크우에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바라보는 박동지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솟아올랐다.

잠시후 땅크들이 떠나려고 하였다. 박동지는 연설하던 그 인민군군관의 손을 굳게 잡으며 절절하게 부탁하였다.

《저... 공화국기발을 저에게 줄수 없습니까?》

간절히 말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던 군관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땅크안에서 공화국기발을 꺼내주려고 하였다.

박동지는 서둘러 지금 땅크우에 휘날리고있는 저 기발을 줄수 없는가고 간절히 말하였다.

인민군군관은 좀 망설이다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시원스레 말하며 땅크우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내려 박동지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새로 꺼낸 공화국기발을 달고 고향사람들의 환호속에 또다시 진격의 길에 올랐다.

박동지는 놈들이 군청으로 쓰던 건물의 지붕위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띄웠다. 고향사람들은 힘있게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그후 박동지는 군인민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

고 인민위원회 국기계양대에서 펄펄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아침저녁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 한생을 바칠 새로운 결의를 다지곤 하였다.

해방된 박동지의 고향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되고 한생의 숙원이었던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은 그 흥분과 감격을 억제할수 없어 공화국기발을 우러르며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었다.

그런데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고 군당은 유격대를 조직하고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유격대로 떠나는 날 비통한 심정으로 국기계양대에서 공화국기발을 내리며 침략자 미제를 기어이 몰아내고 이 기발을 고향하늘에 다시 띄울 굳은 맹세를 다지었다. 자식과 헤어지는 것보다 공화국기발과 잠시나마 떨어지는것이 그토록 서운하고 가슴아파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박동지는 기발을 어머니에게 맡기었다.

피어린 전투의 낮과 밤에도 박동지는 어머니의 가슴에 정히 품고있는 공화국기발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박동지는 심한 동상을 입고 유격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적 《토벌》대의 포위에 들게 되었다. 최후적전의 순간이 오자 그는 수류탄을 뽑아들고 웨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그는 자폭을 결심하고 수류탄고리를 뽑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수류탄은 폭발하지 않았고 박동지는 그만 무리로 달려드는 놈들에게 체포되었다.

옥중에서 그는 발의 동상으로 발가락이 다 빠져 제대로 설수도 걸을수도 없는 몸이었지만 모진 전향공작에 맞서 견결히 싸웠다. 순간순간 생사를 판가리하는 옥중생활속에서도 그는 고향이 해방되던 날 인민군캠프우에 휘날리던 공화국기발을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박동지는 손가락에 물을 묻히여 감방벽에 공화국기발을 그리다 놈들에게 들키여 고문을 당하고 먹방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도 공화국기발을 띄우며 다지던 맹세를 잊지 않았다.

놈들은 폭력에 의한 전향공작이 실패하자 회유의 전향공작으로 어머니와의 면회를 허락했다.

옥중생활 12년세월이 흘러간 어느날이었다.

면회장에는 10대의 소녀가 박동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서 낯선 그를 또렷하게 쳐다보고있었다. 그가 바로 박동지의 딸이었다. 딸애는 그가 유격대로 떠난 이듬해에 태어났고 처와 아버지는 놈들에게 학살되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낯선 얼굴을 쳐다보며 움직일줄 모르는 딸의 등을 떠밀며 어머니는 말했다.

《인사해라. 너의 아버지다.》

그 말에 딸애는 조용히 몇걸음 내짚으며 《아버지!》하면서 품에 안기었다. 신통히도 안해의 눈과 입을 꼭 닮은 딸애는 이름을 묻는 아버지에게 《꼭단입니다.》라고 또렷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잠시 아버지의 상처자욱과 여윈 목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던 딸애는 아버지의 귀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기발을 나도 좋아해요. 아름다운 기발이에요.》

박동지는 몽클 가슴이 젖어와 귀여운 딸애를 더 꼭 안아주었다. 놈들은 딸애의 재롱에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고있다고 생각하며 만족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그러나 놈들은 딸애의 그 말속에서 얼마나 크나큰 힘을 얻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놈들의 회유공작도 실패하고말았다.

35년간의 옥중생활을 마치고 감옥문을 나서는 박동지를 딸이 마중해주었다.

세월과 함께 아버지의 머리엔 흰서리가 내리고 딸은 중년부인이 되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집에 아버지와 딸만이 서로 마주앉았다.

딸은 아버지앞에 하고싶은 많은 말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사용하던 장농을 열고 붉은 천으로 정히 싼함을 내놓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제일 사랑하고 어머니와 제가 가장 귀중히 보관해온것입니다.》

그안에는 주체39(1950)년에 인민군군관으로부터 받았던 공화국기발이 있었다.

박동지는 공화국기발을 펼쳐들었다. 이 기발을 지켜 35년, 옥중의 시련에 찬 순간순간에도 항시 마음속에 휘날린 공화국기발, 또 그의 어머니가 수십년세월 가슴에 안고산 기발이었다.

그후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그날 저녁 딸에게 이 기발을 안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이 기발을 넘겨준 인민군군관도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딸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발은 인민군대에 의하여 고향이 해방되던 날 처음으로 고향하늘에 휘날린 영광스러운 공화국기발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고향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람들은 전설처럼 그날의 감격을 말하면서 이제 통일되는 날 다시 고향의 하늘가에 이 기발을 띄우자고 하고있습니다.》

저도 그날에 아버지와 함께 이 기발을 남먼저 고향하늘에 휘날리고싶습니다. 저에게 이 기발을 주고 가십시오.》

딸의 목메인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박동지의 가슴은 몽클 젖어들었다.

《너의 뜻이 그렇다면 네가 잘 보관하거라. 우리 함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껏 싸우자는것을 이 기발앞에서 약속하자.》

박동지와 딸은 창가에 노을이 비끼는 아침까지 공화국기발을 벽에 걸어놓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할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그렇다. 공화국기발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힘이였으며 모진 시련도 이기게 한 신념과 의지였으며 운명의 모든것이였다. 실로 박동지와 같은 얼마나 많은 공화국의 아들들이 피와 생명을 바쳐 지켜온 기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의 내 조국에 영원한 필승불패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힘차게 휘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발!

누구나 생의 나날에는 물론 최후의 순간에도 뿔뿔이 머리들고 바라볼수 있게 한점 부끄럼없이 애국에 살 때 우리의 공화국기발은 영원히 그를 품어안을것이다.

9월의 하늘가에 힘차게 나뭇기는 기발을 바라보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내 한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박동지의 마음처럼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휘날려라 기발이여.

영광스러운 우리의 공화국기발이여!

수기

조국을 안고사는 사람들

남대현

9월의 하늘가에 울려여가는 가슴젖는 그 부름, 천만자식들이 목소리합쳐 부르는 그 부름속에는 멀리 바다 건너 이역땅에 살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목소리도 들어있다.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기에 조국을 그리는 그들의 부름소리는 그토록 절절하고 뜨거운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항상 조국과 함께 숨쉬며 살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그리움의 세계가 시의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

...

모진 이역바람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키워가는
여기는 바로 조국의 한끝이다

총련의 로작가 정화수선생이 얼마전에 조국에 보내온 서정시 《조국의 한끝》의 한 구절이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진해가고 여러가지 병마가 심신을 괴롭히고있는 악조건속에서 창작한 로시인의 시에서 우리는 민족교육의 전당인 일본땅 곳곳에 있는 조선학교들이야말로 조국과 함께 숨쉬며 조국의 박동에 자기 심장의 고동을 맞추며 사는 조국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다시금 절절하게 느낄수 있다.

나는 가끔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작가들을 만나보곤 한다. 그때마다 조국을 떠나사는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류다르게 뜨거운것인가에 대하여 체험하곤 한다.

꽃속에 묻혀있으면 꽃향기를 다 못 느끼는 법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꽃향기 즉 조국의 향기를 맡고싶어 어려운 결심으로 조국을 찾아오는것

이다.

문득 십여년전 취재차로 일본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오른다. 취재과정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민족의 녀를 지니고 조국과 함께 숨쉬며 살고있는 미더운 사람들이였다.

반세기를 이역땅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애국애족의 길에서 억척같이 싸워온 1세 총련일군들과 미더운 상공인들 그리고 원썬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고 있는 오늘도 민족의 녀를 간직하고 애국의 대를 꽃꽂이 이어가고있는 2세, 3세 동포들과 총련문에 일군들...

그들가운데서 《남선생은 해방후 처음으로 일본에 온 조국의 소설가》라며 검은테안경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1세시인 정화흠선생의 모습이 그가 최근에 창작한 시 《겨울민들레》의 구절들과 함께 떠오른다.

...

이 겨울도
묵묵히
칼날같은 눈서리와
싸우는 너

속잎틈에는
이미
래년의 꽃망울이
자라고있구나

한생을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고 발걸음을 맞춰온 로시인 정화흠선생은 자기를 겨울민들레에 비기며 칼날같은 눈서리와 싸워온 이국에서의 한생을 더듬어보고있다. 이 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시인은 일본반동들의 멸시와폭행에도 굴하지 않을 조국에 대한 지조와 신념을 가슴속에서 자라고있

는 《래년의 꽃망울》로 망울지고있다.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그 꽃망울...

그를 처음 만나던 30여년전의 그날, 50대의 젊고 정력에 넘치던 시인과 나는 평양의 어느 한려관에서 조국문학과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밤이 지새도록 나누었었다. 세월은 흘러이제는 어느덧 머리엔 흰서리가 내렸지만 조국에로 불타는 그 열정은 청춘을 노래하고있다. ...

격세감이 가슴을 치는것을 느끼며 그의 시구절들을 다시금 음미해볼수록 시인의 로쇠는 결코 나이와 건강상태가 주는것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신념과 지조가 불변하고 민족적량심이 결백할 때 몸은 비록 늙을수 있어도 시는 결코 늙을줄 모른다는 인생의 진리를 시인은 자기의 한생으로 가르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

그들의 가슴을 조용히 헤쳐보면 갈피갈피에 모진 수난과 학대, 시련속에서도 지켜온 얼마나 강한 조국애의 추억이 깃들어있을것인가.

지금 9월의 이 아침 총련의 모든 작가들은 물론 70만 재일동포들도 바다 건너 조국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자신들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고있을것이다.

일본땅 한가운데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자랑차게 존엄높이 휘날리며 경축집회와 다채로운 행사들을 펼쳐 어머니조국의 창건절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을 그들을 그려보느라니 생각이 깊어진다.

언제나 조국과 함께 숨쉬며 조국을 안고살기에 사나운 반총련탄압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살벌한속에서도 그들은 꺾이지 않는 버팀목을 높이 들고 공화국의 공민된 권리를 지켜 싸우고있는것이다.

그들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속에 또 한편의 시구절이 떠오른다.

새날은 비록 겨울이지만 나에게는 귀중한 조국이 있기에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사로운 봄을 느끼며 《일을 떨군 앙상한 가지와 마른 잔디에서 움트는 새싹을 예감하며 누군가에게 살짝 귀띔해주고픈 가슴으로 본 희망의 새봄》을 찬미하고있는 시인 김지영의 시 《새날을 맞이하여》에서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은 절절히 울리고있다.

조국이 없는 이국살이신세라면 그 무슨 한조각의 희망인들 있겠는가. 그러나 시인에게는 조국이 있고 우리 장군님이 계시기에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르는것이며 엄동의 겨울에도 가슴속에서는 봄을 느끼는것이다.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삶의 품으로 노래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품속에서 뿌린 씨앗이 파랑게 싹터 튼튼한 뿌리 내려 울창한 숲을 이루고 한송이 꽃이 되어 피리라는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따듯하면서도 소박한 심정으로 노래하고있는 그 절절한 심장의 토로에 이 마음도 뭉클해진다.

멀리 조국을 그리며 이 아침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을 수많은 모습들이 눈앞에 어려오고 그들의 절절한 마음이 시구절을 타고 내 가슴속에 흘러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김학렬의 시 《손녀운동회》, 녀류시인 오홍심의 시들도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조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은 그저 바다 건너에서 그리며 우러르기만 하는 그런 정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속에, 삶과 투쟁속에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것이 력력히 안겨온다.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들먹이며 이역만리 먼곳의 그들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그리노라니 십여년전 일본에 갔을 때 자기들의 앞으로의 창작결의를 피력하던 그들의 모습들이 선히 떠올랐다.

자기 창작도 중요하지만 총련작가의 대를 이어놓는것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과제라며 그야말로 밑거름이 되어 더 많은 싹을 키워내고야말겠다는 1세작가들의 결의에 이어 기둥이 되어야 할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있다면서 살림도 꾸리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는것이 부모의 임무인것처럼 창작도 어길수 없는 의무로 여기겠다는 2세들의 맹세, 그런가 하면 조국을 받드는 심정으로 한달에 두편이상은 꼭 쓰고야말겠다는 3세, 4세들인 김운순, 립수옥, 배계순, 신경훈동무들의 열정에 찬 목소리가 다시금 내 심장을 울려주는 것을 어쩔수 없다.

《애국적인 삶이란 무엇인지,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오늘도 생각하고 래일도 생각하며 일본에서 사는 우리만이 쓸수 있는 글을 쓰고저.》, 《일본에서 살았다, 썼다, 죽었다.》라고 자기들의 창작결의를 나의 수첩에 남겼던 강태성, 리상민동무들의 글발들이 지금도 선히 눈앞에 밝혀와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정답아 다시금 불러보게 된다.

조국에서와는 달리 매 사람이 다 직업에 매여있어 현역작가라고는 단 한명도 없는데다가 글을 발표해도 원고료 한푼 쥐지못하는 이들이 어찌면 글을 쓰기 위해 심혼을 불태우며 그토록 아글타글 할가 하는 생각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짐을 어찌할수 없다.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창작을 조국을 위해, 동포들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자기들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고있는 열렬한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움을 어찌할수 없다.

언제나 조국과 함께 숨쉬며 박동을 맞춰나가고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이 아침 어떻게 하면 새로 쓰고있는 총서작품에 그 바람세찬 이역땅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역세게 싸워나가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투쟁을 그대로 보여줄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모태기고있다.

이역만리에 살면서도 언제나 조국과 함께 살고있는 총련동포들의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면서 9월의 이 아침 나는 어머니조국을 그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합쳐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고마움에 젖어 심장으로 불러본다.

조국이며,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어머니조국이며!

아름다운 금수강산

백두산

아아한 메부리 높이도 솟아
삼천리를 한푼에 걸어안고
눈부신 해돋이로 온 누리를 감싸안은
백두산, 백두산

올라서니 구름은 발을 적시고
치여들면 머리는 하늘에 닿네
수수만년 변함없는 조종의 산
이보다 높은 산정 세상에 있을가

온 세상을 한눈에 다 굽어보는
민족의 자랑을 예 올라 살펴보니
아, 백두산은 김대장의 피 어린
빨찌산력사우에 받들려 서있구나

금강산

바다위에 불쑥 아침해 눈부시니
골마다 내려쬐는 은구슬 금구슬
일만이천봉이가 빛을 뿜어
붉고붉은 노을의 자락을 없네

맑은 정기 하도 깨끗해
그 자태 하도 용용해
아침해도 한가슴에 품어안으려
곧추 먼저 이리로 달려오는가
아 내 나라의 저 금강산이 없어봐라
이 땅의 빛이 이리도 밝을수 있으랴

묘향산

손잡고 껴안고 덩굴며 흐르던
아름다운 묘향산의 오향수 물줄기
그 어이 다투며 헤어지느냐
그 어이 부딪치며 갈라지느냐

떨어져 다섯 육조 천연바위그릇에
차랑차랑 맑게 고여 넘치는 오향수

박상민

한줄기 물로야 향산자랑 못다해
다섯갈래 갈라지며 오향수로 뿜내누나

칠보산

반가워라 내칠보의 아름다운 단풍이여
내 끓이던 쇠물이 펴쳐졌는가
정가로운 바람결에 억만잎새 나뭇기며
어서 오라 용해공을 반겨주누나

꿀짜기 맑은 물에 황황 타는 붉은빛
거대한 쇠물바다 골안에 덮인듯
금시라도 쇠물냄새 물썬 풍겨와
불노을 젖고싶은 용해공의 마음이어

장수산

장수산 탐승길은 계곡 십리 절벽 십리
봉우리 오르고 골짜기 내릴 때
생각은 간절해도 골라잡지 못하겠네
지팡이가 감 꺾으면 명산의 흠될가봐

×

—탐승길에 처녀동문 더 예뻐졌구만
—아이참, 아바이는 더 젊어보여요
예뻐진 값 젊어진 값 무엇으로 갚겠소
돌아가면 일 잘해서 혁신자가 됩시다

×

오정로

김봉운

명산풍경 감탄끝에 입을 모아 하는 말
장수산을 넌쩍 지고 고향으로 갈거나
아서라 내 나라는 어디 가나 금수강산
제고장도 공들이면 천만사람 찾아오리

김정삼

최문식

세기를 넘어 울려퍼지는 조국찬가

-가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두고-

류윤화

9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펼쳐준 저 하늘가에 울려 퍼지고있는 조국찬가는 60년전 이 땅우에 처음으로 인민의 나라, 민주의 나라, 자주주의 나라를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날은 삼천리강산에 차고넘치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쁨과 감격을 담아 울려퍼지던 가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반세기가 훨씬 지났으나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날의 환희로운 감정을 뜨겁게 추억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이 오늘도 부르고 래일도 부를수 있는 노래,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세상에 길이 전해지는 노래라야 진실로 가치있는 예술이라고 할수 있다.》

가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주체37(1948)년 창작, 김우철 작사, 박한규 작곡〕는 어제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즐겨불렀고 오늘도 즐겨부르고 있으며 래일도 즐겨부를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송가이다.

이 가요가 진실로 예술적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는것은 가사에 진정한 자기 조국을 가지게 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에서 가장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일반화하였기때문이다.

가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인민의 나라, 민주의 나라를 찬양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보다 승화시켜 이러한 나라를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다시 말하여 가요는 단순히 나서자란 조국에 대한 찬양의 감정을 노래한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된 참다운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노래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가요의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예술적일반화의 높이가 있다.

가요의 1절에서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진정한 민족자주독립국가를 가지게 된 우리 군대

와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있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후렴)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가요의 1절은 공화국이 창건되던 시기의 력사적환경과 공화국의 기치밑에 새로운 생활창조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던 시기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미제는 피뢰들을 사촉하여 남녘땅에 식민지단독《정부》를 세우려고 미쳐날뛰었으며 일부 불순분자들은 부르조아공화국이나 쏘베트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 진정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신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우에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부강한 나라, 우리 공화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인민의 나라이며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합법적인 유일한 민족통일정부이다. 이에 대하여 가요에서는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우리 조선은 하나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삼천만》 우리 인민은 《새 기발 높이》 들고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감격을 노래하고있다.

인민의 줄기찬 힘 하나로 뭉치여
새 나라 헌법을 로력으로 세웠다
초목도 나뭇기라 이날의 승리를
조선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다
(후렴)

2절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인민정권을 세우고 진정한 참된 권리와 행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형의 헌법을 가지게 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초보적인 생

존권도 유린당하면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이 아니었던가? 해방의 기쁨과 함께 두주먹뿐인 노동자들을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송곳조차 박을 땅이 없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주며 봉건의 질곡에서 해매던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안겨준 우리의 헌법, 인민의 헌법.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던 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채택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고 또 울렸다. 2절에서 바로 이러한 벽찬 현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치여/새 나라 헌법을 로력으로 세》운데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3절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남북이 힘을 합쳐 원썬놈들을 쳐부실데 대한 사상을 노래하고있다.

오탁은 물결치고 증산은 빛나오리
북조선건설을 새 조선의 토대로
남북이 힘을 합해 원썬를 부시자
조선은 부강한 민주주의나라다
(후렴)

조선은 하나이다.

가요에서 이 사상은 전반에 걸쳐 노래되고있으나 3절에서는 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밝히고있다. 가요는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공화국북반부라는것을 강조하면서 공화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결의를 담고있다.

3절에서는 공화국이 창건될 때부터 조국통일을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에 기초하여 《북조선건설을 새 조선의 토대로/남북이 힘을 합해 원썬를 부시자》라고 노래하고있다.

4절에서는 3절에서 양양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뜨겁게 구가하면서 《우리의 대표로 중앙정부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강위력한 나라로 빛내일 결의를 보여주고있다.

권리는 인민에게 최고회의 열어서
우리의 대표로 중앙정부 세우자
민족의 영웅이신 장군님 받들어
조선은 동방에 빛나는 나라다
(후렴)

가요의 4절은 1절과 2절, 3절에서 축적되어오던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조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양양된 사상정서를 격조높이

폭발시키고있다.

《민족의 영웅이신 장군님 받들어/조선은 동방에 빛나는 나라다》!

바로 여기에 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의 핵이 있으며 오늘도 선군시대의 조국찬가로 불리우고 앞으로 영원히 불리워질 가요로서 형상세계의 생명력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선군혁명의 길을 걸고 걸으신다. 바로 이 길에서 울려 퍼지고있는 《인민 공화국선포의 노래》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진 노래가 아니겠는가.

노래를 부르노라면 자주적인민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력사적인 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군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발자욱이 눈앞에 어려온다.

가파로운 오성산의 령길, 파도사나운 초도의 배길, 눈덮인 자강땅의 수수한 갈림길들과 삼복절강행군길의 굽이굽이...

가요의 서정구조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내 조국을 빛내여갈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과 군대와 인민들의 정서적지향을 노래할수 있도록 짜여있다.

가요는 4개의 절로 되어있으나 사상정서적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있다.

1절과 2절에서는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환희로운 감정을 노래하고있으며 3절과 4절에서는 창건된 우리 공화국을 부강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빛내여갈 결의를 노래하고있다. 참다운 공화국이 창건되는 날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1절과 2절에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감정정서를 노래하였다면 창건된 공화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빛나는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울 결의를 담은 3절과 4절에서는 진정한 조국번영의 길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따라 나가는 길이며 이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정을 다할 감정과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서정구조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공화국창건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수 있게 하고 있을뿐아니라 가요의 밝고 희망차며 열정적인 감정정서의 론리적인 흐름에도 잘 어울리고있다.

가요의 후렴구인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는 매 절의 사상정서적흐름에 맞물려있으면서도 총체적으로는 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뚜렷이 강조하고있다.

가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가요로 되고 있는것은 공화국창건이라는 사회정치적으로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적극 탐구 리용한것과도 관련된다.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초목도 나뭇기라 이날의 승리를》 등과 같은 자리바꿈법, 《삼천만은 나섰다》, 《남북이 힘을 합해》와 같은 환유법, 《산천도 노래하라》와 같은 의인법 등은 가사형상을 고도로 함축하고 간결하게 할뿐아니라 깊은 뜻과 풍부한 정서를 담보하여준다. 특히 후렴을 매 절마다 반복하여줌으로써 가요의 사상정서가 음악적인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하고있다.

정론성이 강한 가요의 내용에 맞게 시어를 탐구리용한것도 가사의 예술적형상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 요인의 하나이다.

가사는 노래를 부를것을 전제로 하여 씌여진 짧은 시인것만큼 한번 듣고는 그 내용이 제격 안겨울수 있는 알기 쉽고 통속적인 시어들을 탐구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적표현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노래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다. 정치적

상성이 강한 노래일수록 정치적표현을 피할것이 아니라 가사형상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어를 탐구해야 한다.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는 정치사상성이 강한 가요로서 가요의 특성에 맞는 정치적표현을 옹계 탐구해야 한다.

《인민공화국》, 《새 기발》, 《헌법》, 《최고회의》, 《중앙정부》 등의 어휘들은 형상성보다도 정치성이 강한 어휘들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가사에서 이러한 어휘들은 공화국창건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격과 환희 그리고 새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일떠세우려는 시대적지향을 노래하는데서 그 표현이 적중하며 정확하고 섬세하고 예리한것으로 하여 강한 정서적감화력과 정론적인 호소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참으로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세기를 넘어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이 노래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아래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가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이 노래 울려가는 9월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르리라, 푸르리라!

큰길우에 소달구지 한채

한원희

해방된 어느해 가을
압록강기슭의 신작로우에
김일성장군님 모신 승용차 달리고있었네
차창밖엔 가없이 펼쳐진 벌이
들가득 호함진 벼동가리 안고
장군님 반기듯 마중오고있었네

문득 큰길을 가로막고 서있는
소달구지 한채소는 한가스레 새김질만 하고
주인은 길가 잔디밭에 누워
세상이 제집인듯
태평스레 자고있었네

장군님 가시는 길에 이 웬일인가
운전사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런거퍼 경적을 울리는데
조용히 그를 만류하시며
천천히 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셨네
달구지에 실려있는 재봉기며 라디오
해방덕에 늘어난 재산들을 보시며

웃으시었네 기쁘시여 웃으시었네
그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자면서도 웃고있는 농민을 보시며
대추빛처럼 불그스레 피어난 얼굴이며
새로 지어 입은듯 한
흰 무명바지저고리와 까만 조끼를 더듬어보시며

—저 농민이 기분이 아주 좋았소
해방덕에 새옷을 지어입고
새 가장집물도 사고
너무 기뻐서 한잔 한것 같소!

행복에 취한 농민이 깨여날세라
장군님은 나직이 말씀하셨네
인민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길을 비켜 가자고
몸소 소고삐를 잡으시고
달구지를 길섶으로 몰아가셨네

아, 일제의 백만대군을 무릎 꿇리고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장군님우리 인민에겐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며
건국의 앞길을 열어가셨네
세상에 다시 없는 인덕으로
천하를 얻으시고
새 나라 새 조선을 세우셨네!

어머니! 인사를 받으시라

김은희

나의 어머니의 출생년도는 우리 공화국이 탄생한 해와 꼭 같다. 주체37(1948)년.

별이 많고 바다도 끼여 물산이 풍부한 고장이자 소문난 황해도땅에서 살았지만 나의 어머니의 조상들은 밥술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자그마한 키에 딱바라진 어깨를 가진 바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제땅이 없어 남의 집 머슴도 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날품팔이로 굶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해방을 맞이하여 비로소 제집이란것에 몸을 담고 제땅에서 농사지며 제 쌀로 밥을 지어먹는 꿈아닌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꿈처럼 맞이한 세상이 좋고 그 세상에서 흐르는 세월이 좋아 마당가에 분배받은 쌀가마니를 처마에 닿게 쌓아놓은 어느해 가을밤, 거나하게 취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보, 우리 애를 하나 더 낳지요.》

《예? 아니...》

어마지두 놀란 할머니의 대답점 물음이었다.

그렇만도 하였거니 내 어머니 우로만도 자식이 다섯이나 되었던것이다.

할아버지는 항변을 들이대려는 할머니의 입을 막듯 커다란 손으로 할머니의 무릎을 꼭 누르며 또다시 말했다.

《말마오. 당신 마음은 내가 잘 알지. 하지만 지난 세월에는 자식이 눈물이었지만 앞날엔 자식이 웃음일게요. 그러니 여러 말 말고 우리 애를 하나 더 낳지요. 이렇게 좋은 세월 다 가기 전에 그 애를 낳아 실컷 웃어보며 살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행복한 앞날을 소원하여 낳은 막내자식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하여 나의 어머니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던 자랑스런 해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얼마전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의 생일 60돐을 맞으며 한자리에 모여앉았었다.

자식이라야 갓 세간들을 따로 낸 오빠와 나, 둘의 식구들이었다.

우리는 자식들 뒤바라지에 머리흰 부모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술 한잔 부어올렸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잔을 받아들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애들아. 고맙다는 인사는 우리 조국에 드려야 한다.》

어머니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깊이 잠기던지...

그랬다. 돌이켜보니 나의 어머니는 우리 조국의 운명과 꼭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도 말할수 있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처음으로 시위하던 자랑스런 해에 출생한 어머니를 할아버지는 그토록 귀여워하고 사랑해주었다고 한다.

농사는 년년이 풍작을 이루어 초가집도 기와집으로 이영을 바꾸고 라디오까지 사다놓은 흥그러운 생활에 딸까지 태어나 녀야말로 복동이로다 하며 할아버지는 막내자식을 밤이면 옆에 누이고 팔베개하여 잠을 재웠다.

정말 세월이 좋으니 자식은 웃음이고 기쁨이었다. 그야말로 늙어 본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어진다고 걸음마 떼서 고와, 이발이 하나 나와도 고와, 첫말로 아빠를 찾았다고 대견해 이래저래 끔찍이 사랑하던 할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원호에 팔걸고 나셨다.

말이와 둘째 두 자식을 인민군대에 내보내고 나이가 모자라 군대에 못 나갔다고 입이 한발이나 나와가지고 툄툴거리는 《선비》셋째아들은 꿈무늬에 달고 도로복구장이며 읍이며 어디나 다 다니던 할아버지는 어느날 셋째에게 이렇게 혼시켰다고 한다.

《일없다. 셋째야, 보채지 말아. 네 똥은 얼마든지 있다. 강도놈들이 우리 세상을 먹어보려고 미친짓을 하는데 한사람이 쓰러지면 다음사람이 대신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 법이야. 기어코 끝장을 봐서 우리가 꼭 이겨야겠는데 그래 네 할 일이 없을가봐 그리 몸살이냐?》

그렇게 공화국의 세상에서 궁지높고 호걸스럽던 할아버지는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모범 농민이라 하여 《치안대》놈들에게 피살되었다.

조국이 귀중함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공화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시기에 나의 어머니의 가정은 할아버지와 외삼촌 둘을 나라에 바쳤던것이다.

승리로 결속한 조국해방전쟁후 어머니의 운명은 추위를 물리치고 새봄을 맞이한 조국이라는 화원의 한송이 꽃망울이었다. 그야말로 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 때 함께 울고 조국이 번영의 개화기를 맞이할 때엔 활짝 피어 웃는 같은 운명의 길을 걸었다.

그 길에서 어머니는 가문에서 처음이라는 대학도 졸업하였고 교수, 박사의 영예도 지니었다.

조국과 함께 걸어온 어머니의 운명.

나는 많은것을 깊이깊이 생각해본다.

《애들아, 우리 조국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을 이렇게 강성부흥의 나라로 이끌어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어머니의 운명도 이처럼 행복할수 있겠니?

그러니 행복한 이 어머니와 함께 조국에 인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한번도 떼어놓고 생각해보 적이 없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60년!

이 조국 청사의 감피감피에 얼마나 많은 만단 자연이 깃들어있는것이며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이에 대한 노래 다 부를수 있을가.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면 아픔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천만자식이 공화국의 번영을 길이 넘원해 몸과 마음 다 바쳐 조국을 살찌우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싸웠으며 조국이 영광을 떨칠 때면 함께 긍지높게 《애국가》의 노래를 불렀다.

《나》라는 개인이 따로 없는 우리 조국!

한집안의 가장이 든든해야 가정의 화목하듯 수령복을 대대손손 누리며 어려움속에서도 더욱 로속해지고 강해진 우리 공화국!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을 떼어놓고서는 성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승승일로에 대하여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 계시며 진짜 조국,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우리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명실공히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며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함부로 범접 못하는 위엄스런 선군의 강국으로 번영의 세월을 펼쳐가고있거니.

우리는 우리모두의 운명을 품에 안아 보살피주는 어머니조국에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드려야 한다.

승리와 영광의 60년을 기록하는 우리 조국에 수천만 아들딸들은 인사를 드린다.

위대한 어머니조국이여! 인사를 받으시라!

사회주의에 부칩니다(외 1 편)

박항미

내 병원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나의 침대곁에는
간호원처녀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가엔
맑은 샘이 가득 고여있었습니다

그다음엔
온 병원이 달려왔습니다
나의 소생이
그들에겐 그토록 큰 기쁨이고 행복인듯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고마움에 목메여
침대우에 얼굴묻는 나에게
간호원처녀는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나의 몸엔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있다고
나의 심장은
그들이 이어준 숨결로 뿔뿔하고있다고

아 뜨거움에 젖어
저도몰래 가빠오르는 숨결
그들— 고마운 나의 은인들은 누구입니까

어느새 나의 마음 다 알은듯
간호원처녀는 생긋 웃으며 말을 합니다

이름도 주소도 알수 없다고
다만 그들이 남기고간것은
꼭 살려야 한다면 절절한 부탁뿐이라고

이를 어찌합니까
나에게 피를
아니, 목숨을 주고 간 사람들
찾아왔을 땐
의식을 잃어 알수 없었고
의식을 차렸을 땐
떠나가버려 더더욱 찾을수 없는 그들을
나는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나의 형님이요 누이이라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삼촌이라고
서슴없이 피를 주고 간 사람들
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던 그 순간에
나의 가장 가까운 친혈육이 되어준
그들이 진정
나의 형님이요 누이이고 삼촌이 아니란 말입니까

찾을래야 찾을수 없고
알래야 알수 없는
하지만 꼭 찾아야 하고 알아야만 하는
고마운 사람들의 주소
나는 이 주소를
고마운 내 조국— 사회주의에 부칩니다

사랑의 이야기

퇴원하는 이 시각
나의 손엔
지팡이가 쥐여져있습니다
두메산골 그 먼곳에서 평양까지
나의 어머니 교이 안고온 지팡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 불러오는 지팡이입니까
다시는 대지를 확보할수 없다면 이 몸
이 아들의 모습을 눈물속에 떠올리시며
나의 어머니 품에 껴안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룬 지팡이입니다
이 아들에게 주시는
어머니의 웅심깊은 사랑입니다

아마도 20여년 세월
이 자식을 자래우며 흘린 눈물보다
그밤에 흘린 눈물 더 많을겁니다
나를 키우며 나누신 말씀보다
지팡이와 나는 이야기 더 많을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보십시오
나 자신도 믿지 못했던
낳아준 어머니조차 믿지 못했던
나의 두다리가
나를 이렇게 떠받들고있습니다

꿈만 같아
그저 꿈만 같으시여

나의 두다리를 붙안고 우시는 어머니

저기 보십시오
내가 지어야 할 옷음을 제가 짓고
내가 겨워야 할 행복에 취해
문가에 웃고선 간호원처녀

바로 이들입니다
내 피로움에 시달려 잠 못 이룰 때
기나긴 밤을 함께 뒤척인 사람들
나의 어머니 눈물속에 지팡이 어루쓰실 때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어
나의 두다리를 대신해준 사람들

나는 버립니다
나와 함께 갈수 없는
이 지팡이를!
은혜로운 대지가 나에게 준
사랑의 권한으로

이 아들을 부축하여 나셔야 할 병원문을
오히려 이 아들에게
몸을 푹 말긴채 나서는 어머니
내 여직껏
더없이 크게만 느껴온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도
고마운 사회주의앞에선
그만 목매여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의 기발

(남조선) 최형

여기서
백두산 메부리 뻗어내려
기막히도록 우뚝우뚝 솟아오른 줄기마다
어서 펴력이자 하나의 기발을!

한피줄 한몸이 어거지로 갈라질 때
우리는 엉뚱한 우김질을 보았고
그 피울음소리 수태 들어왔다
두동강난 마음은 피바다로 내닫는것도
우리모두 겪었다

기나긴 세월 서로가 저 바다에 기폭을
휘저대었으나
이내 북과 남이 하나된 광장에서
조국땅을 그린 기폭이
흔들리기 이르렀다

이래서 마침내 《6.15선언》과 함께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한
수레바퀴는
이제 누구도 되돌릴수 없을터이라

비록 제아무리 날고 기는
발통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저 밀고 밀려오는 파도를 보라
눈물나도록 그리운 아우성을 듣거라
한바다 거세찬 맥박인것을!

하여 질푸르게
몽뚱그러진 천지못얼을 이어
삼천리 이 강산 굽이굽이에
아 어서 휘날리자
하나의 기발을!

단편소설



김대원

…한낮의 가을별은 따스했다. 오가던 각종 자동차들이며 행인들까지 모두 거리 한가운데 높다랗게 세워진 대형전광텔레비존앞에 멎어서서 움직일 줄 몰랐다.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소식이 텔레비존화면으로 방영되고있었다.

모여서있는 군중들속에 끼워 가족들과의 상봉에 이어 천천히 차에 오르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조는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며 사람들속에서 빠져나와 멀리 분계선쪽을 향해 돌아섰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송닥아내며 저도 모르게 한걸음, 두걸음 북쪽을 향해 걸음을 내어짚는 그에게로 기자들이 다가왔다. 그제야 자신을 되찾은듯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옷매무시를 바로잡는 그를 향해 호기심 어린 기자특유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

《저의 이야기가 소설이 될지, 어떤 신문기사감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조는 텔레비존화면으로 북쪽을 향해 멀어져가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태운 차들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

×

그 봄날은… 아침부터 막 기분이 흥떳습니다. 이북자식들의 성화로 향촌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가보게 되는 귀향길이라는 리유가 아마도 철부지소녀처럼 나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모양입니다. 행장을 꾸러가지고 차에 올라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나의 머리속에 어린시절에 새겨진 향촌에 대한 추억이 저도 모르게 환히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향촌에 대한 추억은 류다른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할 때면 언제나 그러하듯이내 마음속에는 숲속 나무잎새들에서 떨어지던 이슬방울소리가 먼저 들려오곤 합니다.

한방울, 두방울… 그 소리가 마음속에 감득될 때, 속절없이 떨어지는 연분홍살구꽃잎을 밟으며 봄의 환희에 취해 유정한 시내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그 아름다운 자연의 여음속에서 나는 지나가버린 시절의 애틋한 추억과 랑만의 속삭임에 가슴 아릿해지곤 함을 느끼곤 합니다.

고향, 고향… 공주근교의 삼성리!

충남의 천년송을 머리우에 띠이고 솟아오른 삼성산을 진산으로 동서남북 병풍처럼 둘러선 금계산, 국사봉… 남쪽을 바라보며 칼을 내어짚는 옛장수마냥 깎아지른듯 한 절벽을 드러내고 위엄있게 솟은 천왕봉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골짜기사이로 굽이굽이 순하게 흘러내리던 온양천의 쪽빛흐름, 그 시내가에는 어린시절 소꿉놀이의 추억들이 너무도 애틋하게 깃들어있습니다. 그 쪽빛물에 수건을 담그었다 꺼내면 꼭 푸른빛으로 물들것만 같아서 열심을 내어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행구어내던 일, 아무리 애써도 푸르게 물들지 않는것이 펍 이상하게 생각되어 고개를 가웃거리곤 하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해와 《현대화의 물결》로 한해한해가 다르게 그 아름다운 산천풍경이 사라져가고있지만 …

사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마음속 끝에 매달려 그들을 던져주는 남동생만이 홀로 남아있을뿐 부모들은 물론 일가친척 하나 남

아있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 역시 이곳에서 중학을 마친 후에 서울에 올라 대학을 졸업하고 로chner생활이 지겨워 시집을 간 다음에는 십여년이 지나도록 별로 발길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와본적이 있다면 대학졸업 후 중학교교사노릇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삼아 몇번 왔다간것이 전부였습니다.

차가 갑자기 속도를 죽이는 바람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차창밖을 내다보니 금강다리를 건너선 차가 공주시내에 들어서고있었습니다. 서쪽으로 옛 백제왕릉이 바라보이고 동쪽으로는 차령산줄기의 봉우리들이 미구하여 한줄금 쏟아부을듯싶은 흐릿한 운무속에 우뚝이 안겨왔습니다.

공주시내 남동쪽으로 뻗어간 차령산줄기가 금강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갈라진 계룡산지 한끝에 바로 나의 고향 삼성리가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어릴때 고향들은이들의 말을 들은 기억에 의하면 고려 초기에 이 일대 촌락들에서 민란이 자주 일어나곤 했는데 이를 가증스레 여긴 임금이 이곳 사람들에게 짐승의 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일대에는 우가, 마가, 돈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고장들에서는 흔한 김가, 리가, 박가 등은 이곳에서는 거의 희성이라 할 정도로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발미로 되어 아마 마을이나 진산에도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원, 문명시대에 아직도 이런 길이 남아있다니?!...》

운전대를 잡은 우상전이 투덜거렸습니다.

우상전은 나에게 사촌동생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모방직회사를 경영하고있는 그는 비록 공부하는 하지 못했어도 타고난 천재술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경영경험으로 그리 굳세지 않게 회사를 꾸려나가고있었습니다. 인심 또한 파히 박하지 않아 친척들에게까지 적선을 베풀곤 하는때가 드문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그 걸음도 결국은 그의 적선의 혜택을 입는 길이였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서른여섯살이 넘은 로chner의 몸으로 선살이 넘은 은행업자의 후실로 들어갔던 나는 넷씩이나 되는 전처자식들의 물리해로 술한 마음고생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물리해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증축해지는가보다 했는데 진정한 부부간의 정은 없었으나 그런대로 관계를 유지해오던 남편이 얼마전에 일흔이 불원한 나이로 세상을 뜨자 그 유산상속문제로 또다시 불화의 도화선에 불이 당긴셈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루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세상에서 유산상속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있는터인지라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리해가 되긴 하지만 술가락 한개까지도

놓치지 않고 제 주머니에 넣으려는 전처자식들의 후안무치에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저리를 떨지 않을수 없었을것입니다. 그들의 성화에 견디다못해 하는수없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삼성산골짜기의 록폴이라 부르는 우상전의 사슴목장에로의 피신이었던것입니다. 한 1년이나 2년쯤 가있다 오면 그들의 성화가 찾아들리라고 타산한때문이였습니다.

우상전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목장은 한때는 꽤 번창하여 어지간히 큰 목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인 우상전이 서울모방직회사에만 신경을 쓰는데다가 맹수들과 도적사냥군들의 습격으로 마리수가 꺾 줄어 목장의 형세를 겨우 유지하고있는 형편이였습니다. 목장관리인원들도 이전엔 일여덟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수위 겸 관리원격으로 칠순에 가까운 독신령감과 마흔살에 가까운 병어리로총각 순룡이만이 제손으로 때식을 굶어먹으며 골개물소리를 벗삼아 한적한 산골생활을 하고있을뿐이라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신령감이 비전향장기수라는 우상전의 말을 듣고나니 록폴에로의 걸음이 섣뜻 내걸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말 못하는 순룡이는 그렇다쳐도 그래도 마음을 맞춰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빨갱이》 출신이라니... 나는 내심 여간 근심스럽지 않았었습니다.

《누이, 이제라도 재가할 생각이 없으시우?》

이것은 우상전이 나에게 록폴목장을 소개한 뒤 끝에 뜨아해하는 내 마음을 눈치채고 여담처럼 물어본 말이였습니다.

평소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없이 흘러간 내 인생에 대한 후회와 용모나 나이에 비추어 생각해볼 때 아직도 새생활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터라 은근히 호기심이 동해 말꼬리를 이어보았습니다.

《롱담두... 그래 내게 어떤 사람이 적중할것 같으나?》

《에라, 내 또 한번 적선을 베푸는셈치구 혼담에 나서봐? ... 다른 사람이 아니구... 우리 목장에 있는 그 독신령감 말이요. 지금 시체말루 그 뭐라드라... 그렇지, 비전향장기수령감 말이요. 나이는 좀 많은감이 있지만 아직도 젊은이 못지 않은데다가 얼마나 미남인줄 아시우?... 게다가 말없구 일 잘하구... 한마디로 사람이 시원시원한게 대틀이지요.》

우상전은 손가락까지 꼽아가며 나에게 열심을 보였습니다.

《뭐라구?! ... 그럼 《빨갱이》 령감하구...아니... 아니, 난 싫다애. 《빨갱이》 라니 원 당치도 않은 소릴...》

내가 손사래를 치며 도리머리를 젖자 우상전은 제 성미 그대로 큰소리로 웃어제졌습니다.

《아니... 누이두 참...이렇게 답답하다구야...아, 그런 사람이 《빨갱이》 라면 나두 《빨갱이》 가 되겠습디다. 하긴 백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직접 만나 상대해보면 내 말이 무슨 소린지 깨도가 될겁니다.》

차가 산길에 들어섰는지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시창을 내다보니 웬 젊은이 한사람이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내어뻗친채 서있는것이 멀리로 바라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니 등에 진 등산배낭과 제껴쓴 등산모, 한쪽어깨에 걸뎌 화판으로 미루어보아 혹시 산수화나 풍경화를 그리려고 명산대천들을 찾아다니는 화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길... 이젠 다 왔는데 여기서 타자고 하면 어쩐단 말이야?》

우상전은 투덜거리면서도 차를 세웠습니다. 가는데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자고 사정하는 그 사람은 내가 짐작했던대로 화가가 옳았습니다.

어지간히 많아보이는 짐을 끄짚거리며 차에 올라실은 그가 어깨에 걸뎌있던 화판을 벗어 들고 뒤좌석에 오르느라 덤벼치는 서술에 그만 그안에 끼여있던 그림종이장들이 와르르 쏟아져내렸습니다. 승용차안팎으로 쏟아져 흩어진 종이장들을 주어모아주던 나의 눈길이 붉은색조가 짙은 한장의 화보그림에 멎었습니다. 분명 외국명화들을 수록한 어느 화첩에서 펴 인상강게 보았던 그림 같은데 그림의 제목이랑 그림을 그리게 된 비상한 사연이나 동기 같은것들이 꼭 있었던것으로 생각되어 한참이나 기억을 더듬어보았으나 인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좌석에 올라앉아 내 모양을 바라보던 화객이 그림이 마음에 들면 가져도 좋다고 사람좋은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나서 다시금 그림을 들여다보았으나 역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끼끓일 쌀이 없어서 장선생이네이 까매서 기다릴텐데...》

우상전은 마음이 조급한듯 점차 차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가 속도를 높이자 차는 더욱 들추었습니다.

돌서덜길로 달리던 차가 로상에서 화객을 내려놓고 미구하여 벗어선 곳은 골개물이 감돌아흐르는 산기슭에 남향으로 자리잡은 나지막한 삼간기와집앞이었습니다. 기와집이래야 낡은 세멘트기와 몇장과 스펀트장을 섞어 대충 비나 안 새게 덮어씌운데다가 이곳저곳 진흙으로 매질한 자리가 보이는 겨우 짙어영신세나면한 토벽집이었습니다.

차가 나타나자 왕왕 짚어대던 털이 북슬북슬한 얼룩강아지가 차에서 내리는 우상전을 보자 꼬리를 저으며 달려나와 반겼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

마당이며 집안팎을 훑어보고난 우상전은 혼자소리로 투덜거리며 사슴사쪽으로 가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음, 저기 있었군.》

시내가 맑은물에 두손을 고이 잠근채 구구구— 울며 날아가는 산비둘기들을 바라보던 나도 우상전이 바라보고있는쪽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앞산 중턱에 평—하니 뚫린 동굴아구리가 유묘하게 시야에 안겨왔는데 그 굴앞 낮게 떠도는 구름발사이로 사슴떼가 넘어오는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이어 동굴앞 나지막한 바위우에 올라서서 회초리를 들고 이쪽을 바라고서있는 사람의 모습이 뽀얀 구름발속에서 우뚝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구름발에 휩싸여서인지 온통 허영계만 보이는 그 사람의 형체는 꼭 어린시절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하늘나라 신선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저기 있었군. 그런데 순룡이 녀석은 왜 안 보일까?》

우상전이 토방돌우에 걸터앉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동안이 지나 사슴무리를 이끈 그 사람이 내앞을 지날 때 나는 그에게서 풍겨오는 쉼향내 비슷한 냄새가 나의 후각을 아릿하게 자극함을 느꼈습니다. 그 냄새와 더불어 나는 나의 가슴이 이상하리만치 후두두 떨림을 감각하며 저도 모르게 두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무슨 냄새였을까? ...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그것은 어릴 때 숲속에 들어가 버섯을 딸 때 맡곤 하던 그 숲향기라고 생각되군 합니다. 문득 기척이 느껴져 다소 달아오른 얼굴로 내려다보니 어느새 다가왔는지 얼룩강아지가 낮이 선 나를 보고 짖지도 않고 내 발치에 쭈그리고앉아 말끄리미나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

그 사람의 이름은 장현산이었습니다. 무척 말이 없는 사람이였지요. 나는 평소에 사람들이 말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괜찮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견해는 좀 달랐습니다.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어도 지나온 인생의 경험으로 본다면 말이 없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진짜로 말을 할줄 알면서도 무거운 입을 가진 사람은 불과 몇 안된다는것입니다. 장현산이 어느 부류에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당시 나로서는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순룡이가 돌아올 때까지 근 닷새동안 둘이 같이 생활하면서 했다는 소리가 고작해야 손으로 꼽아볼 정도였으니까요.

《오실래기 욕했겠습니다.》

평안도역양이 질게 풍기는 그 말 한마디가 처음으로 만난 나에게 던진 그의 인사말의 전부였습니다.

팔소매단추는 물론 옷목단추까지 꼭꼭 채운 낡은 작업복차림, 먼지 한점 새여들어갈세라 깐깐히 동여맨 끈의 길이며 모양새까지 꼭같은 큼직한 로동화, 드문드문 흰장미가 섞인 수북한 눈썹아래 어딘가 모르게 불그스레한 색조가 떠도는

커다란 두눈동자가 바닥모를 그의 마음속 중심을 예기케 해주는듯싶었습니다.

보통사람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장대한 체구, 거무스레한 얼굴색처럼 진한 밤빛의 두툼한 입술, 한번 열리기가 그렇게도 힘든지 별로 말하기 싫어하는듯 한 느낌을 주는 뜨직뜨직한 말투...

여기서 한 십리쯤 떨어져있는 연동마을에서 순룡이한테 혼담이 들어왔는데 처녀 역시 병어리란다. 한두번 만나보더니 이내 마음이 통했는지 그 집 일을 좀 해주겠다고 한 사날 말미를 받고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그 몇마디 얘기를 들으면서야 나는 그 뜨직뜨직한 말투에 배고 동소리같은 목소리조차 얼마나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그는 오금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손발로, 부지런히 놀리는 그 오금으로 무엇인가 말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고적한 산골에서 유일한 말동무로 생각했던 그마저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라는것을 의식하는 순간이면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쳐지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웬일인지 나의 가슴속에는 그에게 그 어떤 자극이라도 주어 말을 꼭 시켜보고싶은 애어린 처녀의 알곳은 심술같은것이 부질없이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찬이 맛있건 맛없건, 밥을 태웠거나 정도이상으로 질척하게 하여 마음을 조이며 칠 벗겨진 소반을 가져다 놔주어도 단 한번도 타내는 기색이 없이 부러울 정도로 맛나게 하는 식사때마다 나의 마음속에는 미안감에 이어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원망감 비슷한 감정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밥을 태워서...》 혹은 《찬이 너무 짜진것 같은데...》 하고 말을 건네어도 상우에 흘린 밥알이나 음식찌꺼기 같은것들을 손가락으로 빈사발에 긁어모아 넣으며 《일없소. 잘 먹었군.》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상을 물리고는 토방돌우로 나앉곤 했습니다. 그 뒤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장현산은 한동안 토방돌우에 앉아있다가는 갓 난새끼사슴의 우리를 들여다보고나서 회초리를 들고 풀을 뜯고있는 사슴들에게로 가곤 했습니다.

참, 새끼사슴소리가 나왔으니 말이지 며칠전 암사슴의 새끼를 받으면서 《참, 용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수월히 분만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뽕갈기도 하고 진말갈기도 한 말을 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던적이 있었습니다. 뭘 그다지나 짐승에게까지 경어를 써가면서 그러나 하는것이 그때 나의 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이 감에 따라 그가 반말이라고는 입에 담지조차 않는 사람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언행이

나 행동이 그 어떤 가식이나 외교적인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점차 그것은 그의 몸에 배인, 그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굳어진 품성으로 안겨왔습니다.

장현산은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밥술갈을 놓기 바쁘게 왼 일손을 해거름이 되어서야 놓곤 했습니다.

사슴을 방목하는 여가에도 년전에 일군 부대기 밭에 심은 각종 남새들과 줄당콩, 강냉이, 감자 등속의 김도 매주고물도 길어다 부어주고, 방목지 군데군데에 놓아둔 토봉통들도 돌아보고... 짬만 있으면 마당구석에 날라다 쌓아두곤 하던 내가의 관돌들이 무엇에 쓸것이였는지를 나는 며칠 후에 허물고 새로 쌓은 부뚜막을 보고서야 알수 있었습니다. 자름자름한 관돌들로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부뚜막은 신식타일을 붙인 도회지 살림집들의 부엌들도 울고갈 정도로 멋진것이었습니다.

순전히 도끼 한가지로 먼지만 풀풀 일던 토방에 널마루를 깔고 밀랍까지 윤택나게 먹여놓았을 때, 후날에 이것을 본 말 못하는 순룡이도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한것은 물론이고 우상전조차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기웃기웃했었습니다.

순룡이는 내가 도착한지 몇새째 되는 날에야 돌아왔었습니다.

십여년전,그러니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차로 이곳에 왔던 내가 오랜만에 보는 순룡이의 모습이 방금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읽었던 라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의 묘사와 너무도 방불하여 슬그머니 가방안의 소설책을 꺼내들고 다시 읽어보며 너무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던 일이 하늘높이 날아예던 산비둘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히 떠오릅니다.

우연한 일치일까?...

이번에도 산비둘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내앞에 나타난 순룡이는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끼끗하고 장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물려준 다 해진 학생복에 신끈도 매지 못한 께진 운동화, 언제 꺾아보았는지 먼지가 뽕얹게 앉은 거푸시시한 머리칼들이 어지럽게 일어난 봉두란발, 상처자국인지, 검댕이칠한 자욱인지 알아보기조차 힘든 검스레한 흉터자욱, 침에 허열게 부푼 두입귀... 이것이 십여년전 나의 머리속에 새겨졌던 순룡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나는 너무도 놀라와 희맑은 얼굴살결이며 짧고 단정하게 올려쥔 머리, 색날은 군복일망정 터진 자리를 꼼꼼히 바느질해 입은 그의 옷매무시를 한동안 넋을 잃은듯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순룡이의 변한 그 모습이 연동마을 처녀 병어리의 소행의 결과라고 속단해버렸었습니다. 그 사연의 진태를 알기까지에는 아직 이곳에서의 세월이 모자란다는것을 그때 내가 다는 알수 없었습니다.

장현산과 순룡이의 관계는 말할나위없이 친밀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현산은 순릉이를 데리고 내가로 나가 내물에 몸을 씻곤 했습니다. 저녁에 역시 하루일이 끝나면 옷등을 벗어제끼고 서로 물을 끼얹어주며 몸을 씻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몸에 배다싶이 한 그들의 일과라는것을 나는 흘러가는 나날과 더불어 석연히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크고작은 빨래는 물론이고 심여일에 한번씩 꼭꼭 하곤 하는 리발이나 해벌에 이불소독 같은것들도 모두 자기들의 손으로 하곤 했습니다.

순릉이는 보매 장현산의 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꼭 그와 함께 물어다녔고 모든 행동거지를 것처럼 하려고 애쓰는것이 험동하게 알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내가 놀랍게 생각한것은 언제 터득했는지 병어리들의 의사소통수단인 손시늬이나 얼굴표정, 몸짓 등을 장현산이 거의다 도통하고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장현산은 언제나 저녁을 먹고난 뒤면 어길수 없는 일과처럼 책을 펼쳐놓고 무엇인가를 쓰곤 하였는데 그것도 한켠에 밀어놓고 밤마다 순릉이에게 우리 글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병어리속은 동네 존위령감도 모른다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묵묵부답의 순릉이에게 글을 가르친다는것은 여간한 인내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라는것을 나로서도 잘 알고있느라였습니다. 그런데 순릉이는 연동마을 병어리처녀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모양이였습니다. 사흘걸리로 연동마을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갈적마다 털이 북슬북슬한 얼룩강아지가 그의 발치에 묻어 따라가곤 했습니다.

몇번 발까지 굴러가며 떼여놓으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할수없이 내버려두면 새빨간 코등을 연송 벌름거리며 부지런히 따라가곤 했습니다. 저녁마다 밤늦게 돌아올 때면 순릉이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이 확연히 기억되는것은 순릉이가 연동마을에 내려간 날인데다가 어찌된 일인지 그 얼룩강아지가 그날만은 순릉이를 따라가지 않았기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보슬비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순릉이를 기다리다가 저도모르게 술곳이 잠들었던 나는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옷방문이 여닫기는 소리가 나더니 장현산이 《누구요?》라고 소리치며 전지불을 켜들고 대문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어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나가던 길손인데 밤이 깊은데다가 비도 와서 그러니 하루밤 묵어갈수 없겠는가고 묻는 젊은이겠다고 생각되는 나그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속하여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민겠는가고 하는 장현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럼 이거라도 보라고 무엇인가를 꺼내보이는 나그네의 행동거지가 련상되었습니다. 한

동안이 지나자 들어가자고 권고하는듯... 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오고...

장현산과 나그네가 옷방에 들어간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갑자기 부엌문이 여닫기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앉았습니다.

웬일인가?... 혹시 나그네가 저녁식사를 못한 모양인가?...

나는 부엌에서 울려오는 그릇들을 다루는 달그락소리에 사이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섰습니다. 장현산이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있었습니다.

내가 웬일이라는듯 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는 지금 옷방에 든 나그네는 금계산아래골짜기에서 몇달째 천막을 치고 그림을 그리는 화객이라는것, 일이 있어 시내에 갔다오다 좀 늦다보니 밤도 깊은데다가 비도 오고 하여 산을 넘어가기가 어려워 하루밤 묵어가야 할 형편인데 알고보니 오늘이 바로 그 나그네의 생일이더라는것, 생일날 저녁도 굶은 모양이 딱하게 생각되어 아무것이나있는대로 저녁식사겸 생일상을 차려주고싶어서 그런다는것이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뜨아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나가던 나그네의 생일상까지 차려준단 말이에요? ... 그런데 그 사람의 생일이 오늘이라는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좁전에 그 사람의 증명서인지 신분증인지 하는걸 보고 알았소.》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의 행동이었던지라 한마디 더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웬일인지 목소리는 입속으로 잦아들고말았습니다. 큼직한 눈확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웃고있는 그 선한 눈동자에 위압되었다고 할지... 어쨌든 그 눈빛에서 더는 천하게 굴어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을 느꼈던것 같습니다.

《저...한가지 부탁이 있는데...술이...》

《술 말인가요?... 제가 여기 올 때 가지고 온것이 몇병 있으니 격정마세요.》

나는 나의 마음이 갑자기 별스레 즐거워짐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빠른 말씨로 제격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때가 있으리라 예견하고 건사해두었던 즉시 먹을수 있는 음식감들을 꺼내여 날렵한 솜씨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로는 흥당무와 파를 썰어두고 기름과 함께 볶은 밥우에 닭알부침까지 슬쩍 올려썩은 볶음밥과 산나물, 콩나물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일손을 놀리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얼마전까지 내가 남편으로 섬겨오던 그 은행업자를 위해 하곤 하던 이런 때늦은 동자질이 얼마나 시끄럽게 여겨졌던가. ...

마지못해, 억지로, 대충...그런데 지금은?...

인츰 상이 차려졌습니다. 서울서 가지고온 고급술병까지 올려놓자 상차림은 끝난셈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상을 들고 나그네가 있는 옷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장현산이 재빨리 일어나 상을

맞들어주었습니다. 손님앞에 상을 놓아준 다음 첫날 조반상을 남편에게 차려올린 새색시의 심정으로 나는 아래입술을 감쳐물고 장현산과 나그네의 안색을 살펴보았습니다.

갹갹한 얼굴에 몹시 피로해보이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그를 어디선가 꼭 본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

손님과 상을 마주한 장현산의 고개가 슬며시 돌리며 나를 바라보는 바람에 나는 더 생각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로 향한 장현산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정을 느끼는 순간 웬일인지 가슴속에 무엇인가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별로 차린건 없지만 우리들의 성의인줄 알고 달게 잡쉴주세요. 이렇게 로상에서 생일을 맞은적이 일생에 몇번 안되겠는데...》

장현산이 술병을 들어 나그네의 술잔에 가득 부어주며 권했습니다.

《가만... 그런데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그네가 이상하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 다 아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신경쓰지 말고 어서 들기나 하요.》

장현산은 웃으며 대답을 피하는데 나그네는 참모를 일이라는듯 술잔을 들념을 안하고 그냥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는것이였습니다. 하는수없이 내가 장현산을 대신하여 좀전에 대문가에서 선생이 보여준 증명서인지 하는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 커다래진 나그네의 두눈이 장현산을 직시했습니다. 이어 나그네는 고개를 꼭 떨구며 《고맙습니다!》라고 외마디 소리를 내는것이였습니다. 어서 들라고 권하는 우리의 성의에 다시금 머리를 쳐든 나그네는 그제야 자신을 되찾은듯 술병을 들어 장현산의 잔에도 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나자신도 있고있던 생일을...》

잔을 입가로 가져가는 나그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몸안에 뜨거운것이 들어가자 자리는 보다 흥그로와지고 모두 초면이라는 감정은 삽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보니 나그네의 직업은 화가였습니다. 김정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서른셋이 넘은 로총각이였는데 아버지는 부산에서 자그마한 어업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그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광고미술계통으로 뻗으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뿌리치고 서울에 올라와 순수미술을 부르짖는 《한성유화그룹》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거의 10년가까운 세월을 명산대천들을 찾아다니

며 제판에 《세계적인 걸작》을 창작할 초지를 굽히지 않고 지금껏 《도를 닦는》 풍류화객이랄가... 좌우간 돈만 아는 지금 세월에 소박하다고 할지, 순진하다고 할지 무엇이랴 일러 말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였습니다.

이런 자신에 대하여 두서없이 말하다보니 자연히 장현산보다는 화가가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술도 한잔이나 두잔이상 마시지 못하는데다가 평소에도 말이 없던 장현산이였으니 그럴법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나로서는 별로 자랑할만 한것이 못된다고 여겨지는 (그때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서른일곱해에 걸친 자기의 비전향장기수경력까지 아무 꺼리낌없이 말하는 그를 보고 역시 남자들이란 술만 들어가면 정도 이상으로 수다스러워지기는 마찬가지구나 하는 실망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가의 다음말이 장현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뒤바꾸어놓을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술직히 말해서 비전향장기수라고 하면 우리 남조선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치고 누구나 꺼려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입니다. 물론 나도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만... 누구나 모른체 해도 당연할, 그런다고 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생면부지 인간의 생일까지 헤아려주는 그 인정 하나만으로도 저는 선생님과 인간의 정을 맺고싶습니다. ... 이 땅에 태어나 서른세해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아닌 사람에게서 느껴보는 파스함이였습니다. 정말 고맙...》

나그네는 끝내 마지막까지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나의 눈가에 연뜻 련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상전의 차를 타고 여기로 오던 로상에서 차를 세우고 태웠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였습니다. 나에게 인상적인 그림까지 선사했던... 좀전에 어디선가 꼭 보았던 느낌이 과연 우연한것이 아니었던것입니다. ...

그날 밤나는 그가 주었던 그림을 찾아들고 몇번이고 들여다보면서 온밤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정을 맺고 산다는게 과연 무엇을 뜻할가?... 인간의 정이란 무엇일가. ... 그 정을 안고 사는 저 장현산이란 인간은 대체 어떤 사람일가. ...

이런 생각을 더듬던 나는 저도 모르게 술곳이 취해오는 잠기에 정신을 내어맡겼습니다. 어디선가 먼 우뢰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올해의 첫 봄우뢰인듯싶었습니다. ...

새벽녘,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그림을 들고 엷은 안개발이 고요히 감도는 프락으로 나섰습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며 안개발이 흩어질가 저어하듯 발뽕발뽕 마당으로 나서는데 옷방에서 기침소리가 울리더니 장현산이 문밖으로 나왔습니다. 들고있는 종이장이 웬것이냐는듯 바라보는 그에

게 내가 여기로 오던 날 차안에서 화가가 선사했던 것이라고 하며 그림을 내보이자 그것을 받아든 장현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찬히 그림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수긋하고 아무말없이 그림을 들여다보던 장현산은 한동안이 지나서야 머리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것은 그림에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담겨져있기때문이에요. 미노스왕에게 붙잡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이달로스부자에 대한 전설에 기초하여 창작된 이 그림은...》

장현산이 이렇게 허두를 떼고 말하기 시작해서야 나의 머리속에는 어느 책에서인가 보았던 고대그리스전설의 내용이 환히 떠올랐습니다.

...먼 옛날, 그리스의 어느한 곳에 발명가이며 조각가인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라고 부르는 부자 장공인이 살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많은 로동도구들과 문화재들을 창조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잔폭하고 사리사욕이 강한 크레타섬의 왕 미노스는 비렬한 수단으로 다이달로스부자를 잡아가다 섬안의 성새에 가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할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달로스부자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새에서 탈출할 생각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 성새를 빠져나가자면 새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총명한 다이달로스부자는 초인간적인 지혜로 오랜 시간을 애쓴 끝에 새깃들을 모아 삼실과 밀랍으로 새와 같은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날개를 리용하여 먼저 하늘높이 날아오른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간난신고의 비행끝에 끝내 자유의 땅에 내리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하늘로 날아오른 아들 이카로스는 너무 높이 날다보니 태양별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버려 불행하게도 그만 파도 사나운에게해에 떨어져 지게 되었습니다. 무정한 파도는 젊은 이카로스를 사정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고향없이 싸운 다이달로스부자의 행동은 바다의 요정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요정들은 슬피슬피 울면서 이카로스의 시신을 바다가 바위우에 받들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둘러싸고 칠현금을 타면서 슬픈 노래를 불러 이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이 고대그리스전설의 마지막부분, 노을이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그토록 사납던 파도마저 잠시 숨을 죽인듯 고요한 바다가에서 시신을 둘러싼 요정들이 눈물을 흘리며 칠현금의 탄주로 이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 그림에 재현된것임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이카로스를 애도하여》라는 그림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노을에 온통 붉게 물든 바다 한가운데 자리잡

은 섬, 그 섬기슭에 첩탐마냥 높이 솟은 성새가 나의머리속에 련상되었습니다.

첩탐속에서 날아오르는 이카로스의 모습, 태양별에 날개가 녹아 떨어진 이카로스의 시신을 받들어올리며 흘리는 요정들의 눈물...

《태양이 참 야속하게 생각되는군요.》

《아마 고대그리스사람들은 태양보다 신 제우스를 더 숭상했던가보요. 그러니 전설내용도 그렇게 될수밖에...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태양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왔지. 이 그림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난 태양을 향해 다시금 날아오르는 이카로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더 훌륭하리라고 생각되요. 만약 정운선생에게 이 그림을 다시 그릴 생각이 있다면 말이요.》

《참, 정운선생은 아직도 자고있는 모양이지요?》

장현산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그가 아침끼니까지 축내고 가서는 안되겠다고 눈치빠르게 생각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새벽 일찍 떠나갔다고 심드렁한 어조로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섬섬하게 생각되어 은연중에 긴 한숨을 내그었습니다.

《장가라도 갔으면 안해가 차려주는 따뜻한 생일상을 받았을텐데...》

푸념처럼 중얼거리는 내 말에 장현산은 언제부터 생각해오던 말인듯 그도 그렇지만 당장 혼담이 무르익어가는 순릉이의 혼사부터 부모된 심정으로 매듭지어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된심정?!...

나는 그 말을 입속으로 다시금 뇌여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현산을 점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인가 내가 그와 순릉이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간의 사이도 저렇듯 친밀하랴 하고 생각했던적이 있었음을 상기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기색이 없이 밤마다 자기의 심혼을 태워 쓰던것도 밀어놓고 순릉이에게 우리 글을 가르쳐주던 그 저녁들과 얼굴이 벌개져 억지로 벗어놓는 속옷까지도 깨끗이 빨아 입혀주던 그 손길에서, 제손으로 리발과 면도까지 해주고 환해진 순릉이를 보며 빙그레 웃던 그 모습과 연동마울에 간 그가 저녁을 굶고 올라와 묵은밥이 되더라도 한그릇 남겨두랴고 당부하던 그 다심한 음성들에서 부지불식간에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으로 부모된 심정이 어떤것인가를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날은 그때로부터 불과 사흘도 못되어 닥쳐왔습니다.

순릉이가 연동마을로 내려간지 사흘째되는 날, 별스레 불안스런 산비둘기울음소리가 마음을 어수선하게 해주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밖에서 영악스레 짖어대는 얼룩강아지소리에 뒤섞여 자동차발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상전이 오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까
온게 아닐까 해서 문을 열고 마당가에 나서니 저
쪽 산자드락길에 세워놓은 차 한대가 보였습니
다.

이어 차에서 내려 대문가로 다가오는 낯모를
사나이와 녀인의 모습이 안겨왔습니다. 곧바로
대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중에 녀인이 나서며 수
인사를 차렸습니다. 알고보니 그 녀인은 연동마
을 처녀병어리집 안택이었는데 주저주저하면서
하는 말이 순룡이가 어제 저녁 자기 집일을 마치고
여기로 돌아오던 도중 차에 치워 상했다는것이
였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했던데다가 뒤에서 오는 자동차
소리를 순룡이가 듣지 못한것이 원인이였다고 그
녀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즉시로 시내에 있는
병원에 실어다 입원시키긴 했는데 심한 뇌타박과
다량의 출혈로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있
는 상태라는것이였습니다.

《아니 뭐라구요?!》

너무도 뜻밖의 소식이였던지라 나는 눈앞이 아
찔해짐을 느끼며 그 자리에 꼬꾸라지듯 풀썩 주
저앉았습니다.

비명소리와도 흡사하게 울린 나의 웨침소리에
놀라 목장울타리를 손질하고있던 장현산이 허둥
지둥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장현산이 주저앉은 나의 어깨를 그러쥐고 흔들
였습니다. 나는 그 녀인이 들려준 사연을 두서없
이 되뇌이며 장현산의 손에 이끌려 토방마루에
가 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 앞
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갑자기 닥친 일이어서 몹시 놀
라실줄은 압니다만... 어찌겠습니까. 이젠 일이
그렇게 됐으니 리성을 잃지 말고 방도를 찾아야
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온거랍니다.》

지금껏 녀인의 뒤전에 서있기만 하던 같이 온
사나이가 한결을 나서며 시내에 있는 병원의사라
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현산이 나를 대신하여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런 말을 하면 또 놀라시게 될지 모르
겠습니다만... 혹시 안락사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락사라니요?! ... 그럼 순룡일 죽이자는겁니
까?》

내가 놀라 말하기도 전에 장현산이 항변하듯
웨쳤습니다.

안락사란 미국에서 유행되어나온 말인데 그 의
미는 사경에 처한 환자를 되살릴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가족측과 합의하고 환자도 괴롭지
않게 또 가족들도 고달프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린다는것이였습니다. 이른바
《문명스런 죽음》으로 일컬어지는 이 말의 뜻을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해온 장현산이 알고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매우 놀랍게 생각되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무슨 일을 낼듯이 다가드는 장현
산의 기세에 놀려 몸을 웅송그리며 손사래를 쳤
습니다.

《아...아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
오.》

의사는 이번에도 장현산이 아니라 나를 향해
순룡이는 타고난 병신인데다가 그를 살리려면 약
차한 돈이 들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것, 돌봐줄
혈분이라도 푹푹히 있는것 같지 않은데 그럴바하고
는 자기 말대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는 권고삼아 한 말인데 이렇게 성을 내면 어
찌는가고 오히려 체면에서 어성을 높이는것이였
습니다.

게다가 순룡이를 상하게 한 그 자동차는 미군
부대 전속차인데 광주까지 공무로 운행하던 도중
이였으므로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위자료 한푼
받아낼 형편이 못된다는것이였습니다.

그 의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나니 결국 그 안락
사말을 꺼낸것은 처녀병어리네 집측이겠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 일을 해주려고
그 집에 갔다오던 길에 사고가 났으니 말은 바른
대로 치료비는 그 집에서 물어야 한다는것은 누
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치료비를 부담하기 싫어 의사를
사촉하여 그 알랑한 《제안》을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걸음이라는것이 뻔했습니다.

원, 세상인심도 참... 나는 저절로 한숨이 나가
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하튼 우선 병원에 가서 환자의 상태부터 보
시다.》

나는 때마침 차에서 내리는 우상전에게 간단히
사연을 말해주고나서 장현산과 함께 그들이 타고
온 차를 타고 시내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

병원에 가보니 이미 들은바 그대로 순룡이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순룡이가 누워있는 침대에 다가앉아 흘러내린
피자국들을 조심조심 닦아주던 장현산의 손이 지
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검버섯이 드문드문 돌
고 굵은 피줄이 가로세로 얹혔던 그 손등, 그리
도 섬세하게 움직이며 피자국을 닦아내던 마디진
손가락들과 몽툭한 손가락끝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았으니 이젠 결심이 섰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순룡이가 입원해있는 방에서 나와 의사실에 들
어서자 녀인과 함께 왔던 의사가 성급하게 물었
습니다. 벽도, 방의 기물들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입은 옷들도 모두 흰빛이어서인지 온통 차갑게만
안겨오는 의사실의 분위기에 별로 모골이 오싹해
짐을 느끼며 나는 어느새 흰 위생복을 갈아입은
그 사람의 얼굴과 내가 수표하길 바래서 내놓은
책상우의 종이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봐서 잘 아실테지만 현재까지 환자측에서 지불해야할 돈만 쉼해도...》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는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고막이 팽창된듯 뻣하는 소리만이 뇌리를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생각, 타산들이 머리속을 스쳤습니다.

잠시후 눈을 뜬 나는 의사의 책상앞에 놓여있는 종이장을 끄당겨 들었습니다. 이때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장현산이 들어섰습니다. 두 눈을 홑뜨쳐 한동안 내 손에 쥐여진 종이장과 내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손에서 종이장을 빼앗다싶이 덮쳐드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장을 구겨쥐는 그의 손이 푸들푸들 떨렸습니다.

《거기가 뭐길래 이따위 종이장에다 수표를 하겠다는거요?》

《내가 뭐냐구요?!...》

이렇게 반문하는 나의 가슴속으로 무엇인가 고개쳐오르는 말이 있었으나 의사가 끼여드는 통에 입속으로 잣아들고말았습니다.

《얘기도중에 끼여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다소 짜증기가 느껴지는 의사의 물음에 장현산이 짧은이들처럼 빠른 말씨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지요.》

《그럼 좋습니다. 환자를 살려내자면 우선 많은 량의 피가 요구됩니다. 적어도 한두시간이내로 필요한 량의 수혈을 해주지 못하면 나로서도 환자의 생명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의사는 거의 몸에 뻐뻐 한 실무적인 어조로 말하고나서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듯 책상 한귀퉁이에 무드기 쌓여있는 병력서들을 뒤적이었습니다. 방안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떠돌았습니다. 갑자기 장현산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혹시 그가 의사에게 주먹다짐이라도 하려는게 아닐까 하는 근심에 가슴이 졸아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 피를...》라고 하며 소매를 걷어붙인 팔을 의사에게 내어미는 장현산의 모습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듯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피를?!... 이젠 나이도 칠십에 가까와오지 않는가?...

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팔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실 순통인... 순통인...제 동생이...예요.》

웬일인지 불쑥 눈물이 치솟아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뭐냐구요?!... 그래 정말 친동생이란 말이지요?》

아무 대답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는 나를 아연해진 눈길로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일순 적의감 같은것이 스쳤습니다.

《순통인 내 살붙이나 같소. 이젠 정이 들대로 들었는데... 꼭 살려야 하오.》

한동안이 지나 나에게 잡힌 한쪽손목을 뚝으며 다른 손으로 나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의 눈가에는 언제나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가 흐르고있었습니다. ...

수혈을 마친 뒤 병원측과 치료비에약까지 끝내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병원구내를 나서면서 나는 장현산에게 나의 가슴속에 품고있던 모든 사연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여기로 올 때 나는 병어리 순통이가 내 동생이라는것이 장현산이 아는데 부끄럽게 생각되어 우상전에게 절대로 말하지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 얘기로부터 시작하여 나는 태여날 때부터 병신으로 태어난 순통이가 자라면서도 지지리 앓군 하여 집안의 걱정거리였다는것, 그래서 부모들도 그 애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한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겨놓았다는것, 부모들이 남겨놓은 네남매중 둘째오빠는 웰남전쟁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고 몇년전에 큰오빠까지 병으로 사망하고나니 형제라고는 순통이밖에 안 남았었는데 로쳐려였던 몸으로 후실살이를 하고있는 나의 처지에서 안간힘을 쓰며 도와주느라고 했지만 하나밖에 안남은 형제인 순통이는 그야말로 마음속끝에 매달려 언제나 시름을 안겨주는 존재였다는것,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나고 병원측에서 그 《알량한 제안》을 해오자 그것이 그들의 속된 리기심에서 출발한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마음속끝에 매달려 언제나 시름을 안겨주는 존재》를 떼버릴 심산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려 했었다는데 대하여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순통이가 온전한 사람구실을 못할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것이 산사람 (산사람이란 사실 구체적으로는 나를 녀두에 둔것이었습니다.) 에게도 좋고 환자인 그에게도 현명한 선택으로 될것이라고 자신을 위안하려했던 속마음까지도 나는 모두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은은한 달빛이 명주실오리마냥 흘러쳐내리는 록포의 산자드락길을 올라갈 때에야 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내가 거듭 고맙다는 말과 순통인 참 행복한 애라는 말로 얘기를 마치자 장현산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윽도록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별스레 수척해진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내 손을 꼭 그러쥐며 《행복이란 자기가 적어도 인간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정을 간직하고 산다고 생각될 때 느끼게 되는 법이요. ... 순통인 꼭 소생할거요.》라고 말할때 나는 나의 가슴속에서 그 어떤 이상한 파동이 일어남을 의식했습니다. 그것은 이체는 아득히

먼 옛시절의 일로만 생각되는 처녀시절에 체험했던 그런 감정의 파문이었습니다. ...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습니다. 이 룽골에 생활의 집을 풀어놓은 그 봄날이 엇그제같은데 벌써 매미우는 계절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빨리도 흘러간 세월의 무상함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방비를 든채 열어젖힌 방문너머로 부드러운 이끼가 덮인것처럼 보이는 천왕산산발을 이윽도록 바라보노라니 저절로 상념에 빠져들을 어찌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퇴원하여 또다시 우리와 한식술이 되여살고있는 순룡이생각, 그 몇달새에 여러마리나 되는 새끼사슴들이 태어나 전에 없이 흥성거리는 목장의 정경, 새끼사슴이 태어날 때마다 주인인 우상전보다 더 기뻐하던 장현산의 모습, 암사슴의 배속에서 앞발을 내어뻗친채 분만되는 새끼사슴들을 제 살붙이인양 덥석 안아주며 어린애처럼 친진한 미소를 한껏 떠올리던 장현산의 얼굴 등이 사진장을 번지듯 내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진》들속에 그동안 영 판사람이 되어버린듯 한 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즈음에 와서 내가 판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새생활에 대한 열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움터나고있음을 아릿하고 즐거운 번뇌속에 자감하곤 하였었습니다. 그때마다 땀발이 축축히 내뻗 두손을 후둑후둑 뒤흔는 가슴에 꼭 모아쥐고 까닭모를 한숨을 내쉬곤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장현산이 방목지풀밭에서 얻어다준 파아란 봄뽕알을 소중히 감싸쥐고 가슴에 대어보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

문득 방비를 친 손에 그때처럼 땀발이 내배임을 느끼자 나는 내가 방안을 청소하던중임을 깨닫고 서둘러 일손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을 쓸어내고 걸레로 밥상이며 책상이며를 훑쳐내던 나의 손이 벽에 걸려있는 그림앞에서 멎어섰습니다.

헤버트 가포의 《이카로스를 애도하여》였습나다. 얼마전에 화객 김정운이 신세를 갚는다면서 왔다가 선사하고 간 모사품이었습니다.

역시 그는 숨쉴있는 화가였습니다. 비록 모사품이긴 했지만 미술을 잘 모르는 나의 좁은 소견에도 원화보다 더 멋지게 그렸다고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때 그림을 보고난 장현산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미술적재능에 공감을 표실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운선생, 난 저렇게 실패하여 바다에 떨어지는 이카로스의 모습보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 땅의 〈이카로스〉들을 그린 그림이 더 좋지 않겠는가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통에 그림을 그린 당사자인 정운은 물론 나까지도 한동안 입이 열여붙은듯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성의껏 그림을 그려다준 상대방의 수고도 생각해주야지 하는 고까움 비슷한 감정이 살아올라 그에게 악의없는 눈흘김을 해보였었습니다.

방을 청소하다가 문득 그때 그가 한 말을 상기

해보니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 땅의 《이카로스》들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더 좋았던 그의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생각됨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에 잇달아 한가닥 위구감이 가슴속에 서려들었습니다. 웬일인지 며칠전에 있었던 일이 되새겨졌습니다.

그날은 우상전이 온 날이었는데 마침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 모두 기분이 떠있었습니다.

내가 새끼분만에 쓸 더운 물을 버치에 떠들고 분만사쪽으로 가려는데 우상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어쩐지 실통대고싶은 생각이 나서 내가 웃으며 통삼아 내가 온 담부터 이 끝안이 더 환해지지 않느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내 생각엔 환해지는건 이 끝안보다두 누님 얼굴인것 같소.》

《뭐라구?!... 내 얼굴이라구...》

나의 얼굴이 활짝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느껴진것은 내가 화장을 하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분을 얼굴에 다시 대기 시작했든가. ... 녀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고 혼연한 일로 간주되는 그 일때문에 내 얼굴이 이리도 달아오를까닭이 뭘가?... 하지만 나는 시치미를 톡 따고 그래 내 얼굴은 환해지면 안되는가고 되물었습니다.

《안되기가 뭘... 그저 일이 내가 예언했던대로 돼가니까 하는 소리지요.》

《예언했던대로라는건 무슨 소리냐?》

《아, 생각안 나요?... 누님이 여기로 올 때 내가 통삼아 하던 혼담 말이요.》

그때에야 나의 머리속에는 내가 여기로 오던 날 차안에서 우상전이 나에게 장현산과 재혼할 생각이 없는가고 묻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어 내가 장현산이 《빨갱이》라고 싫다고 거절하던 말, 그런 사람이 《빨갱이》라면 나도 《빨갱이》가 되겠다고 하던 우상전의 말이 마디마디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더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일수가 있니?》 나의 말에 우상전의 두눈이 삽시에 커다래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입밖에 낼수 있었는지. ...

《〈빨갱이〉가 아니라구요?!... 좋수다. 〈빨갱이〉이든 〈빨갱이〉가 아니든 어쨌든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그 점이 중요하지요. 터놓고 말해서 늘그막에 서울같은 도회지에 가서 살아선 뭘하겠소? ... 이 산골에서라도 마음맞춰 등이나 굵어줄 령감하고 제명껏 여생을 살다가 가면 그게 락이 아니겠소. 아, 재산도 넉넉하겠단, 이북자식들의 성화도 받을 일이 없겠다. ... 그저 그만이지요. 그럼 내가 장선생에게 슬쩍 얘기를 비쳐보겠으니... 딴 걱정말고 저녁에 장선생에게 한잔 대접할 생각이나 하시우.》

우상전은 싱글싱글 웃으며 장현산이 일하고있는 등너머 방목지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우상전의 뒤를 줄줄 따라나갔던 일룩강아지가 대문가에 쪼그리고 앉더니 나와 멀어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

그날 저녁 한적한 룡골 토벽집 아래방엔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잘 차린 음식상이 차려져있었습니다.

상가운데서 타고있는 두대의 초불이 상앞에 다가앉은 세사람의 얼굴을 고요히 비추주고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병을 들고 장현산의 잔에 술을 부었습니다. 술을 붓는 나의 이마에 연한 화장발을 뚫고 깨알같은 땀방울들이 송골송골 내뿜었습니다.

의미깊은 눈길로 잠시 나를 바라보던 장현산은 술잔을 들어 한모금 마시고는 이내 술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야속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낸 장현산은 여느 날과 다름없다는듯 순릉이와 함께 우상전이 가져다준 낡은 신문들을 뒤적거렸습니다. 내가 하는 수없이 초불접시만 남겨두고 상을 거두자 장현산은 옷방으로 올라가려고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저…》하고 말꼭지를 떼었으나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낮에 우상전이 장현산에게 나의 심정에 대해 이미 말을 했으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오늘 밤은 여기서 쉬라고 말하고싶었지만 끝내 입술밖으로 쏘아놓지 못하였습니다.

좁전에 때아니게 저녁상에 오른 술병을 보고서도 그랬던것처럼 웬일인가싶어 나와 장현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던 순릉이가 알만 하다는듯 병글썩 웃으며 신문들을 걷어안고 옷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순릉이가 옷방으로 올라가자 장현산은 고개를 짓수그런채 아무말없이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밤새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바야흐로 상우에 놓인 두대의 초가 한점시에다 녹아들며 불꽃을 뿜고있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고 방문너머로 희끄무레하게 안겨오는 하늘빛과 대조를 이루며 시꺼멓게 툭날모양으로 뻗어간 숲의 언저리를 바라보던 장현산이 어두운 밤의 장막을 베어버리려는듯 어딘가 강단이 느껴지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지 마오. 내 입자 마음을 모르지 않소. 난들 인간인데… 왜 모르겠소. 하지만 난 저 북쪽 땅에 처자가 있는 몸이요.》

《알만 해요. 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소식 한장 나누지 못하고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는 그 처자가 지금껏 기다리고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동안 아무 대답도 없이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긔고나서 무척 특이할것으로 기대되는 자기의 과거지사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임신한 안해와

어머니를 고향에 남겨두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싸우던중 경찰임무를 받고 적후에 들어왔다가 놈들의 추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뜻하지 않게 체포된 때로부터 시작된 수십년간에 걸치는 감옥살이의 가지가지 이야기들, 1990년대초에 출소하여 일가친척이라고는 한사람도 없는 이 남조선땅에서 의지하고 살 곳이 없어 양주에 있는 양로원에서 살다가 이 룡골에 일자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오게 된 사연… 정말 그 어떤 유능한 작가의 허구로써도 꾸며낼수 없는 한 인간의 믿어지지 않는 인생행로의 자욱자욱들… 참으로 눈물없이 들을수 없고 믿지 않을래야믿지 않을수 없는 인생의 진리앞에 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수그리었습니다. 그리고는 목메여 웨치듯 나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웁아요. 나도 거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때문에 한없이 존경하는것이고… 부부간의 정까지도 맺고싶었던거예요.》

낮도 코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인간에게도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인간, 남이라고 외면해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다 죽어가는 병신에게 생명까지 서슴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인간이기에 나는… 아무런 한도 없이… 부부간의 정을 맺으려는거랍니다.》

나와 그사이에는 한동안 숙연한 침묵이 떠돌았습니다.

마음이 어느정도 진정되자 나는 그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북에 있는 처자를 그리는 당신의 마음은 리해할만 해요. 하지만 우선 그들의 생사여부도 모른데다가 또 당신의 여생에 그들을 만날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당신자신도 아마 말하기 힘들거예요.》

《처자들의 생사여부를 모른다는 말은 웁소. 하지만 그들이 꼭 살아있을것이며 또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을것이라는 나의 믿음에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거요. 그리고 통일은 꼭 될것이고 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오.》

《통일이 된다고요?!…》

《그렇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말것이요. 그리고 한마디 부언한다면 내가 단순히 처자 그개개의 인간들을 그리며 통일을 확신한다고는 생각지 마오.》

《처자때문이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그건 세월이 흐르면 당신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될거요.》

그날밤 나와 그는 날이 셀무렵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는 한번 불여보지 못하고 당초에 품었던 말도 다하지는 못했지만 웬일인지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장현산의 인간됨을 더 잘 알게 된데서 오는 기꺼움이었습니다. 그 상쾌함은 꿈기 신선하고 맑은 마당가에 나섰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싱싱한 들국화 한뭉음이 토방우에서 웃고있었던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 꽃뭉음을 가슴에 안고 향기를 맡아보던 나의 눈길에 앞산 동굴앞에 가뻐었습니다. 동굴앞 바위우에 높다랗게 올라서서 나를 향해 웃고있는 순룡이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습니다. 누이의 행복을 바라는 그의 소박한 축수의 꽃뭉음임을 깨닫는 순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순룡이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듯싶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장현산과 같이 지내면서부터 자기 식으로 말하는 법을 터득한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나고 코끝이 매워남을 느꼈습니다. 나는 맑게 개인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금방 떨어지려는 눈물을 애써 누웠했습니다. 멀리로 산비둘기가 구구구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

그때처럼 어디선가 울려오는 산비둘기울음소리에 나는 편뜻 상념에서 깨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현산이 세월이 흐르면 내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될것이라고 하던 말이 가슴에 맺히며 또한가닥의 위구감을 가슴속에 사려놓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깨닫게 된다는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멈추었던 일손을 다시 놀리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으나 종시 의문을 풀길이 없었습니다.

별안간 대문밖에서 승용차경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승용차에서 내린 웬 젊은 사나이 두사람이 대문가로 다가오고있었습니다. 웬일인가싶어 마당가에 나선 나에게 다가온 그들중손에 신문을 든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우린 서울에 있는 〈민가협〉에서 왔는데 장현산선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장선생 말인가요?... 저 등너머 방목지에 있겠는데... 내가 가서 찾아올가요?》

《아, 됐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별스레 후두두 떨림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웬일일까? ... 많은 의문들이 호기심과 한동안리가 되어 가슴속에서 매삼쳤습니다. ...그로부터 두어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나는 떠나가는 그들을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낮에 점심시간이 되어 장현산이 들어서자바람으로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왔든가부터 물었습니다. 장현산은 아무 대답없이 들고 들어온 신문을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발행된지 퍼그나 되었다고 보아지는 신문을 펼쳐들자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6.15북남공동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장현산에게 점심을 차려줄 생각도 잊고 정신없이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한자한자 읽어나가는 나의 가슴은 통일의 새아침이 금시 눈앞에 밝아오는듯한 격정으로 끓어올랐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군요. 이 신문을 보여주려고 이 외진 곳까지 일부러 걸음을 하다니. ...》

이렇게 말하며 계속 신문보도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나의 눈길이 비전향장기수문제를 언급한 대목에서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얼굴을 들고 장현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방문너머 먼곳을 응시하고있는 그의 눈길에 여느때와 다른 생기가 넘쳐흐르고있음을 느끼자 잇달아 가슴속에 매달려 위구감을 자아내던 그것이 무엇이였는가가 단번에 깨달아지였습니다. 끝내 닥쳐올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듯 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챙겨주는 점심식사를 하고난 장현산은 언제나와 같이 또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일터에서 돌아온 장현산에게 나는 구태여 호기심어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가 묻기도 전에 그는 낮에 왔던 사람들이 단지 신문을 보여주러 온것이 아니라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쪽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으로 보내게 되는데 장현산 자기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남자를 다시 알려주면 북으로 갈 준비를 해가지고 서울로 오라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긴 뭐라겠소. 가겠다고 했지.》

《가다니요?!... 그럼 정말 가겠다고 말이에요?》

《...》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슬며시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방으로 올라가는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눈에서는 어디에 고여있었던 지 모를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섬섬함과 놀라움 등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수 없는 속마음의 분출이었다고 할지... 하지만 나는 장현산에 대한 내판의 희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릴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나는 장현산을 설복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남기고간 적지 않은 유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당대에는 그 어떤 생활격정도 없이 지낼수 있다는 확신적인 담보, 물론 지금까지도 성의껏 대해왔지만 더 유족하게 섬길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의 일생에 처음으로 찾아든 참다운 사랑의 기회를 빼앗기고싶지 않다는 진정의 토로 등 별의별 설복과 권유, 사정과 애원으로 일관된 며칠이 흘러갔으나 나는 종시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습니다. 끝내 나는 그에게 야속함과 그리고 어딘가 증오감까지도 뒤섞인 마지막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수가 없군요. ...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하길래 무슨 소린가 했더니...정말... 〈빨갱이〉가 옳긴 옳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빨갱이》라면 덮어놓고 경원시하고 질시하던 내가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오. 난 꼭 가야 할 사람이요. 전날에

도 말했던바가 있지만 거기선 단지 처자만이 아니라 조국이 날 기다리고 아버지의 품이 어서 오라 부르고있단 말이요. 다 아다실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에 닥치는 모든 운명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럴가능성의 여지를 가지는 법이요. 하지만 그 모든 운명중에 단 한가지만은 선택할수 없는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란 말이요. 어머니와 맺은 정은 그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고 갈라서도 안되는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감정이요. 제발 헤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나를 어머니와의 정을 끊은 죄 많은 인간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고초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남아있게 해준다면 그 이상 고마운것이 없겠소.》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모든것이 명백했고 그의 인간됨의 전모가 선명히 안겨왔기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한없이 경건한 정이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을 간직한 인간이기에 나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그와 정을 맺으려고 한것이 아닌가. 하지만 헤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나의 가슴속에 인간으로 남고싶어하는 그를 어찌 욕되게 할수 있단 말인가. …

그를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는 순간에까지도 나의 가슴속에는 존각이나마 이자택일의 감정이 되살아올랐습니다. 다시금 그대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자각되면 될수록,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내 가슴속에 남고싶어하는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가슴은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며 밖으로 뿔어나갔습니다. 내가의 맑은 물에 두손을 잠그고 달빛이 어린 내물에 나의 얼굴을 비취보고있노라니 나무잎새들에서 이슬방울이 듣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설음뻗힌 가슴을 활 열어젖히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가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잊지…않겠…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운명의 날은 닥쳐왔습니다.

2000년 여름의 그 뜨겁던 폭양의 열기가 쇠진해가던 어느날, 나와 그는 서울로 가기 위해 그동안 정을 붙이고 살아온 룡골의 토벽집 마당가에 나섰습니다. 끝까지 혼자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서울까지만이라도 배려해주겠다고 부득부득 따라나선 나를 물리치지 못하고 동행을 수락한 장현산의 얼굴표정에서는 저으기 근엄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끝내 화가선생을 못 만나고 가는구만.》

이윽도록 길쭉을 바라보고있던 장현산은 울먹울먹한 기색으로 마당가에 서있는 순룡이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부어오른 눈두덩과 빨갛게 피발이 선 두눈동자가 장현산의 마음을 애절하게 붙잡는듯 했습니다.

《앓지 말구 잘있으라구. 꼭 다시 만나게 된다니까. 내 손으로 꼭 장갈 보내줘야 하는건데…》

그를 힘껏 그리안아주고나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장현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문득 순룡이가 자기의 눈물기가 어린 장현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빨간 비로도천에 쓴 자그마한 물건을 꺼내 장현산의 손에 꼭 쥐여주었습니다. 장현산은 의아스러운 낯빛으로 비로도천을 펼쳐보았습니다. 뜻밖에도 푸른 하늘색갈의 구슬알 한개가 평통한 빛을 발산하며 비로도천우에 귀히 앉아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놀라와 입을 벌린채 그결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고하신지 오래된 어머니가 순룡이에게 물려준 유물이었습니다.

순룡아, 내가 동네늙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너같은 병어리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더라… 네가 죽을 때 이걸 꼭 입속에 물고 저세상으로 가거라, 그러면 네 후손들은 절대로 병어리가 태어나지 않을게다. …

어머니의 평생의 유한이 담겨진, 순룡이에게는 가장 값진 재산으로 되는 그 구슬알! … 그것을 서슴없이 선사하는 동생을 보면서 순룡이가 자기 일생에 가장 귀중한 은사에게 드리는 감사의 말이 나의 귀전에 울림을 느꼈습니다. 비록 말을 할줄 모른다지만… 그는 또렷하고도 정확하게 분명 말을 하고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병어리인 자기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주고 인간으로서의 정을 알게 해준 장현산에게 그는 오직 자기만이 할수 있는 《언어》로 감사의 뜻을 말하고있었던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아, 정이 이렇게 모질적도 있는가?…

나는 끝내 입을 싸쥐고 고개를 돌리고야말았습니다.

장현산은 물기가 어린 두눈을 습벅이며 또다시 그를 꼭 그리안고 농을줄을 물랐습니다.

남기는 정, 보내는 정이 한데 어울려 소리없이 몸부림치는 애절한 석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장현산은 고개를 돌려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골안의 전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골안의 여기저기, 토벽집의 구석구석, 우아한 뿔이 달린 고개를 들고 이쪽을 바라보며 서있는 사슴들, 지어 앞산동굴벼랑턱에 등지를 틀고 새끼를 친 산비둘기들이며 따라나오며 꼬리를 젓는 얼룩개에 이르기까지 장현산의 자취가 스며있는 그 모든것들이 그와의 리별이서러워… 흐느껴…우는듯…싶었습니다.

아, 정이여, 인간의 정이여!…

×

기자들만이 아닌 텔레비죤앞에 모여섰던 군중들까지 순조의 이야기에 심취되어 발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인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과 그의 인간됨은 영원히 내 가슴속에 남아있을것입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남긴 정, 그것은 단순히 인간생활의 세태적인 감정으로서의 정만이 아니라 그의 억센 신념에 기초한 가장 고상한 사상감정의 발현이었다는것을 말입니다. … 분리선을

넘어 북녘땅에 발을 내디디는 그의 가슴에 〈아버지!〉, 〈여보!〉 하는 부름이 날아와 안길 때 처자들을 부둥켜안으며 남녘땅을 향해,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 미소를 짓던 장현산의 그 모습, 만단 사연이 어우러진 그의 얼굴에 어린 그 미소에는 인생의 온갖 소원을 다 성취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의 감정이 비껴있었습니다. …〉

갑자기 사람들속을 헤집고 들어온 한 젊은이가 순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화가 김정윤이었다.

《아니… 여기 계셨군요. 내가 한발 늦어서 그만…》

그는 들고온 화판을 순조에게 내밀었다.

《이 그림을 꼭 돌려보냈어야 하는건데…》

《고마워요.》

순조는 절해고도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용기를 가다듬고 창공을 날으는 억센 때를 형상했을 그 그림을 소중히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그림을 가

슴에 안고 정윤의 손에 이끌려 대형텔레비죤앞으로 다가섰다. 텔레비죤에서는 평양 시내에 들어서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이 방영되고있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순조의 눈앞에는 태양의 품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 땅의 수많은 《이카로스》의 모습들이 금시 보여오는듯싶었다. 한순간이 지나자 그 《이카로스》들의 모습은 억센 때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순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고 푸르게 열린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주는 태양이 정에 넘친 빛발을 아낌없이 뿌려주고있었다.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그 모든 인간들을 따듯이 품안아주는 태양의 그 모습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기려는듯 순조는 저도 모르게 가슴우에 손을 얹었다. 거기에는 장현산이 남기고 간 그의 인생회상록이 간직되어있었다. …

총과 기발

백하

포연 자욱한 재진격의 길에서
나의 배낭속엔 언제나
한폭의 공화국기발이
탄알쌈지우에 정히 포개여있었노라

적을 몰아낸 고향마을
학살터의 총성이 아직도 감도는
동구길 소나무아래서
리인민위원장이 고향의 당부담아
내 손에 쥐여준 람홍색공화국기

뺨에 대면 정든 내 고향의 흙냄새
가슴에 스며들고
쫓아보면 원쑤의 총구앞에 숨지면서도
공화국만세를 피타게 웨치던
내 고향 당원들의 그 부르짖음이
내 심장을 두드렸노라

황주, 봉산
귀족같은 미제에게 강점된 마을 지나며
어찌 한놈인들 용서할수 있었으랴
나는 공화국기를 펄펄 날리며
복수의 총탄을 퍼부으며 달리었노라
골짜기마다 강기슭마다
야수들의 시체를 더미로 쌓으며…
불이 솟는 한자욱 한자욱을
총으로 열며 나아갔노라
조국의 한치한치를 다시 찾아
마을마다 인민정권의 간판을 높이 달았노라

말하라, 기발이여 공화국기발이여
재진격의 천리길
나의 귀가에 세차게 퍼덕이며
너 무엇을 끊임없이 속삭였느냐

마지막 고지탈환전투의 그 저녁
고지우에 필력은 기폭아래
짓밟힌 한치한치를 승리로 열어온 총
화끈 달아오른 총에 다시 탄환을 끼우는
나의 가슴을 세차게
세차게 두들기는것은 무엇이었던가

불속 천리, 격전의 천리
포연에 끄슬고 파편이 스친이 기발
총이 없었으면 한결음도
단 한결음도 헤치지 못했을 이 기발

아 총
북방의 출발진지에서
수령님 수여해주신 총이여
재진격의 사단을 편성해주시고
수령님 안겨주신 목숨같은 총이여

나는 사무치게 깨달았노라
총이 없으면 고향도 조국도 없음을
총이 없으면 죽은 목숨임을
오직 총창우에 공화국기가 있음을
정녕 나는 알았노라
수령님 열어주신 선군의 길이
그 얼마나 위대한가를

조국과 나의 가정

최남순

약속

남편은 급히 길을 떠났다.

그를 바래워주고 집을 청돈하던 나의 눈길은 새 달에 잡혔는데도 번져지지 않은채로 있는 달력에 가뒀었다. 우리 집에서는 내 키가 자라지 않게 걸려있는 달력을 그가 항상 번져놓곤 한다. 갑자기 바쁜 취재차로 집을 떠나며 새 달이 온것도 잊어버렸을까?

아니다. 래일은 나의 생일이다.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 달력장으로 덮어놓고 떠나갔으리라. ...

너무 바빠서 생일을 홀 잊고사는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유감스럽게도 나는 나이 서른이 되어오도록 생일을 단 한번도 잊은적이 없다.

어렸을적에 나는 늘 초소에 나가 살다싶이 하는 아버지에게서 생일을 놓고 몇달전부터 약속을 받아내곤 하였다.

《이번 내 생일엔 꼭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그래, 우리 손을 걸가?》

남들은 애기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지만 군관인 아버지는 방아쇠에 손을 걸던 습관때문인지 항상 둘째손가락을 내밀곤 하였다.

총을 다루며 굳은 살이 배긴 아버지의 굵고 굳센 둘째손가락이 햇버들가지같은 나의 손가락을 꼭 감싸질 땐 왜 그리도 기쁘고 마음이 든든해지던지...

물론 그렇게 한 약속은 지켜지는것보다 지켜지지 못하는것이 더 많았다. 이번에도 나의 생일에는 남편이 지켜주지 못한 약속이 운명인듯 남아있다. 함께 휴가를 받아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자던 그 약속이...

나의 생각을 깨치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강좌장선생님이였다.

《그래 세대주는 떠났소? 준비해주느라고 수고했겠구만. 선생이 먼저 들어간 후에 대학에서 새지령이 떨어졌소.》

《무슨 급한 일이라도...》

《다른게 아니고 며칠후에 하기로 되어있던 새 교수방법에 대한 최종심의가 래일로 앞당겨졌다 누만. 잘 준비해주오. ...》

일에 대한 의욕이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서운한 감정을 활 밀어제끼며 내 마음을 차지해버렸다. 나는 책상에 다가앉았다. 펜을 잡았다. 순간 마음을 안정케 하는 따듯한 온기가 내 몸으로

스며드는듯싶다. 바로 이 만년필이다. 몇해전 내가 교단에 처음으로 서는것을 기념하여 그가 준 ...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가 서로의 뜻을 존중하는 학문의 벼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들사이엔 가슴뛰는 첫사랑의 고백도 생활에 대한 열렬한 약속도 없었다.

있었다면... 잊지 못할 그 저녁그가 한 단 한마디 말...

《래일 아침 강의를 잘하겠다는것을 나와 약속합시다.》 그 말이 왜 그리도 눈물겹도록 고마웠던가.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가 내미는 만년필을 서로 손끝이 부딪칠까봐 저어하며 조심스레 받아들었던 나는 부끄러움도 잊고 버릇대로 둘째손가락을 내밀었다.

《좋아요. 약속해요.》

그도 나처럼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감싸쥐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그랬던것처럼.

그때 우리 머리우에서 못 보았다는듯이, 못 들었다는듯이 천천히 가지를 흔들며 설레이던 대동강가의 버드나무...

아, 고백도 없이 두 심장을 가깝게 당겨놓아준 약속, 그것은 첫 강의에 없는 나의 책임감을 감절 무겁게 해주고 나의 량심을 감절 깨끗하게 하여준 못 잊을 약속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만년필로 출석부를 정리하고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그때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내 심장은 첫 강의때와 같은 그런 열렬한 흥분속에 뛴다. 지금 이 시각도 만년필을 잡으니 그가 그 저녁처럼 래일의 좋은 성과를 바라며 뜨거운 손을 내미는것 같다.

그와 나는 이렇게 첫사랑의 약속을 지켜오지 않았던가!

신성한 공화국의 법은 우리의 약속을 가장 공고한것으로 다져주려고 서로가 남몰래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불러보던 두사람의 이름을 시민중에 나란히 새겨주었다. 그리고 조국은 그 약속이 더 아름답게 지켜지라고 수도의 거리에 우리 두사람을 위한 해맑은 창문 하나를 정히 내주었다.

허나 무엇을 숨기랴. 그렇게 마련된 우리 집 창문을 시샘하며 그렇게 지켜지는 우리의 약속을 흔들어보려고 이 땅엔 찬바람이 모질게 불지 않았던가. 나라가 어렵던 그 나날에 우리 집 창문에 성애가 두텁게도 끼곤 하였다. 안해—내 몸의 열기를 다 쏘는 타는듯 한 입김으로도 녹일수 없

있던 찬바람의 모진 흔적이...

그렇어도 약속으로 늘 마주 서있는 우리 두 마음사이엔 성애가 깰수 없었다.

글줄을 고르고 강의안을 쓰며 긴 겨울밤을 함께 지낸 아침...

해살보다 먼저 우리 집 창문의 성애를 녹이며 아버지장군님의 최전연시찰소식이 해살이 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껴들었다.

아, 그런 아침이면 나는 언제나와 같이 첫사랑 마냥 가장 깨끗한 정을 교단에 아낌없이 바칠수 있지 않았던가.

우리 인생의 약속은 그와 나만이 지켜가는것이 아니었다. 조국도 함께 지켜주고있었다.

남모르게 첫사랑을 약속하던 잊지 못할 그 저녁에도 조국은 총대에 굳은 살 배긴 아버지의 손과 같은 그런 크나큰 손으로 합쳐지는 우리의 두 손을 하나되어 불타는 두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역세게 받쳐주고있었던것이다.

확신컨대 우리는 생활의 귀중한 매 순간마다 조국과 말없이 약속을 한다.

한 가정을 가질 때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리라는것을, 교단에 설 때면 학생들을 있는 힘껏 잘 배워주는 교육자가되리라는것을.

아니, 이 땅에 첫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나는 그 순간에 벌써 조국에 떳떳하고 충실한 삶을 우리모두가 약속한것은 아닌지...

누구에게나 딸이나 안해와의 약속보다도 조국과의 운명적인 약속이 더 중요하다. 약속의 열매가 행복일진대 큰 약속만이 큰 행복을 낳는 까닭이리라. 나의 아버지와 남편—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생활의 작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들 어떠랴! 조국이 있는데야!

혹시 이밤 그와 내가 처음으로 손잡았던 유정한 대동강가 그 버드나무아래 또 한쌍의 청춘남녀가 하지 못한 마음속 말을 두고 바재이며 서있지는 않는지...

있다면 청춘들이, 서슴지 말고 약속하시라. 무엇이 두려우랴! 조국이 있는데야!

사 랑

내가 내놓은 새 교수방법에 대한 소론문과 변론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의실 문을 나서니 오늘따라 하늘이 더 맑고 푸르다. 저 하늘아래 어디선가 그도 땀젖은 어깨들과 나란히 달리며 우리 시대에 대한 숨 벅찬 글줄들을 고르고있으리라. 저 맑고 푸른 하늘에 대고 《아—》하고 소리치면 《오—》하고 환희에 젖어 화답하는 그의 목소리가 하늘가에 부딪혔다가 나에게로 곧추 날아올것만 같다. ...

집으로 돌아오니 교외에 살고계시는 시어머니가 와계셨다. 달력이 번져져있었다.

《순아, 네가 좋아하는 송편을 빚어왔다.》

일흔을 가까이 하는 그 나이에도 어머니는 나의 생일이면 꼭 자기 손으로 송편을 빚곤 하신다.

나는 옷 갈아입을 생각도 잊고 먼저 송편부터 한입 베어물었다.

《어머니, 정말 맛있군요!》

어머니는 그 말이 제일 큰 인사런듯 만족스럽게 웃으신다. ...

한참후에 어머니는 정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며늘애야—》 순간 나는 좀 당황해졌다. 어머니는 무엇인가 나의 잘못을 질책하고싶으실 뻔 이름대신 나를 이렇게 부르곤 하기때문이다.

《왜 네 남편의 비웃이 집에 그대로 있느냐?》

웬일인가싶어 마음을 조였던 나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그이 집을 줄여주느라고 배낭에서 다시 꺼내놓은거예요. 일기예보엔 이 며칠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하기에... 가을이 아니나요.》

《그래...》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었다.

어머니의 눈빛엔 분명 섭섭함과 실망의 어두운 구름장들이 언뜻 비껴든다.

언젠가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의 중학시절... 비오는 날 어머니는 아들을 마중나왔다고 한다. 아들이 우산밑에서 걸어가면서도 책을 펼쳐들고 보는것이 하도 기특해 어머니는 우산을 전부 아들쪽으로만 기울여주었다. 집에 들어서면서 아들은 함뱍 젖은 어머니의 어깨며 치마자락을 그저 놀랍게 바라보기만 했다. ...

《자, 오늘은 내가 저녁을 지어주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금 따뜻하게 울렸어도 나는 어머니를 마주 보기 어렵다. 어머니의 눈빛에 얼추 비치였던 걱정의 구름장들이 이제 내 마음에 걸터앉았다.

혹시 이제라도 그가 가는 길에 비가 쏟아진다면, 그래서 그가 잠시라도 망설인다면, 어머니는 분명 그것을 걱정하셨으리라. 어머니는 아들을 낳시에 따라 사랑하지 않는것이다.

비웃을 배낭에서 꺼내던 그 순간에 과연 내 마음속에는 만약 비가 내린대도 그가 외지에서 비를 맞지 말고 그어서 가기를 바라는 허줄하고 보잘것 없는 《사랑》이 숨쉬지 않았단 말인가?

누군가 말했다. 남편을 앞으로 떠밀어주지 못하는 안해는 반드시 그의 옷자락을 뒤로만 잡아당긴다고.

어머니의 흰서리앞에 나는 부끄러워졌다. 한생 아들을 위해서 비속길도 서슴없이 걸으며 그 함함하던 검은 머리가 세월의 비발에 씻기여 순결한 흰빛이 되신 어머니앞에...

부엌에선 벌써 생각깊은 칼도마소리가 울린다. 어머니가 채 하지 못한 말이 그속에서 울리는듯싶다. 아들이 나라에 몇몇한 사람이 되길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인생길을 가라고 때로는 모진채찍을 들어 너무도 열렬한 사랑을 쏟으셨을 어머니.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듯 억세게 사랑하여온 아들을 그의 안해 역시 그렇게 사랑해주길 바라고 있는것이다. 언젠가는 안해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해야 하기에, 때로는 안해의 모습이 조국의 한 모습으로 이 나라 사나이들의 심장에 떠올라야 하기에...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등뒤에 다가가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다.

《제가 하겠어요. ...》

어머니는 나의 눈빛에서 내 마음을 다 읽으신 듯너그럽게 웃으신다.

《됐다. 너 이제 배고플텐데 떡이나 먼저 더 먹으렴. ...》

그러시곤 익반죽을 어떻게 해야 떡이 그렇게 쫄깃쫄깃해지는가를 자랑스럽게 설명하신다.

사랑으로 음식을 익히는 그 모든 재간을 나에게 다 배워주시려는듯. 나는 그냥그냥 듣고싶다, 배우고싶다. 어머니의 순결하고 강하고 억세인 그 사랑을 통채로!

행복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여니 언제나 성격이 팔팔한 반장어머니의 류달리 청높은 목소리가 날아들어온다.

《자, 5호집, 좋은 일이 있소.》

(아니 반장어머니도 내 생일을 다 아시는가?) 나는 은근히 놀라면서도 어서 들어오라고 손을 잡아 이끌었다.

《옛소. 신문이요. 이 집 세대주 글이 또 나왔소. 5호집은 참 좋겠소. 내 우리 아파트 야박네들앞에서 한바탕 독보를 다 했소. 어쨌든 내 오늘은 잡도릴 단단히 하구 한상 반고야 가겠소.》 아침에 바빠서 읽어보지 못하고 접어놓았던 신문이 아직 내 가방에 있다. 나는 기뻐다. 그리고 막 웃음이 나왔다.

오늘 출근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하오.》, 《기쁘겠소.》 하길래 새 교수방법최중심의에 당선된 나를 두고 하는 인사인줄만 알았다.

또 어떤 사람이 《세대주에게 내 인사도 전해주오.》라고 말할 때 나는 과연 특이한 방법으로 축하를 해주는구나 하고 제 좋은 생각만 했었다.

내가 스쳐보낼번 한 행복까지도 먼저 알고 기뻐해주며 그것을 기어이 내 손에 쥐여주는 고마운 사람들...

시아머니가 마침 우리 며늘애의 생일이라며 상으로 잡아끌자 그렇게 허물없이 소리치던 반장어머니는 《에그, 내 이 무슨 주책머리람.》 하고 덴접을 하며 기어이 가버린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신문을 펼쳐드니 눈시울이 따끈해지며 글줄이 잘 안 보인다.

다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름름한 청년들이 한아름 꽃다발을 안고 서있다.

(고마워요, 동무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나의 생일을 어떻게 잊을수 있단 말인가.

이런 순간이면 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 더 훌륭하게, 더 진실하게 다시 새로이 태어나고싶다.

《또 새 교수방법을 내놓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하루를 남편과 단 둘이서 그아무리 즐겁게 시간을 보냈단들 그것을 감히 이런 행복감에 비길수 있겠는가.

시아머니는 대견하게 나를 바라보며 웃으신다. 어디선가 조국이 나를 바라보며 저렇게 시름없이 웃고있다면.

아니, 지금 나는 느끼고있다. 젊으나젊은 어깨들이 비좁도록 앉아 나를 위해 청신한 노래를 불러주는 나의 이 작은 집에 짝 차서 흐르는 조국의 기쁜 숨결을!

조국은 그를 향해 마음의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집집의 대문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법이 없다.

언제든지 기꺼이 행복을 안고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 반장어머니처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처럼...

학생들도 돌아가고 어머니도 일감이 기다린다고 굳이 떠나가셨다. 행복의 여운만이 벽차도록 남았다. 그것은 소원으로, 소원은 믿음으로 깊어진다.

군모밀에 흰서리 불리기 시작한 아버지의 어깨우엔 또다시 궁지로온 별이 늘리라. 남편의 글은 세월이 갈수록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값진 글이 되리라. 내가 선 교단은 나의 능력과 헌신을 주추돌 삼아 더 높아지리라.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시어머니의 눈가엔 언제나 기쁨이 빛나리라.

그리고... 언젠가 태어나게 될 우리의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몇몇한 삶을 닮으려고 애쓰며 자라리라.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멀리 먼 곳에서 전류를 타고 흘러드는 그의 목소리이다.

《순이, 생일을 축하하오.》

《축하는 벌써 받은걸요. 나도 축하해요. ...》

이밤...

우리 집 창문은 별빛을 한가득 그러안고 열려져있다. 나는 이 나라 집집의 창문에 다 비추이도록 그 별들로 하나하나 글자를 새기고싶다.

조국을 위해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가정엔 언제나 행복이 깃든다고 그리고 첫사랑도 영원히 식지 않는다고!

아, 그런 사랑, 그런 행복을 내 작은 가슴에 꼭 채워준 조국이며, 고마운 어머니시여!



광화국기벌

김성호

1

대형선박 《명산》호는 멀고먼 대양으로 항로를 이어가고있었다.

붕—

궁글은 배고동소리가 멀리로 울려갔다.

전해남선장은 몇시간동안 갑판우에 나와서서 불안한 눈길로 번덕스러운 바다날씨를 살피보고 있었다.

《끼룩! — 끼룩!》

갈매기들이 이제 들이닥치게 될 재난을 예고하는듯 부산스럽게 울어댔다. 아니나다를까 까만 구름들이 점점이 뿔다싶더니 금시 뭉게뭉게 퍼지며 하늘을 덮어오고있었다. 그와 동시에 쿵알만한 비방울이 떨어지고파도가 거칠게 넘실대기 시작했다. 꼬리가 큰 물기둥이 자그마한 나무잎같은 선박을 이리저리 다그쳐대니 배가 하늘높이 코를 세웠다가 물면에 거꾸로 박히었다.

《명산》호는 파도의 역센 타격을 받을 때마다 선체를 부르르떨면서 어둡속을 간신히 헤쳐나갔다. 별 하나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

해남은 부선장에게 탐조등을 켜라고 지시하고는 조종실로 뛰어갔다.

《제길… 이거야 술에 취한것 같아서 어디 몸을 가눌수가 있나. …》

《견디여낼겁니다. 아무렴 이 1만 t 짜리 짐배가 쪽배처럼 뒤집히기야 하겠습니까. …》

항해사의 곁에서 중심을 겨우 유지하며 서있던 선원이 위안하러들었다. 허나 그의 얼굴에도 벌써 공포가 그물처럼 감겨있었다.

순간 해남선장이 들어서며 벌컥 증을 내었다.

《제길… 웬 말공부들이요? 뭇들 하고있소? 어서 설비들과 파손되기 쉬운걸 바줄로 비끄러매시오!》

선원은 뒤걸음치더니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몇걸음 못 가서 바닥에 나딩굴었다. 배는

사정없이 진동하였다.

탐조등은 바다물이 런속 덮치는 속에서도 마스트꼭대기를 간신히 비치고있었다. 파도가 갑판우를 곱등어처럼 날아넘는다.

해남은 바다물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갑판 한가운데 떡 버티고서서 소리쳤다.

《바줄로 비끄러매! 젠장…》

파도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배는 점점 어데론가 끝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선원들은 당구알처럼 여기저기 부딪치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파도는 더욱 사나워졌다. 밀려갔다가는 다시산 같이 일어서며 짐배를 들이쳤다. 그때마다 《명산》호는 살맞은 짐승처럼 새된 비명을 지르며 선체를 부르르 떨었다.

해남이 역시 날아드는 파도에 맞아 갑판우에 나딩굴었다.

(아… 그러니… 이젠 끝장이란 말인가?!)

다리아래로 힘이 빠져나가며 근육이 매시시 풀리었다. 해남은 숨을 크게 들이키며 배에 힘을 주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고 했으나 배가 무섭게 진동하는 바람에 또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바닥에 부딪친 이마에서 선지피가 흘러내렸다.

목구멍이 찢절해났다. 숨이 막혀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덮쳐드는 바다물이 그의 목구멍으로 흘러넘어갔던것이다.

파도는 머리를 물어헤치고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그것은 마치도 중세기 대륙을 진강했던 기병군단들의 파도식공격을 런상케 했다. 일진이 진격하여 배를 들이치면 이진, 삼진이 런속 들이쳤다. 바다의 힘은 정말로 무한하였으며 거대한것이였다. 무전수가 계속 조난신호를 날리고있었다.

해남은 그 어떤 조난신호도 자기들을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지금 바다우에는 모두 조난자들만 있을뿐이다. 비행기도 뜰

수 없다. 구원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아니다. 우린 기어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조국으로...)

해남은 벌떡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명산》호는 또다시 강을 건너온 부루마가 몸을 털듯이 선체를 부르르 떨었다. 거대한 진동에 바줄로 비끄러맨 커다란 짐합들이 요동을 치더니 예리한 부위에 둘러친 부분이 터져 나가기시작했다. 바줄은 끝내 툭 끊기였다. 동시에 묵직한 번침목이 해남의 잔등을 보기 좋게 면바로 내리찍었다.

《억!》

해남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이때였다. 뜻밖에도 그의 몸이 왼쪽으로 기울고있었다. 아니, 배가 기울어지고있었던것이다.

창졸간에도 배가 기울어진다고 생각하자 해남은 숨이 꺾 막히었다.

(배가 뒤집혀지는구나!)

이젠 모든것이 끝장이다. 배도 사람도 화물도 대양깊이 수장될것이다. 배는 계속 기울어지고있었다.

어데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암초에 걸렸다!》

해남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고 했으나 무거운 각목에 깔린 몸을 좀처럼 뺄수없었다.

...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린다.

《일어나! 줄장부같은 자식! 넌 군관의 아들이다. 군관의 아들이!》

...

해남은 선원들이 자기를 부둥켜안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선장동지! 배가 뒤집힙니다. 선장동지!》

부선장이 젖은 얼굴로 해남을 쳐다보았다.

《선장동지,어서 결심하십시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

그 말에 해남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젠 마지막일수도 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해남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짙막하게 명령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안전함에 모시고 배에서 탈출합시다.》

해남은 항상 파도사나운 풍랑우를 헤쳐나가는 속에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배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위할 안전함을 만들어 매 방에 두게 하였다. 안전함은 특수하게 제작되어있어 몇십년동안 바다물속에 있어도 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탈출준비를 갖춘 선원들은 기울어진 갑판우에 간신히 정렬하였다. 파도가 말채찍처럼 공중을 베이며 해남과 선원들의 얼굴을 호되게 후려쳤다.

다.

키가 작고 몸이 다부진 해병출신의 갑판원이 바줄을 몸에 감고 물에 뛰어들었다.

파도가 기다렸던듯 단숨에 선원을 삼켜버렸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해남은 줄곧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룽지쪽만 바라보았다. 한참후에야 저쪽기슭에서 헤엄쳐간 선원의 해병사쓰가 언뜻 보였다.

해병사쓰는 계속 뭐라고 소리치며 팔을 내흔들고있었다. 해남은 선원의 팔움직임이 그 어떤 글자를 새김을 알았다.

그렇다. 분명 선원은 《물》이라는 글자를 새기고있었다.

《물이다! 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흐느껴울었다.

배가 밤새 밀려오더니 어느새 물에 다달았는가. 여기가 어딜까? 혹시 조국땅에 다 온것이 아닐까? 별의별 엉뚱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덮쳐들었다. 혹시 섬이라면?! 들쭉날쭉한 암초에 부딪쳐 선체 어딘가 구멍이 뚫어졌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날이 환히 밝았다. 해남은 여전히 쌓안경을 들고 룽지를 유심히 살피보았다. 낮선 풍경이었으나 건물들에 써붙인 일본글자들이 또렷이 보였다.

《?!》 그곳은 바로 일본령도였던것이다. 물에서 나온 룽이 개미들에게 뜯기운다고 했던가. ...

개미가 아니라 이 세상 제일 간특한 일본이 이제 이 《룽》을 뜯어먹자고 달려들것이다.

벌써 해안가에서 싸이렌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여기저기서 경보등을 번쩍거리며 새까만 경찰차들이 련이어 들이닥쳤다. 조용하던 해안가는 무너진 개미둥지를 련상케 했다. 온 일본땅이 죽가마끓듯 하였다.

신문, 방송들은 이 소식을 승벽내기로 보도했고 바야흐로 여기저기서 승냥이, 여우들이 느침을 흘리며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2

일본은 뜻밖의 사건에 한동안 어리둥절하였다.

미국과 협동하여 반공화국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이 좌초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을 구조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것이다.

정계의 인물들은 공화국에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새여들어가지 않게 경제제재를 하고있는 이때 북조선선박을 구조해주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앞에 흰기를 드는것으로 된다고 로골적으로 내놓고 지껄였다. 사실 그들의 속심에는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의 뒤시중을 하는데 들게 될 돈을 먼저 생각하는 리기적인 타산도 없지 않았다.

미국은 막뒤에서 은근히 일본을 부추기면서 《명산》호를 돌려보내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입김을 받은 일본은 《명산》호를 장차

반공화국책동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음모를 꾸미었다. 일본반동들은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박 《명산》호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내리우게 함으로써 어리석게도 《북조선봉기》의 서막을 열어보려고 꾀하였다.

...

혼다는 자기가 《명산》호사건을 직접 말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몹시 불안했다. 아직 북조선과의 싸움에서 어느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는 일본이 아닌가.

혼다는 이 사건에 씨먹을 인물로 ○○텔레비죤 편집국장 고바야시를 선택하였다. 그 시각 고바야시는 온탕의 덕수에 살진 잔등을 대고 조용히 두눈을 감고있었다. 향을 풀어놓아서인지 피여오르는 더운 물김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그의 후각을 유쾌하게 자극하였다.

물위에 칸막을 친 저쪽너머에서 녀인들의 요염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바야시는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전기에 감전된 고양이처럼 턱을 쳐들고 걸어오는 수영복차림의 안내원을 쳐다보았다. 처녀는 습관된듯 미소를 흘리며 고바야시에게 고개를 까딱해보였다.

《저기 누우세요.》

고바야시는 타올로 몸을 가리고는 안마용침대에 엎드렸다. 처녀는 희고 긴 손바닥우에 기를 쓸고는 고바야시의 살진 잔등에 바르기 시작했다. 처녀가 허리를 굽힐 때마다 하이얀 가슴팍이 눈길을 자극한다.

《따르릉...》

탈의실에 걸어놓은 고바야시의 양복주머니속에 들어있는 휴대용손전화기에서 신호음이 계속 울려왔다.

《가져와...》

처녀는 고바야시의 귀에 전화기를 가져다대었다. 전화기에서 상판인 혼다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고바야시군인가? 미안하네. 급히 나와주게... 정황이 생겼네.》

혼다가 어지간히 흥분한걸 보면 새 소식거리라도 생겼는가? 어쨌든 큰 일감이 생긴것이 틀림없었다.

고바야시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처녀에게 던져주고는 황급히 옷을 주어입었다.

현관앞에는 어느새 혼다가 승용차를 대기시켜놓았다. 고바야시는 승용차에 올랐다.

혼다는 아무 말없이 차를 간선도로쪽으로 내몰았다. 고바야시는 힐끗 혼다를 쳐다보았다.

차는 어느새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고바야시는 금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북조선집배가 우리 일본땅에 올랐소.》

《예?! 배가 땅에 오르다니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

《젠장!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되었단 말이요!》
혼다는 벌떡 성을 냈다. 만사태평한 고바야시가 미웠던것이다.

배가 물에 오르다니?! 고래가 도표 한복판에 나타났다고 해도 이보다는 놀랍지 않을것이다.

혼다는 자기가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허... 기자들이란 입이 험해저던... 지금 항간에서는 북조선군함이 려도에 나타났다는 랑설들이 봄바람에 말뚝 굴러다니듯 한다니까. ...》

고바야시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쥐도 막바지에 이르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혹시 선원들이 고립과 봉쇄를 이겨내지 못하여 집단이주라도 시도한것이 아닌가. ...

승용차는 어느덧 해변가를 끼고 달렸다. 차창너머로 모래불에서 알몸으로 나딩구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젠 보라색꿈에서 깨어나오. 그만큼 계집에게 잠겨있었으면야 이젠 일을 해야지.》

혼다의 말은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어투였다.

《내 말을 명심하오. 당신이 이번 일에서 해야 할 몫이 크오. 그 비상한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보란 말이요. 혹시 알겠소?! 당신이 북조선을 붕괴시키려는 우리의 <력사적위업>의 첫 서곡을 울려줄지...》

고바야시는 혼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였다.

(북조선은 동유럽과 다르다. 그들은 특수한 리념을 가진 특수한 인간들이다. 미국도 북조선이라는 밤송이때문에 땀을 뺀고있는데 굴복하기 잘하는 우리 일본이... 이러다가 자는 범 코침 놓는 격이 아닐가?!)

드디어 승용차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불우에 거대한 짐배가 올라앉아있었다.

《아! 이거... 기니스기록집에 오를만 한 일이군!》

고바야시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혼다는 벌썩 웃었는데 그것은 흡사 승냥이가 웃는것처럼 소름이 끼쳤다. 고바야시가 흥분한것이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혼다는 모밀눈을 가늘게 쪼프리며 마스트우로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쏘아보았다.

《고바야시, 당신은 어떻게 하나 저 기발을 내려야 하오! 무슨 뜻인지 알겠소?》

《!...》

고바야시는 침을 꿀꺽 삼키었다. 그제야 그는 자기가 그 어떤 커다란 함정속에 빠졌다는것을 느끼었다. 이거야말로 생쥐가 소대가리를 맡은격이 아닐가?! 거대한 산불도 한가치의 성냥불에 의하여 일어난다. 장차 이 일로 조일간의 그 어떤 모순이 격화되면 북중하기 잘하는 정부가 고바야시 자기의 목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는것을 무엇으로 담보하겠는가?!

《고바야시, 너무 긴장할것은 없소. 배는 확실히
게 파괴되었고 선원들도 가혹한 해난속에서 부상을
당했소. 말이 짐배이지 동력을 잃은 배는 커
다란 무덤으로 변했소. 무덤! 하하…》

고바야시는 여전히 짐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물었다.

《배에는 선원들이 있습니까?》

《선장 한사람이 남아있소. 선원 23명은 지금
오구노동장건물에 있소. 명심하오. 고바야시군,
저 배는 그저 하나의 선박이 아니라 북조선의 상
징이요, 장차 피멸을 앞에 둔 북조선! 알겠소?》

그렇다. 저 짐배는 북조선의 상징이다. 고립무
원한 망망대해에서 외로이 떠다니다가 물에 오른
짐배, 유일한 지령점이던 바다마저도 배를 외면
하고 물으로 밀어던졌다. 물에 오른 고기나 물에
오른 짐배나 뭐가 다른가?! 사회주의린방이 없어
진 오늘 북조선은 저 짐배와 같다. 물썰틈없는
붕쇄의 포위환과 고립이라는 쇠사슬들에 둘러막
힌 북조선. 정말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가 아
닐가.

항목에서 경찰들이 립시로 차단봉을 설치하느
라 분주히 움직이고있었다.

도로옆에는 어디서 실어왔는지 큼직한 가설막
까지 몇개 보였다. 여기저기서 수십대의 경찰차
들이 소란스러운 경보신호를 울리며 바퀴새끼처럼
끓었고 바다에서는 해상경찰대의 패속정들이
잔파도를 베이며 질주하고있었다.

20분후에 고바야시는 혼다와 함께 방풍림속에
서있는 단층벽돌집앞에 도착하였다. 건물은 제때
에 보수를 하지 않아초라하였다.

혼다는 승용차뒤좌석에 등을 기대며 고바야시
에게 얼굴을 돌렸다.

《선원들은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거요. 정치부선장과 선원들을 갈
라놓으려 했지만 실패했소.》

《그들의 요구조건은 뭐니까?》

《부상자들을 총련에 넘겨주고 〈명산〉 호의 실
태에 대하여 자기 정부에 통보하라는거요. … 그
리고 자기들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건데
… 흥! 지금은 신념이요 뭐요 하지만 며칠만 지
나보지. 다리부러진 호랑이가 가면 어딜… 하하,
어서 가보오.》

고바야시가 차에서 내리자 모래폭풍이 휘몰아
쳤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눈에 들어간 모래를
비벼대느라 고양이 세수하듯 하였다. 간신히 건
물안에 들어서니 선원들이 한 곳에 서있는데 그
들의 정상은 말이 아니었다. 입고있는 옷은 다
찢어져 빨간 살이 드러났고 풍랑에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얼굴들은 온통 모래범벅이 되어있었다.
선원들은 반찬판에 새여든 고양이같은 고바야시
의 반질거리는 상판을 묵묵히 쳐다보기만 했다.

《에… 나는 ○○텔레비존 편집국장입니다. 당
신들에게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방조를 드리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선장이 덩덤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 방조라는게 대체 뭐요?》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최상의 생활조건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 일본으로 집단
영주를 하는 조건에서만… 이 모든것이 가능할것
입니다.》

순간 부선장의 눈에서 불이 켜졌었다.

《그게 당신의 요구요? 정부의 요구요?》

《저… 나… 개인의 권고랄가, 당신들은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북조선은
…》

부선장이 버럭 소릴 질렀다.

《닥쳐!》

눈치빠른 고바야시가 얼른 자기의 실수를 깨닫
고 표현을 바꾸었다.

《실례했습니다. 에… 지금의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매우 혹심한 경제난관을 겪고있습니
다. 설사 당신들이 귀국한다 하여도 저렇게 동력
이 멎은 짐배안에서의 생활보다 좋은 생활조건은
보장받지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인권을 존
중하는 일본의 한 언론인으로서 당신들의 집단영
주를 권고합니다. 만약 선장이나 정치부선장이
두려우면 우리가…》

고바야시는 말을 채 끝마치지 못했다.

누군가 앞에 놓여있던 죽그릇을 획— 내던진것
이다. 고바야시의 하얀 양복이 순식간에 얼룩이
지고 얼굴에서 죽물이 툭툭 떨어졌다.

3

배에는 해남선장 한사람이 남았다. 시간은 더
디게만 흘러갔다. 그에게 있어서 이 며칠동안이
웅근 1년보다 더 길어보였다. 조명이란 조명이
몽땅 꺼져버린 배안은 동굴속처럼 캄캄했다. 주
위는 고요했다. 다만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일본
해상경찰선들의 엔진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해남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시큼한 트림이 올라오며 위가 쓰러났다.

그제야 그는 자기가 이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
지 않았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겨우 몸을 유지하며 선원식당으로 내려갔
다. 식당안은 수라장이었다. 해남은 다행히도 손
전지를 하나 찾아들고 여기저기 비쳐보았다.

그는 랭동기문을 열었다. 안에서 역한 냄새가
퐁겨나오며 코를 자극했다. 해남은 행어나하여
선실식당옆에 있는 창고안을 훑어보았다. 손더듬
해보니 손바닥에 부패된 식품들이 끈적끈적 묻어
났다. 바닥에도 그것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득진득한것이 신
발바닥에 묻어났다. 그는 한걸음 내짚다가 썩은
냄새를 밟고 쪽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후…》

그는 한숨을 토했다. 문득 당반우를 쳐다보니 바줄로 쫘쫘 묶은 자루가 보였다. 일어나 그것을 내리여 풀어보니 적은 량의 쌀과 말린 가지가 들어있었다. 해남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갑판위로 올라왔다. 배가 바다쪽으로 기울어진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도 건너편에서는 볼수가 없었다.

해남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겨우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모래불에 발을 대는 순간 모든 긴장이 발밑으로 쑥 빠져나가는것 같았다.

그는 아예 뒤로 벌렁 드러누웠다. 집채같은 배가 거꾸로 서서 해남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다. 사각사각한 모래알들이 그의 목언저리에 스며들어 간지럽힌다.

(일어나야 한다. … 그래… 일어나야… 옥!)

일어나려했지만 몸은 점점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졌다. 자꾸만 눈꺼풀이 내리덮인다.

(일어나야겠는데…)

해남은 량팔을 쭉 펼친채로 량손에 짊짊한 모래를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쑥— 힘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물속으로 들어갔다.

잔파도에 미역줄기들이 드문드문 밀려나왔다.

해남은 새파란 미역을 하나 건져들었다. 건져낸 미역의 미끈미끈한 감각이 손을 부드럽게 자극했다. 한줌 쥐여 입안에 넣으니 목구멍으로 주르르 넘어갔다.

(이것도 괜찮아…)

겨우 허기증을 달랜 그는 여기저기 다니며 마른 삭정이들을 주어모았다.

그는 손도끼로 나무들을 잘게쪼개여 모래불위에 가지런히 꽂아놓았다. 그리고는 신기한듯 오래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불쑥 어린시절 뛰놀던 고향집 울바자, 구기자넝쿨 감기여울라간 그 울바자가 안겨왔다.

봄비에 젖은 숲속에서 지저귀던 새들의 우짖음소리로 들려온다.

해남의 얼굴색이 밝아졌다. 그는 마른 나무들을 다시 우물정자로 쌓고는 불을 지핀 다음 그우에 남비를 올려놓고 쌀을 안치었다.

풍랑에 음료수통이 파손되다보니 바다물을 그대로 두었다.

잠시후 남비뚜껑이 푹푹득득 들추더니 구수한 밥냄새가 풍겨왔다.

해남은 저도 모르게 선원들을 생각했다.

(지금쯤 그들도 일본본동들의 모략책동을 짓부시며 용감히 싸우고있을것이다.)

해남은 남비뚜껑을 열어보았다. 모두가 함께 먹으면 몇순갈씩밖에는 차레지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원들이 꼭 돌아올것만 같았다.

해남은 남비안의 밥을 한순갈도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갑판까지 가지고 올라왔다.

또다시 며칠이 지났다. 몹시 참기 힘들 때면 남비뚜껑을 열고 밥냄새를 맡아보았다. 하지만 결면이 팻팡 마르면서 그 구수한 밥냄새도 점점 없어졌다.

어느날 오후였다.

경찰선전차의 고성기에서 이런 조선말이 울려나왔다.

《〈명산〉 호, 듣는가? 선원들이 돌아간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

해남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옆에 있는 닻권양기의 쇠바줄에 겨우 몸을 유지하며 앞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선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있었다.

제일 앞에 선것이 부선장이었다.

《부선장!》

해남은 이렇게 부르짖었으나 목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선장…동…지!》

두사람은 와락 그러안았다. 역대우같은 사나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선장동지!》

선원들이 와락 해남을 둘러싸며 껴안았다.

《선장동지… 부상자들을 총련조직에 무사히 넘기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집단영주를 요구하기에 우린… 단식투쟁을 하고 이렇게… 공화국기발이 휘날리는…》

《됐소… 됐소. …》

해남은 부선장의 손을 다시 꼭 틀어잡았다.

순간 선원들이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모든 긴장이 다 풀렸던것이다. 해남은 그제야 지금껏 먹지 않고 전사해두었던 《소금밥》생각이났다.

《자, 배들 고프지… 내가 밥을 해놓았소… 많지는 않지만… 나누어… 먹읍시다.》

하지만 선원들은 해남이가 내놓는 밥그릇이 아니라 어딘가를 하염없이 보고있었다.

그들이 한결같이 바라보고있는것은 마스트꼭대기에서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이었다.

선원들은 한사람한사람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공화국기발앞으로 걸어갔다.

해남은 목구멍이 알알해났다.

아, 공화국기발! 그것은 선원들에게 있어서 정다운 부모형제,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어머니 조국. 아, 그 기폭속에 고향집모습이 가슴뿌듯이 안겨왔다.

…

오래간만에 아버지들이 학부형총회에 참가하였다.

아이들은 창문가에 달라붙어 저마다 아버지들의 별을 세기 시작했다. 어린 해남이도 눈을 빛내이며 창문유리에 바짝 얼굴을 디밀었다.

(하나, 둘...)

불쾌감과 서운함이 차분히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아버지의 어깨에는 별이 세개밖에 없었던 것이다.

좀더 있었으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엉뚱한 아이는 다음날 어데 가서 술한 병들을 구해가지고 와서는 아버지의 령장에 달아놓았다.

그후 어느날 우물가에서 너인들이 주고받는 말이 집에 돌아오는 해남의 아버지의 귀에도 들려왔다.

《아유, 우스워... 글썄 해남이가 자기 아버지의 어깨에 별을 7알씩이나 달아놓았대지요.》

《7알이 뭐냐요? 8알이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저 밤송이같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해남아, 세상에서 제일 큰 별이 무엇인지 아느냐?》

《?...》

아이는 머루알같은 두눈만 반짝였다.

아버지는 장안에 고이 간수한 공화국기발을 꺼내 펼쳤다. 기폭이 방바닥을 다 덮었다.

《자, 보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별이다. 이 별은 아버지원수님이시고... 붉은 기폭은 항일혁명선열들이 흘린피를 상징한거다. 또 이 푸른색은 끝없이 번영할 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거구 하얀 색은 백두산의 흰눈이란다. ... 이 기발속에 아버지도 있고 너도 있고 또 우리 고향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기발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초소에 나가는거란다.》

소년은 오래동안 공화국기발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작은 가슴에 새겨진 조국의 첫 모습이였다. ...

그 기발이 지금 낫설은 일본땅에서 펄럭이고있다. 해남은 목숨바쳐 지켜야 할 공화국기발의 무게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오래동안 한자리에 쇠로 부은듯 서있었다.

4

고바야시는 《명산》호에 대한 텔레비존편집물을 만들어내고 첫 방영을 시작하였다.

그날 밤 고바야시는 자기의 제작품을 흐뭇하게 감상하고있었다.

텔레비존화면에 산발을 한 너방송원이 나타났다.

《지금 북조선선박 〈명산〉 호는 기아의 극한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화면에는 《고난의 행군》을 겪고있는 북조선인들의 모습도 삽입되였다. 어데서 수집했는지 고바야시는 가장 처절한 장면들만 골라서 편집하

였던것이다. 화면에 너방송원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명산〉 호 선원들은 지금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일본정부가 필요한 구조물자들을 보장해주려고 했지만 선박을 책임진 그 어떤인물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원들은 삶을 찾아 집단영주를 바라지만 바로 그때문에 생을 기약할수 없는 죽음의 함정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있습니다. 여전히 북조선정부는 침묵을 지키며 그들에게 구조비를 보내주지 않고있습니다. ...》

고바야시는 자기가 직접 쓴 글이지만 이렇게 시청자의 심정에서 다시 들으니 흐뭇해났다.

따르릉!

휴대용손전화기소리가 울리였다.

전화기에서 혼다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혼다는 웃고있는듯싶었다.

《고바야시군, 축하하네. ...》

《감사합니다.》

고바야시는 눈을 쏘프리며 미소를 머금었다.

《자네의 편집물에 대한 여론들이 대단하네. 미국사람들도 만족했네. 이젠 마감장을 장식해야지.》

《예? 물...론...》

어쩐지 고바야시는 떠듬거려졌다. 마감장이란 《명산》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를 내리우는것이였다.

(하지만... 이것만은 자신없다. 이것만은...)

고바야시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싫든좋든 끝까지 해야 할 일이였다. 고바야시는 별떡 자리에서 일어나 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장안에서 로씨야워드까를 한병 꺼내들고 병채로 꿀꺽꿀꺽 마시였다.

(기어이 성공할테다! 성공하면 이 고바야시의 이름은 서방에서 영웅처럼 빛날것이며 은행의 구좌에는 거액의 돈이 흘러들것이다.)

그는 술병을 바닥에 획 내동이었다.

다음날이였다.

적십자완장을 팔에 두른 사람들이 우르르 《명산》호가 서있는 앞으로 밀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큼직한 식료품지함들이 들려있었다.

그들중 한놈이 메가폰을 들고 조선말로 웨쳐대기 시작했다.

《우린 인도주의단체요. 당신들을 위해 식료품을 가져왔소. 어서 내려오시오!》

하지만 배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놀음은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계속되

였다.

어느덧 《명산》호앞에 커다란 식료품《산》이 생겨났다. 그래도 갑판우의 사람들은 좀처럼 반응이 없었다.

며칠동안 승용차안에서 이 모든것을 주시하던 고바야시는 끝내 인내성을 잃고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젠장! 그 자식들이 다 굶어죽은것이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수 있는가?)

고바야시는 무선대화기를 들고 《명산》호주위를 감시하고있는 경찰서장을 찾았다.

《나 고바야시요. 〈명산〉호의 선원들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는가?》

《직승기에서 촬영한데 의하면 그들은 짐배안에 얼마간 남아있던 말린 부식물들을 물에 불귀먹고 있다. 때때로 밤에 내려와 파도에 떠밀려오는 미역들을 건져가지고는 다시 배로 올라간다. 그들이 아직 숨이 붙어있으니 걱정할것은 없다.》

고바야시는 대화기의 전원을 끄고 다시 생각에 빠졌다.

(아니다. 로련한 낚시군일수록 미끼를 아끼지 않는다. ... 좀더 인내성을 가지고 기다리자.)

고바야시는 매일같이 적십자회원으로서 둔갑한 자기의 줄개들을 들이밀었다.

식료품지함은 계속 쌓였다. 다만 《명산》호만이 팽담한 표정으로 그 모든것을 지켜보고있었다.

고바야시는 점차 불안해졌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가?! 그들이 화석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날자가 흐르자 혼다는 고바야시를 달구어댔다.

《여보, 고바야시군, 우리에게엔 시간이 없소. 지금 북조선측에서는 〈명산〉호의 구조를 늦잡는다고 정부에 독촉이 불гал소. 게다가 총련사람들이 〈명산〉호에 대한 방문을 조직해달라고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있소. 조금만 늦추면 평양은 또 도포를 불러내다가 세계가 보는 앞에서 후려칠것이요. 우린 더이상 총련사람들의 요구를 물리칠수가 없소. 당신은 50일을 잃었다는것을 명심하시오!》

혼다의 말은 위협적이였다. 고바야시는 혼다가 50일이라고 말했을 때에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50일, 거의 두달이다. 도포도 평양에 대고 구조작업을 더이상 지연할 구실을 대지 못할것이다.

고바야시는 더는 뒤에서 지켜볼수가 없었다.그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모래불우에 불고기관들과 구이판들을 차려놓게 하였다. 그는 야외주방설비들도 한가득 실어나놓았다.

곧 주변에 음식을 만드는 각이한 냄새가 짙었다. 선원들은 갑판우에서 이 모든것들을 묵묵히

지켜보고있었다. 이때까지 간신히 파도에 밀려오는 미역이나 먹으며 견지하였는데 이제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다.

부선장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앉으며 중얼거렸다.

《허... 날마다 식사질이 높아지는걸... 엠병할 놈들같으니... 산사람을 놓고 제를 지내다니. ...》

해남은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선원들모두가 조용히 두눈을 감고있었다. 악착한 놈들이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작전을 끈질기게 내밀었으나 《명산》호선원들의 불굴의 신념만은 굽힐수 없었다.

5

선원들은 그 누구도 꿈쩍하지 않았다. 갑자기 제일 나이가 어린 선원이 돌아왔더니 모래불쪽을 바라보며 벌떡 증을 냈다.

《불여우같은 놈들!》

해남은 그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어때... 꽤 견딜만 해?》

《예. 설사 굶어죽는다 해도 저 왜놈의 처마밑으로는 한결음도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이때 누군가 버럭 소리를 쳤다.

《참. 선장동지, 저놈들이 메스꺼운 왜로리냄새를 풍기는데 우리도 우리의 냄새를 풍겨봅시다.》

《어떻게?!》

해남은 신기한듯 그 선원을 쳐다보았다.

선원은 자기의 가죽혁띠를 풀더니 손칼로 토막 토막 잘라내었다.

《아니? 그럼...》

《선장동지는 제격 알아차리는군요. 우리가 회상기학습을 왜 하였습니까? 우리도 항일투사들처럼 가죽혁띠국을 끓여먹으며 저놈들과 싸웁시다.》

《하, 기발한 생각이야. ...》

선원들은 저마다 가죽혁띠를 풀어냈다. 잠시후에 남비안에서 《가죽혁띠국》이 끓었다.

그것이 다 끓여졌을 때, 김이 서리는 남비뚜껑을 열 때 그들의 기쁨이란 이루 다 말할수가 없었다. 세상에 그보다 맛있는 음식이 또 어데 있겠는가. ...

하지만 《가죽혁띠국》도 며칠이 지나서 바닥이 났다. 선원들은 다시 자리에 쓰러졌다. 해남이도 더는 일어날 기력이 없었다.

(아니... 내가... 쓰러지면 안된다. 정신을... 정신을 차려야겠는데...)

어데선가 《붕—》하고 울리는 배고동소리가 들

려왔다. 해남은 눈을 떴다. 그리고는 허영게 조각이 든 입술에 침을 발랐다. 귀에서는 벌레가 우는듯 한 소음이 웅—웅거렸다. 눈앞이 뿌영게 흐려졌다. 자꾸만 감겨지는 두눈을 해남은 번쩍 떴다. 그의 눈길은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더듬어 찾았다.

(안된다. 나에겐 목숨을 버릴 권리가 없다! 저 공화국기발을 지켜야 할 전사의 의무만이…)

그는 손더듬으로 바닥을 훑었다. 뽀족한것이 손에 잡혔다. 깨어진 탐조등의 유리조각이었다. 그는 유리조각을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으로 자기의 장판지를 사정없이 찢었다. 아픔이 느껴지면서 정신이 들었다. 숨이 멎치끝에 모여든다.

그는 어금이를 꼭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피가 묻은 유리조각을 잡고 련속 장판지를 찢었다.

잠간사이에 바지가 피범벅이 되었다. 얼굴에 찬물을 뒤집어쓴것처럼 얼마간 정신이 맑아졌다.

그는 선실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일어났다.

《동무들…》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동무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자기의 목에 걸려있는 호각이 생각났다. 선원들의 귀에 익은 새울음소리를 내는 해병호각이다.

《호르…룩…》

유정한 호각소리에 선원들이 하나둘 눈을 떴다.

《동무들… 힘을 냅시다. 쓰러져선 안되오. … 지금 이 시각도 어머니조국은 우리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있을것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저 공화국기발을…》

해남은 더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다. …

우리 공화국정부의 강경한 요구와 총련동포들의 투쟁 그리고 《명산》호 선원들의 신념과 의지 앞에 일본당국은 더는 오그랑수를 쓸수 없었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명산》호에 대한 구조작업을 시작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혼다는 난처하게 되었다. 상급은 우리안에 가뒤통은 짐승도 길들일줄 모르는 무뎡한 인간이라는 평을 내리었다.

이것은 혼다의 운명에 내린 사형선고나 같았다.

(모든것이 그 빌어먹을 고바야시탓이다.)

혼다는 사건이 실패한 이상 사건관계자들을 처리하여 비밀을 엄수하라는 상급의 비밀지령을 받고 고바야시를 없애버리려고 결심하였다.

그날 밤 고바야시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고바야시가 저승으로 간 다음날 아침 《명산》호 선원들은 총련동포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랐다.

총련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현본부의 위원장, 간부들…

선원들과 동포들은 서로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었다. 총련동포들의 도움으로 원기를 회복한 선원들은 하루빨리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으나 구조작업은 매우 급르게 진행되었다.

구조작업이 다 끝났을 때 혼다는 려치불구하고 《명산》호에 올랐다. 그는 이미전부터 텔레비존화면에서 낯을 익힌 해남선장을 직접 만났다.

《에… 나는 신문사기자 이시로입니다. … 선장님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에… 배를 몇년이나 탔는가요?》

해남은 그저 빙그레 웃었다.

《난 타고난 배군도 아니요. 그저 3~4년 배를 탔을뿐이요.》

《어떻게 되어 80여일이라는 짧은 나날을 이 지배와 운명을 함께 할수 있었는가요?》

해남은 대답을 피하고 머리를 돌려 공화국기발을 우러러보았다.

혼다도 반사적으로 그 기발을 쳐다보았다. 혼다 자신이 그렇게도 내리우려고 발광을 하였건만 공화국기발은 여전히 한본색로 펄럭이고있다.

《에… 난 당신들의 신념과 의지에 탄복하였습니다.》

《신념과 의지?!》

해남은 혼다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번에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것은 결코 선원들의 그 무슨 의지의 덕분이 아니요.》

《그럼?!》

《그것은 바로 우리 공화국이 강하기때문이요.

우리 나라가 힘이 없었더라면 당신들은 이 선박은 물론 우리까지 눈 한번 깜박않고 삼켜버렸을거요.》

《!…》

《저 공화국기발은 곧 우리의 조국이며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이시요. 우리 장군님이 강하시기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구조에 응한거요.》

해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듯 책 돌아서서 조라실로 걸어갔다.

잠시후 《명산》호는 길게 고동을 울리며 바다로 나갔다.

일본은 불덩이를 삼킨 두꺼비마냥 망연자실한채 멀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조국에 첫 인사 드리며

(총련)고 찬 유

머나먼 이역땅에 태어나
책속에서만 그림속에서만
그려보던 조국땅
노래로만 불러보던 어머니조국이여
나는 이제야 조국땅에 첫 인사를 드린다

키높이 자란 강가의 버드나무
설레이는 가지들은
어머니의 술많은 머리카락인가
창가에 비쳐드는 맑고 고요한 하늘
이랑이랑 갈아빈진 부드러운 흙은
포근한 젖가슴처럼 나를 안아준다

아, 어머니품이여
이 정답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길 없어
이역만리 하늘아래 떠돌며
눈물속에 이 아들을 낳아 기른
부모들의 숨막히던 그 원한 어이 잊으랴

숨저도 눈감지 못한채
조국의 하늘을 그리며
세상을 떠나가던 부모들의 그 눈빛이여

이역살이 사나운 비바람속에서도
피흘리며 쓰러지는 투쟁속에서도
목청껏 부르고부르면
솟구치는 힘으로 뜨거운 숨결로
온 가슴을 더웁혀주던 나의 조국

수난의 긴긴세월과
간악한 원쑤와의 싸움속에서
력사의 엄혹한 시련이
수없이 갈마들었건만
조국이여 그대는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이토록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하늘땅에 높이 솟아 빛나는것인가!

어디 가나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내 나라
길가에 나서면 나를 부르듯 모두가 청다운
목소리
공장에 가면 온 공장이 기다린듯
기대마다 불꽃날리며 에워싸고
농장벌에 서면 끝없는 벌판이
황금가을을 속삭이며 반겨주는 땅

아 구름비긴 푸른 산밭도 땅도
마을과 거리도
하늘가에 치솟은 저 높은 집들도
울려퍼지는 저 고동소리도
모두가 나의것—우리의것
사회주의조국이여!

이역에서 태어나 자라
그대 위하여 벽돌 한장 쌓은 일 없이
자라온 몸이건만
이국살이 한많은 설움 씻은듯 가져주며
그대는 다 주고있구나
그 모든것 서슴없이 아낌없이 안겨주며...
두불을 적시며 나는 운다
조국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 태어나 자랐어도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같이 그품에 안아주는
어머니조국

이 조국을 이 땅우에 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 한없는 사랑이여
너무도 크나큰 행복과 영광에
두불을 적시며
나는 조국땅에 첫 인사를 드린다

세계경구, 격언

- 《조국이란 이름보다 더 향기로운 말은 없다》
- 《조국없는 사람은 어머니없는 아이》
- 《백골도 조국이 그리워 운다》
- 《애국주의란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있다. 애국주의는 조국과 떨어져 살수 없다는 자각이며 조국과 고향을 같이하며 느끼는 감정이다》
- 《조국에는 세계의 그 어떤 도리보다도 강하다》
- 《힘은 어머니품에서 키우고 슬기는 조국의 품

에서 배운다》

- 《조국—우리는 조국이 있어 힘을 얻고 창조력과 기쁨을 가진다》
- 《만일 자기 조국이 당신을 모독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자신이 자기를 모독하는것이다》
- 《자기 조국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병사가 되어야 한다》
- 《조국에 도움을 주려는자, 쉽사리 조국과 떨어지지 않는다》

선군시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된 기념비적명작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에 대하여-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통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최대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신심과 락관에 넘쳐 총진군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또 하나의 경사로운 사변에 접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벽하게 구현한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온 나라를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고있으며 끝없는 격정에 끓게 하고있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우리 식의 관현악과 합창, 우리 식의 양상으로 특색있게 형성된 선군시대의 명작이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을 헤쳐오신 빨찌산대장 김일성동지의 헌신의 력사가 있어 혁명선렬들의 념원이 꽃피난 선군조선의 행복한 오늘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깊은 철학적내용과 장중한 음악적형상으로 사상예술성과 문학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한 작품은 새 세기 발전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주체적인 문학예술발전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주체54(1965)년에 창작된 가요 《눈이 내린다》(김재화 작사, 리면상 작곡)에 의거하여 선군시대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관현악과 합창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가요 《눈이 내린다》는 심오한 사상과 깊은 정서로 하여 세기를 이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숭엄한 감정을 안겨주며 끝없는 사색과 여운을 주는 서정가요의 대표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 <눈이 내린다>는 눈이 내리는 고요한 밤에 창가에 앉아 빨찌산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 밖에 실지 펼쳐진 화폭이 별로 없는데 한번 듣고 나면 그야말로 많은 연상이 떠오르고 깊은 여운에 잠기게 된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의 철학성과 문학성은 무엇보다먼저 가사형상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빨찌산이야기로 이밤도 깊어가는데

불밝은 창문가에 흰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밀림의 기나긴 밤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함박눈 송이송이 고요히 내린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념원 꽃핀 강산에
이 밤이 지새도록 흰눈이 내린다

가사에는 그 어떤 요란한 시적표현도 없고 수학적인 명구도 없다. 여기에는 다만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체험하는 고요한 밤하늘에 소리없이 내리는 흰 눈송이를 보며 생각하는 느낌의 세계가 있을뿐이다. 그럼에도 이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적인 시적표현이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가 우리 인민모두가 느끼는 한결같은 감정으로 노래되었기때문이다.

문학작품은 생활속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심원한 사상을 생활적형상을 통하여 밝혀내야 뜻깊고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그래야 사상적의도가 뚜렷하면서도 철학적으로 웅심깊고 두고두고 사색할수 있는 생활의 긴 여운을 주게 된다.

가사 《눈이 내린다》는 고요한 밤하늘에 내리는 흰 눈송이가 풍기는 미학적속성에 정서적계기를 두고 시형상을 창조하고있다. 흰 눈송이, 그것도 고요한밤하늘에 내리는 흰 눈송이가 안겨주는 정서는 깊은 사색과 여운, 추억과련상,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가슴찌릿한 환희의 감정이다.

가사 1절에서의 내리는 흰눈은 빨찌산대장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쳐온 혁명선렬들에 대한 추억의 감정을 담고있으며 2절에서의 흰눈은 1절에서 제시된 추억으로부터 환기되는련상, 항일빨찌산들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을 뜨겁게 회상하며 잊지 못해하는 절절한 감정을 담고있다. 이러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는 3절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선렬들이 념원하던 사회주의락원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무한한 칭송과 환희의 정서로 승화된다. 그리하여 내리는흰 눈송이는 빨찌산대장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일반화되어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가사형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뿌리와 전통을 감성적으로 심장에 되새기게되며 혁명적수령관의 철학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가사의 철학성과 문학성이 있으며 가요의 사상예술적기초를 마련해준 요인이 있다.

가요 《눈이 내린다》는 가사형상의 깊이있는 서정적형상과 선률형상의 독창적인 울림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주고있다.

우리의 서정가요에서는 안온하고 무기력한 서정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신념과 낙관, 창조적열정이 차넘치는 서정이 강렬하게 울려나와야 한다. 은근하면서도 생활에 대한 환희와 열정, 생기가 넘쳐나고 고상하면서도 기백이 넘쳐나고 부를수록 깊은 여운을 주고 신심을 안겨주는것이 우리 서정가요의 본성적특성이라고 볼수 있다.

노래의 선률은 고상하고 건전한 아름다움만을 반영해야 고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깊은 감흥을 주게 된다. 또한 선률은 아름다울뿐 아니라 유순하여야 한다. 선률이 유순하다는것은 가사에서 받은 충격으로부터 생겨나는 선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의미한다. 노래의 선률이 유순하지 못하면 가사가 담고있는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수 없으며 사색할 여유가 없고 노래의 깊은 뜻을 리해할수 없게 된다.

가요 《눈이 내린다》의 곡형상은 우리 식의 선률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주체적문제이론의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한 본보기이다. 가요는 서정적주인공의 구체적인 감정을 통하여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감정을 섬세하고 훌륭하게 표현하고있다. 처음에 유순하고 조용하게 흐르는 이 가요의 주선률은 주인공의 감정세계를 서정적으로 제시한다. 다음 《빨치산이야기...》로 시작되는 높은 음구에서 음악은 첫 부분에서 제시된 조용한 선률감정을 비약시켜 전환점을 이루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국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절절한 회상으로 이끌어간다. 전환점을 이룬 이 선률의 감정은 계속 상승발전되면서 《이밤도 깊어가는데...》의 고조점에 이른다. 여기에서 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밀림에서 천신만고를 헤치며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조국해방을 위해 싸워온 항일혁명투사들의 불타는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지향을 더욱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노래는 그 감정표현에서 진실할뿐아니라 형식에서도 매우 간결하고 평이하다. 불과 12소절의 짧은 구조내에서 선률은 순탄하고 아름답게 흐르면서도 심오한 사

상감정을 훌륭하게 집약화하고있다. 그러므로 노래는 아주 부르기 쉽고 깊은 서정성과 낭만성을 안겨준다.

가요 《눈이 내린다》의 이러한 높은 사상예술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울리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친근하고 견인력있게 메아리치게 되었으며 이를 원형으로 하여 4대명무용의 하나인 녀성군무 《눈이 내린다》를 탄생케 하였고 녀성기악중주로도 형상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서생활에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하였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국보적가치에 있는 노래들을 새 세기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재형상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명작이다.

관현악과 합창이라는 형식자체도 오직 우리 문학예술사에서만 창조된 새로운것이며 그 독창성과 생동성,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으로 하여 주체음악예술사에서 일대 경사로 된다.

새로 형상된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40여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여러가지 음악형식과 무용으로 형상되어 원곡의 사상예술적성격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간 지난 시기의 모든 성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일적으로 종합집대성하여 새롭게 창조한 우리 식의 음악작품이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편곡과 음악형상 등이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며 음악형상의 모든 수단들을 다채로우면서도 아름답게 리용하여 숭고한 세계를 펼쳐놓은것으로서 높은 사상예술적경지를 이루고있다.

원곡의 깊고 사색적인 서정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되는 관현악의 효과성을 살려 관중들에게 정서깊은 추억과련상을 불러일으키는 첫 제시부의 울림은 끝없는련상의 화폭들을 생동하게 안겨준다. 특히 관악기와 현악기, 건반악기와 타악기의 조화로운 배합과 특색있는 연주는 눈내리는 창가에 서서 고요한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를 보며 사색에 잠기는 서정적주인공의 세계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강도 일체의 식민지쇠사슬에 얽매여 노예의 운명에서 몸부림치던 우리 민족이 재생의 위대한 태양을 맞이하여 백두산장군별을 우러르며 투쟁으로 펼쳐나서던 선렬들의 피어린 투쟁의 모습을 그려보게도 한다.

10대의 나이에 벌써 도란에 빠진 인민을 건지시고 인류의 새시대를 펼쳐실 웅지를 품으시고 타도제국주의, 민족해방의 기치높이 별과도 같이, 태양과도 같이 나타나시어 어둡던 조선에 주체로 빛나는 전혀 새롭고 위대한 혁명의 불길을 지펴

올리신 빨찌산대장 **김일성** 동지, 20대의 젊으신 나이에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피끓이는 호소로 백두산야에 대인민항쟁의 기치총검이 번쩍이게 하시고 《무적황군》을 자랑하는 일제의 백만대군과 정면대결하신 청년장군 **김일성** 동지, 일찌기 동서고금의 그 어느 력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수령님의 그 비범성, 그 위대성에서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백배의 힘을 얻고 신심을 굳히었다. 조선인민은 천길나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인민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한가닥 재생의 희망마저 모조리 짓몽개는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우리 인민은 숨막히는 그 암흑속에서도 다시 솟아날수 있다는 신심을 잃지 않았으니 우리 인민에게는 처다볼데가 있었고 의지할데가 있었다. 조종의 산 백두산마루에 높이 솟은 장군별은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건져주고 꺼져가는 겨레의 숨결을 소생시켜주는 유일한 희망의 별, 마음의 기둥이었다.

관현악이 올려주는 음악의 세계를 따라 관중들은 백두의 찬눈을 깔고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시며 총소리 한방 울려도 조선땅에서 울려퍼지게 하시고 진군로정의 화살표 하나를 그으시어도 조국땅으로, 보천보로, 무산지구로 그으시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민족의 의기를 떨치신 희세의 영웅, 빨찌산대장 **김일성** 동지를 우러르며 진정 그이는 해와 달도 어둡던 그 암흑세월에 존함그대로 민족의 태양이시었고 유일한 구성이시였음을 심장에 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바로 여기에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의 높은 음악성과 비상한 감화력이 있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장중한 합창형식을 형상생리에 맞게 독특하게 결합한것으로 하여 시대의 미학적리상의 높이에서 음악성과 문학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한 승엄한 정서세계를 펼치고있다.

처음 관현악의 다양한 울림으로 끝없는 추억과련상을 불러일으킨 음악형상은 절정부분에서 터친 장중하고 격정적인 합창으로 고조를 이루며 선군시대의 기상과 지향과 념원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이 나라 빨찌산들의 념원이 꽃핀 강산, 우리 민족의 력사가 깊어반만년, 우리 당의 력사가 깊어 반세기가 넘지만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힘에 넘친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전도를 가지고 선군의 곧바른 길을 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확신성있게 전진하게 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건국의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게 됨으로써 나라의 존엄과 국

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융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으로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빨찌산대장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백두의 준령을 넘나드시며 가랑잎의 쪽잠도 그리웁고 사지를 문턱넘나들듯 해야 하는 천신만고의 험로를 헤치시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주체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은 깊고 역센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고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할 한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라는것을 감성적으로 심장으로 체득하게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케 하는 풍만한 원천이다.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와 같은 대결작을 받아안은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서 또 하나의 특전이며 경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작가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책임감을 더욱 복돋아주고있다.

문학은 모든 예술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문학에서 명작이 나와야 훌륭한 예술작품이 나올수 있다. 주체적인 예술의 새로운 발전의 기초에는 문학의 혁신적성과가 놓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고계시는바와 같이 명가사가 나와야 명곡이 나오고 명곡이 나와야 명무용이 나올수 있으며 훌륭한 소설이 나와야 영화, 연극, 텔레비전극작품도 훌륭히 창조될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문학을 선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문예방침을 창작에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미학적리상을 구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결정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종자의 탐구와 주제사상적대를 세우고 형상의 꽃을 피우는데서 낱고 진부한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에서 본보기적형상으로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참다운 삶의 진리,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새겨주는 명작을 새 세기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명심하고 국보적가치가 있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평론분과위원회)

병사와 조국

류명호

내 병사가 된 날은

축하의 꽃다발속에
내 병사가 된 날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인듯
보이는 모든것이 다 새롭고
들리는 모든것이 다 새로워라

내 지금껏
레사롭게 보아오던 푸른 하늘도
비로소 처음으로 보는듯
별치 않게 여기던 새소리도
이상하게 가슴을 흔들거니

아 난생처음
병사가 되어 느끼는
무엇이라 이름못할 심정을
병사 아닌 그 누가 알수 있으랴

나는 저기 저
거리를 오가는 낯모를 사람들에게도
잘있으라 친절히 인사하고싶다
저 멀리 파아란 잔디밭

내 어릴적 뛰놀던 들판에도
정겹게 입술을 대이고싶다

수양버들 우거진 공원의 의자에도
아이들의 글소리 랑랑한 학교들에도
해빛밝은 창문들과 공장들과 협동전야에도
이 땅의 행복을 수호할 목숨같은 맹세로
병사의 경례를 드리고싶다

병사가 되고보니
몸도 마음도 새롭게 태어난듯
나를 낳은 어머니도 군복입은 이 아들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거니

아 축하의 꽃다발속에
내 병사가 된 날은
이 땅에 태어나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온 그 모든것을
우리의 사회주의를 총대로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말아들로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이다!

군용밥통으로 쌀을 일며

하늘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립속
야외훈련숙영지에서
돌돌돌 산골물에
살살살 군용밥통으로 쌀을 일다가
아차, 그만 땅에 떨어진 몇알의 쌀알

나는 마치도
죄를 지은것 같아
남몰래 얼굴을 붉히네
귀한 《총알》을 잃을번 한듯
한알두알 소중한 쌀알을 끌라답네

나라가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
풀죽가마에 몇알의 쌀을 넣으며
허리끈을 탄띠처럼 조여매던

고향집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알
아직은 어려운 생활이여도
온 한해 구슬땀으로 익힌 쌀들을
선참으로 군대에 보내주는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며 또 한알...
군용밥통에
쌀을 일며
생각을 일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인민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아 쌀알을 총알처럼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병사가
어찌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랴
사랑이 없으면 지킬것도 없어라

병사생활의 몇토막

팔씨름이다
—으윽!

온몸의 힘을 단번에 모아세우는 소리
이마에 땀히는 주먹같은 땀방울들
마주잡고 굳어진 총탁관같은 두손...
훈련의 나날에
바위를 비틀어 물이라도 짜낼것 같은 힘을
무쇠팔뚝마다 장악한 병사들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아 장군님말씀대로 콩농사부업도 잘한 중대
병사는 병사마다 일당백장수가 됐구나

×

산우의 산
벼랑우의 벼랑을 넘으며
제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닿으리라
분초를 다투며 달리던 행군대로
갑자기 멈춰섰네 논벌을 앞에 두고

무슨 일인가
한순간 어리둥절하는 병사들에게
중대장은 말했네
군복에 달라붙은 도꼬마리들을 다 뜯으라고
가을이 끝난 들판에 풀씨들을 떨구면
잡초들이 돌아나 래년농사에 지장을 준다고...
그다음 중대장은 병사들의 몸차림을 검열했네

류다른 검열이였네

×

전호가에 포롱포롱
잠자리 날아오네
날아와 맴돌며
동심을 불러일으키네

이제라도
손가락을 곧추 세우면 내려와앉을듯
내 마음은 금시 거미줄그물망을 들고
잠자리를 쫓아 해지는줄 모르던
고향의 동구길을 달리네

아, 빨간잠자리
나의 어릴적 친구가 찾아왔건만
나는 잠자리와 흥그러운 시간을 보낼수 없거니
잠자리야 내 마음 들뜨우지 말고 날아가다오

병사의 총대가 흔들리면
내가 날으는 푸른 하늘도 없고
너의 날개는 순간에 재가 되려니
잠자리야 어서 날아가다오
우리 유치원꼬마들에게

그 누가 나에게 물으면

병사, 나에게 그 누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말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내 삶의 갈피를 펼쳐보이고싶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그날에 벌써
행복한 삶을 권리로 받아안았어라
아직 출생증에 내 이름을 올리기도 전에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나라의 《왕》으로 불리우며
온갖 특전과 특혜속에
나는 세상에 부럼없이 자랐거니

기쁨과 행복이 문을 열고

어서 오라 나를 부르던 배움의 종소리들
나의 작은 기침소리에도 달려오던 의사들
철따라 받아안던 사랑의 교복들과
끝없이 맑고 푸른 우리의 하늘...
내 만일

돈이 없으면 순간도 못 사는 세상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어이 알라 지금쯤 찬바람 부는 길가에서
나의 청춘을 휴지장처럼 굴리고있을지

아, 내 행복의 태줄을 묻은 이 땅
누구나 친형제로 화목하게 사는 나라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그 고마움과 은혜로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을 할수 있으랴

허나 나는 먼저
총대를 말하고싶구나
강력한 우리의 총대가 없다면
남들처럼 나라도 무너지고 사회주의도 없고
집없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떠돌려니

아, 우리의 사회주의는
백두의 총대에서 나왔고
선군의 총대로 지켜지기에

천만년 무궁번영할 행복의 집!

그렇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원썬들의 힘을 힘으로 꾸욱— 눌러놓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세우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총대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다!
이것이 병사 나의 목숨같은 사회주의다!

자료

중세소설들에서 형상된 애국명장들의 성격적특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떤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그의 성격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의 사회적성격과 관련되는 기본문제로서 사회제도와 계급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제기되고 해결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중세시기는 전기간에 걸쳐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이 세차게 벌어진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중세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적특징은 문학에서 반침략애국투쟁주제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게 하였으며 중세 전기간에 걸쳐 이 주제의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되게 하였다. 여기서 소설의 경우도 예외로 될수 없었다.

중세소설문학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을 주로 애국명장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이것은 인물전기체소설의 적극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였다.

소설발생 초기부터 중세 전기간에 걸쳐 활발히 창작된 반침략애국투쟁주제의 소설들에서는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된 애국명장들의 위훈을 직접적으로 형상하였다. 따라서 반침략애국투쟁을 취급한 작품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국명장들의 성격형상은 중세소설들에서 중요한 형상과제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주제로 한 중세소설들에서 형상된 애국명장들의 성격에서 주도적인 특질을 이루는것은 조국애였다.

중세소설들에 형상된 애국명장들의 성격적핵을 조국애로 한것은 그들모두가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반침략애국투쟁에서 나라를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바쳐 싸운것과 관련되어있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분야에서 표현된다. 하지만 조국애가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분야는 조국수호이다.

중세력사 전기간에 걸쳐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지만 언제한번 외적들에게 굴복한적이 없었으며 민족의 존엄을 빼앗긴적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대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높은 애국심을 지니고 자기의 조국을 지켜 싸우는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용맹과 위훈, 지혜와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하였기때문이다.

중세소설들에 등장하는 애국명장들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은 그들모두가 조국애의 소유자들이라는데 있다.

17세기에 창작된 장편소설 《임진록》에 등장하는 애국명장들인 리순신, 김덕령, 김응서, 박재우, 정문부, 서산대사, 사명당 등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있었기에 임진조국전쟁에서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우선 의의를 가지는것은 리순신장군의 형상이다. 그는 왜적들이 복상하여 평양성까지 강점하고 선조왕에게 격서를 보내여 항복하라고 위협공갈하고있을 때 전쟁승리의 첫 돌파구를 열며 룡양해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7년간에 걸친 싸움을 결속짓게 하였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조국애가 깊이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김응서의 형상도 인상깊게 창조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는 부모의 상사를 당한 몸이었지만 고향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고는 지체없이 전장으로 달려나가는 장수이다. 이 땅이 왜적의 무리들에게 짓밟히는것을 조금도 허용할수 없었기에 그는 평양성해방전투를 비롯한 여러 싸움들에서 용맹을 발휘하며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던것이다.

중세소설들에서는 애국명장들을 용감성과 슬기, 기지를 체현한 용맹한 장수들로 형상하고있다.

17세기에 창작된 작자불명의 중편소설 《임진병란기》, 18—19세기 중엽에 창작된 중편력사소설 《신립신대장실기》 등 많은 작품들에서는 주인공

들을 용감성과 슬기를 체현한 명장들로 형상하고 있다.

소설 《신립신대장실기》는 16세기의 실재한 역사적인물인 신립(1546—1592)에 대한 이야기를 취급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신립을 용감성을 체현한 장수로만이 아니라 지혜와 슬기를 가진 군사지략의 소유자로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변방의 오랑캐 니탕개무리와의 싸움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외적의 추장 니탕개가 경원부로 쳐들어와 마을 대로 날치고 로략질을 일삼는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지체없이 그곳으로 달려간다. 그는 자기를 우습게 보고 달려드는 니탕개의 장수들을 보기 좋게 쳐물리치며 싸움에서 4만의 군사들을 거의나 전멸시킨다.

그의 슬기와 기지는 야밤에 습격해온 외적의 무리들을 쳐물리치는 장면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군사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마음놓고 잠자리에 들어있을것을 타산한 니탕개는 군사를 세 패로 나누어 야밤에 습격해온다. 적들이 이처럼 습격해오리라하는것을 미리 내다본 신립은 진을 10리밖에 옮기고 매복까지 준비해놓는다.

신립의 슬기에 걸려든 적들은 뒤통수를 얻어맞고 저희들끼리 부딪쳐 짓밟혀 죽은자가 무수하였다. 피수 니탕개는 겨우 몸을 빼여 성안으로 들어갔지만 미리 와서 대기하고있던 신립에게 잡히어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다.

중세소설들에서는 애국명장들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적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발휘한 슬기와 지혜를 강조하여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임진록》에서는 리순신의 대담무쌍하고 기묘한 전법에 대하여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순신이 승전하매 리역기, 원균으로 더불어 사천에 진을 치고 군사를 호상하더니 문득 동남풍이 일거늘 순신이 제장들을 모아 의논 왈(말하다라는 뜻.)

〈도적이 또 오늘 밤에 순풍을 만나 우리를 겁탈할것이니 장졸들은 대기하여있으라.〉

하고 전선 이백척에 초인을 무수히 만들어세우고 또 방패와 청룡기를 앞에 세우고 리역기를 불러 왈

〈그대는 전선 십여척을 거느리고 조근도사이수풀에 복병하다가 왜선이 외양포로 들거든 급히치라.〉

또 원균을 불러 왈

〈그대는 수군 삼천을 거느리고 동도섬사이수풀에 숨었다가 적선이 지나감을 탐지하여 일시에 내달아치라. 나는 남으로 나아가 칠것이니 제정은령을 어기지 말라.〉

하고 각각 분발하니라.》

우의 레몬은 리순신이 료량해전에서 왜적들을 쓸어눕히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장면이다. 보다싶이 그는 면밀한 작전을 세우고 앞장에서 싸움을 지휘함으로써 임진조국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소설에서는 리순신장군이 싸움에서 언제나 적아간의 역량상 대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적정을 파악한 기초우에서 전략을 세운데 대하여 상세히 그리고있다.

중세소설들에서는 애국명장들을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희생정신의 소유자로 형상하고있다. 《온달전》에서의 온달, 《임진병란기》에서의 최일정, 김충남, 김덕량, 김응서, 사명당, 《위렬공 김공행군기》(리체현 작)에서의 김취려 등은 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애국명장들이다.

17세기에 창작된것으로 인정되고있는 중편소설 《림경업전》에서는 주인공 림경업을 자기희생정신을 소유한 인물로 그리고있다.

림경업은 호왕이 큰 벼슬자리와 부귀영화를 유혹하려들자 《병자년의 국치를 씻지 못해 치가 떨리는데 오랑캐의 국록을 먹는단 말이냐!》라고 추상같이 호명하며 원수들을 전륜케 한다. 또한 그는 단신으로 적들속에 들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다.

중세소설들에서는 애국명장들을 이밖에 청렴결백성과 소박성, 인간애를 지닌 인물들로 형상하였다.

하지만 중세소설들에서 형상된 애국명장들의 성격에는 일련의 제한성도 있다.

그것은 애국명장들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을 봉건유교적인 《충군》사상의 체현자로 형상하고있는것이며 또한 이들의 애국적위훈을 광범한 군인, 인민대중과의 호상관계속에서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때문에 중세소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애국명장들은 많은 경우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고독한 존재》로 그려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중세 전기간에 걸쳐 수많은 애국명장들의 영웅적위훈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성격적특질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보여준것은 반침략애국투쟁주제의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고전문학들에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인물들을 형상하였지만 우리 중세소설문학에서처럼 조국애를 지니고 용맹과 지혜,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한 애국명장들을 그리고있는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우리 중세소설의 내용의 진보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최준희

이 사람들속에서

김조규

이 사람들속에서
내 어찌 비겁할수 있으랴?
이 싸움에서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애국의 뜨거운 가슴들이
엮히고 모이고
구름이 되고
불덩이가 되고
우뢰가 되고 번개가 되고...
원췌를 쳐부시는데
스스로 몸이 지뢰가 되는이 젊은이들속에서
내 어찌 비겁하랴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별빛 아름다운 야영의 밤
나와 나란히 푹밭에 누워
북두칠성을 세이며 어머니자랑하던
나어린 자동총수 리상태동무는
동현 마루턱
짓어대는 놈들의 기관총대를 쓸어버렸고

밤과 낮을 이은
연연 천리의 행군
발더듬 났어도 앞장만 서던
김이룡 경찰조원 네사람은
원췌의 자동차를 빼앗아타고

밤을 헤치며 진중으로 돌아왔거니

이처럼 용감한 사람들에게
어찌 승리가 빛나지 않으랴
이런장한 사람들에게
어찌 영예가 깃들지 않으랴

오오, 이렇게 넘어온
승리의 첩첩준령이 몇몇이런고
이렇게 건너온
해방의 류류 장강이 몇몇이런고

이제 마지막
소백산줄기에도 갈령
저 마루 넘어서면
령남에도 상주 무연한 벌에
이랑마다 공화국기 꽃으며 내달으리니

울어라! 120мили
불을 내뿜어라!
사랑하는 내 따바리아
자빠지는 미국놈들의
주검을 차버리며
목포, 부산, 제주로 내달자!

-1950-

상식

수이전체산문

중세산문문학의 한 형태, 7~9세기경에 출현한 수이전체산문은 초기 예술적산문가운데서 형상구성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특색있는 산문형식이다.

수이전체작품들은 개별적인 작가들의 예술적창조물로서 당대의 현실이 제기하고있는 문제들을 환상적수법으로 반영하고있다.

이로부터 수이전체작품들은 구전설화적요소를 다분히 가지면서도 인간형상들이 개성적으로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창조되며 현실생활에 대한 작가의 립장과 미학적리상도 뚜렷이 표현된다.

수이전체작품들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간관계의 설정에서 대체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들간의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줄거리를 펼쳐나가는것으로 특징적이다. 이러한 류형의 작품을 수이전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수이전체작품들에서의 이같은 특이한 구성방법

과 인물형상은 환상적인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으며 그것은 현실적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예술적해명에 귀착되고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수이전체작품들은 대체로 랑만주의적색채를 띠게 된다.

수이전체작품들에서의 랑만주의적성격은 당대의 사회현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도를 찾을수 없었던 사회력사적조건과 함께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과 관련된다.

대표적인 수이전체산문작품들로서는 《두 녀자의 무덤》, 《머리에 꽃힌 석남》 등을 들수 있다.

세계유모아

아들애의 말

되는대로 배우고 써먹는 한 아낙네가 자기 아들에게 《조국은 내 엄마야!》라고 말했다. 아들애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러면 조국이 나에게서 외할머니가 되겠군요!》라고 말하였다.

한생의 재부

채동규

아버지의 당부

어릴적부터
나는 늘 버릇처럼
아버지의 바지가랑이에 묻어다녔다
마디끓고 흠냄새 배인 손이
왜 그리 부드러웠던지
고향사투리가 엷섞인 순박한 이야기
왜 그리도 듣기 즐거웠던지...

아버지는 타고난 농사꾼이었다
울퉁불퉁논두렁길도 평지처럼 걷고
누렁소 코등에 불을 대고 말없이 정도 나누는
달뜨는 밭머리로 저녁밥 들고가면
두툼한 마라초 구수히 붙여몰며
이 땅에서 겪어온 가지가지 사연들
두런두런 추억깊이 들려주시던...

막내인 이 아들을 품어줄 때면
아버지의 온몸에선
항시 싱그런 흠냄새 후더운 땀냄새가 풍겼다
했어도 동리아이들과 숨박꼭질 하느라
서너포기 강냉이 허리를 분질러놓았을 땐
너무도 가슴아파 끼이끼이 한숨 쉬곤 하셨다

철모르는 내 어린가슴에
향토애를 부어준 모습

이제는 어느덧 스무해세월이 흘렀건만
북변의 먼 개밭지로 떠나던 아침
어딜 가나 흠냄새나는 인간이 돼야 한다고
아버지 하신 당부 잊혀지지 않아라

과연 흠냄새나는 인간이란
아버지처럼 농사짓는 사람만을 의미했던가
아버지는 한생 들길만 걸었어도
땅에 진정을 묻어 근면하고 참되게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쌀로 받은 농민

폭우와 싸우며 포전을 지키는 한밤에도
가슴속에 태양을 안고산 아버지
그렇다 이 땅 어디서무슨 일을 해도
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언제나 그이 가까이에서 살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당부하셨거니

나는 이 땅의 살붙이
선군조국의 아들!
잊지 않으리 고향땅의 무게가 없힌 이 당부
엮어놓아도 제쳐놓아도
흠냄새 땀냄새
애국의 향기만을 진하게 풍기며...

클락새가 운다

이 숲속의 가수

클락! 클락!
클락새소리에 마음 끌리어
싱그런 숲속에 들어섰건만
우리 나라에만 있는 보배로운 새
어디서 우는지 찾을길 없네
나무마다 새소리에 취해 흥그러이 설레일뿐
산골짜마다 정겨운 메아리를 울릴뿐

고난의 나날에 심은 나무들이
이렇듯 장하게 자라 무성한 숲 펼쳤으니
클락새야 너도 아름다운 노래를 안고
이 산천에 길이 깃들었구나
너야말로 다정하고 다감한

네 노래 하도 좋아
기름기 흐르는 살진 나무들이
가지를 설령이며 무엇인가 끝없이 속살대누나
바위밑에 솟아난 쪽빛의 샘물은
네 노래 떠실고 돌돌 흘러흐르누나
한걸음 두걸음 검푸른 숲 헤치면
그 무슨 동화세계에서처럼
노루며 사슴 다람쥐들이 그늘아래 모여
의종게 춤추는 모양도 보일듯

지구의 곳곳에선
물이 없어 물전쟁도 인단다

나무들은 타버리고 새들은 떠나가고
 사막이 되어버린 땅도 많단다
 얼마나 좋으냐 이 물 이 공기 이 모든것!
 내 고향 사람들의 땀젖은 손길
 클락새야 너의 복된 보금자리 꾸렸구나
 돌우에도 꽃피우는 열렬한 마음들이
 애국의 푸른 숲 가없이 펼쳤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모두가
 제 사는 곳 제손으로 아글타글 꾸린다면
 자기의 일터를 눈부시게 거둔다면
 산은 산마다 더 무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들은 들마다 오곡백과 주렁져
 선군시대 무릉도원 꽃피나리니

클락새야
 내 고향 내 조국의 고운 새야

여기서 알낱고 새끼까고 못새들을 부르며
 청맑은 네 노래 날마다 울리거라
 내 가슴속에선 벌써
 새라새로운 노래들이 울린단다
 애국에 불타는 인간들에 대한 노래
 참다운 생활에 대한 노래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노래...
 아 나무들에 부딪치고 잔디밭에 미끄러지며
 하냥 헤매고만 싶은 이 숲속에
 클락클락 클락새가 운다

그렇다 머지 않아
 내 나라의 저 푸른 하늘가로
 더 많은 새들이 날아들리라
 강성대국의 려명에 질북게 물들은
 기쁨의 새들이 행복의 새들이...

들 길

나서자란 산촌의 들길
 땅김이 훈훈하게 피어오르고
 민들레꽃 냉이꽃 점점이 무늬진 길
 들이받을듯 경충경충 마주오는 송아지에게
 내 공손히 길을 비켜준다

아버지가 끌던 소달구지를 타고
 어릴 땐 이 길로 많이도 오갔지
 들바람에 배꼽이랑 드러낸채
 메뚜기를 쫓으며 뛰놀던 들길
 중학시절 콩포기속에 몰래 숨었다가
 처녀애들을 놀래우던 들길

나는 그때 다 알수 없었다
 왜 고향사람들
 안개길은 새벽녘에도
 장마비 지겨운 한밤중에도
 이 들길만을 수격수격 걸었고
 그렇게 걸을 때 제일 마음 편해했는지

토방돌우에 앉아 기다리다못해
 어머니 마중가던 저녁들도 있었다
 동네 젊은 쌍들의 풋사랑 엿보려

이 길넉따라 몰래몰래 기여가다
 돌부리에 무릎쫓던 그런 밤들도 있었다

생활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여도
 기꺼이 이 들길에 한생을 엮고
 기쁨도 어려움도 땅과 나누던
 고향사람들의 고지식하고 참된 마음
 걸음마다 느껴지는 길

지금도 뜨거운 눈길로 더듬어보니
 푸근푸근 부푼 들길우엔
 농장원들의 무수한 발자욱 발자욱
 오로지 농사, 농사를 위해
 그리도 애쓰는 마음들로 하여
 들길은 더 넓어지고 더 억세게 다져지고있거니

아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걸으셨고
 위대한 장군님 오늘도 걸고걸으시는
 농촌의 들길!
 누구나 이 길을 걸을 때
 어디서나 가슴에 안고 살 때
 래일은 얼마나 하얗게 동터올것인가

한생의 재부

고향에 오니
그 어떤 애뜻한 향수보다 먼저
가슴스치는 몇토막의 추억보다 먼저
어이하여 조국이어 그대 위한 사랑
전에없이 순결하게
백배로 강렬하게 타오르는것일가
이 산촌 호박넝쿨 타래진 지붕밑에서
어머니는 나를 낳아 젖먹여 키우셨지
제나름의 큰 소원 담아부르는
산골녀인의 순후한 자장가속에 자란 몸
달리야 살수 있으랴
어제도 나는 이 땅의 아들
오늘도 나는 조국의 아들

밤나무집 셋째가 왔다고
지금도 반겨주는 정겨운 부름에서
고향사람들의 흠내나는 진정을 느낀다
부디 고향을 잊지 말라는
어릴적 순진한 맘 뚫지 말고
키워준 조국 더 잘 받들라는...
생활의 먼길에
때로 눈물나도록 힘겨울 때 많으리
허나 조국이어 나는 가리라
태를 묻은 땅
수삼나무 넋넉이 줄을 선 동구길
맨발로 달려도 아픈줄 모르던 그 시절처럼

아담한 단층짜리 모교에서
《가까거거...》 복되게 배운 그대의 말과 글로

한생토록 사랑의 노래를 지으리
그 시절 꿈속에서 그러보던 그대로
내 인생의 알찬 열매들을
조국이어 그대에게 바치리

아 세월은 가도
고향에 대한 추억의 모든것은
수채화처럼 더더욱 진하게 안겨오리
이 땅의 맑은 물 피가 되어 몸에 흘러
저 하늘의 푸른빛눈동자에 물들어
단두대우에서도 변절할수 없는
나는 고향의 아들
조국의 아들

그렇다 고향은
조국애의 아름다운 첫 기슭!
여기서 움터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수 없는
한생의 영원한 재부!

오, 조국이어 그대 만일 이 아들에게
《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발가숭이 어릴적처럼
티없는 웃음지어 대답하리라
《나를 키운 어머니가 그대일진대
나의 정든 고향이 그대일진대
내 어찌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랴!》